



해마다기념되는 3.1절 행사에는지역노인들 50여명이참석해만 세삼창을 부른다. 올해는 박석만 북부보스톤한인연합감리교회의 장로가 선창을 했다



박강호 후보스톤 총영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기념사를 대독했다. 윤미자 전 뉴잉글랜드 한국교회협의회장이 독립기념문을 낭독하며 목이 메었다

보스톤 3.1절 기념식 조출 타 지역 비해 노인들만 행사 참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동해 병기 및 독도 분쟁으로 전미주가 들쭉이는 가운데 보스톤 지역 한인들이 모여 3.1절 기념식을 개최했다. 지난 3월 2일 오후 3시부터 렉싱턴의 성요한교회에서 진행된 3.1절 행사에는 지역 한인 50여명이 참석해

조국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95년 전 불같이 일어나 목숨을 바친 선열들의 넋을 기렸다. 뉴잉글랜드한인회(회장 한선우)

가 주최한 기념식 참석자들은 대부분이 이민 1세대 지역 노인들로, 올해 역시 젊은 세대의 참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순영 뉴잉글랜드 한국교회협의회장은 “이민 1세대가 다 사라지고 나면 차세대들이 3.1절의 의미를 챙길 수 있을 지 모르겠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행사는 윤미자 전뉴잉글랜드 한

국교회협의회장의 독립기념문 낭독과 박강호 후보스톤 총영사의 박근혜 대통령 3.1절 기념사 대독으로 이어진 후 박석만 북부보스톤한인연합감리교회 장로의 선창에 따라 한인들이 만세삼창을 함으로써 막을 내렸다.

한편, 뉴욕이나 LA지역에서도 이번 95주년 3.1절을 맞아 한인회를 중심으로 지역 한인들이 만세삼창을

<진료 과목>

- * 일반 치과 * 잇몸 질환 치료
- * 신경 치료 * 보철 전문
- * 보톡스 & 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www.gracesalonsboston.com

영업 시간 월요일~금요일: 10시~7시
토요일: 9시~8시

예약을 하시면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각종 헤어 컷과 펴 그리고 스킨 케어

젊음과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곳!!

매직 스트레이트 Magic Straightening

브라질 케라틴 트리트먼트 Brazilian Keratin Treatment

Threading Threading

디지털 펴 & 셋팅 펴 Digital Perm & Setting Perm

아이론 펴 Iron Perm

헤어 컬러링 Coloring (GOLDWELL 사용)

헤어 메니큐어 (코팅) Hair Manicure

메니큐어 & 페디큐어 Manicure & Pedicure

왁싱 Waxing

얼굴 마사지 Facials

웨딩 서비스 Wedding Services

Grace Salon

프리미엄 토탈 헤어 살론

그레이스 컷팅 클럽

617-623-2430

56 Union Sq. Somerville, MA 02143

한국종합식품 옆 건물에 위치해 있습니다.



타지역 3.1절 행사 모습. 한복차림에 어린이들까지 3.1절을 기념해 활기찬 얼굴로 만 세삼창을 외치는 모습이 보스톤지역과 대조적이다

불렀다. 1일 뉴욕한인회관에서 열린 기념식 행사참석자들은 뉴욕주 의회에 상정돼 있는 동해병기법의 통과를 위한 청원서 서명 운동에 참여했으며, 뉴저지한인회는 로버트 고든 뉴저지주상원의원을 비롯, 적지않은 수의 정치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3·1 독립운동 내용을 정리한 영상물을 상영해 3.1절의 의미를 되새겼다.

또한 LA지역은 한복을 곁게 차려입은 어린이들과 참석자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만세삼창을 했으며 중가주 다뉴바에서는 3.1 운동 기념행진 재현행사가 벌어졌다. hckim@bostonkorea.com

뉴잉글랜드한인회 절전형 전구 무료 배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38대 뉴잉글랜드 한인회(회장 한선우)는 지역 한인들에게 절전형 전구 1만개를 무료로 배부하기 시작했다.

한인회는 린에 거주하는 한인 유강조 씨로부터 기증을 받아 지난 2일 3.1절 행사장에서부터 무료 배부를 시작했다.

한선우 한인회장은 “전구를 필요로 하는 지역 한인들과 단체들은 한인회로 연락하면 배부해 주겠다”고 밝혔다.



한인회에 절전형 전구 1만개를 기증한 유강조씨

한인회 연락처: 781-933-8822,
haninhoebo@gmail.com

bostonkorean@hotmail.com
hckim@bostonkorea.com



절전형 전구를 배부하고 있는 한인회 한선우 회장과 장수인 부회장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영의 QR 마크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보스톤코리아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됩니다



Publisher & C.E.O

장명술 Myong Sool Chang

Writer

김현천 HyunCheon Kim
정성일 Sungil Jung
박현아 HyunAh Park
오현숙 HyunSook Oh

Graphic Designer

양성대 SoungDae Ya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한웅 HanWoong Chung

Contribution part

백린 Rin Paik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곽 Andrew Koak
앤젤라엄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오승준 Albert Oh
이명원 Myung Won Lee
정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 TV 사업국

617-955-9459

레이디경향

617-775-8474

제휴업체 | 연합뉴스 | 미신협 회원사 | 세한연 회원사



맞춤식 교육 Mathematics • Verbal • Testing Ski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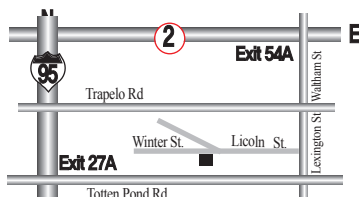
SAT Plus

SAT Plus Spring Schedule 2014

Saturdays (SAT II June 7, 2014)

Class	Time
SAT II MATH IIC	9:00AM – 11:00PM Start 3/29 – 5/31
SAT II/AP Biology	11:30AM – 1:30PM Start 3/15 – 5/31
SAT II/ AP Chemistry	2:00PM – 4:00PM Start 3/15 – 5/31
SAT II MATH IC	5:30PM – 7:00PM Start 3/29 – 5/31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 I 및 SAT II 개인교습



SAT I 및 SAT II 준비 전문학원

TEL: 781-398-1881

2 Winter Street Suite 104, Waltham, MA 02451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East Sea Coalition New York

Home

Co-name "Sea of Japan" with "East Sea" in NYS Textbooks

Sign Petition

서명하기

nyaction.kace.org

뉴욕 동해병기 위해 서명 운동본격화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버지니아 주 동해병기 법안 통과가 무산된 가운데 뉴욕주 동해병기 법안 통과를 위한 뉴욕 한인사회의 풀뿌리 캠페인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뉴욕한인회를 중심으로 지난 2월 27일 출범식을 가진 범동포 추진위원회는 온 라 인 서 명 사 이 트 (nyaction.kace.org)를 개설하고 이를 통해 받은 서명을 주의원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한인들의 서명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홍보 활동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이 사이트에 접속하면 이름과 주소

등을 기입하는 창으로 연결되며 정보 기입이 완료되면 서명자의 이름으로 공식 서한이 만들어져 해당 지역 구 주의원에게 e메일과 팩스로 전달된다.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노인들은 뉴욕한인회나 시민참여센터 등 추진위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 한인 단체를 통해 서명용지를 받아 서명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출범식에는 ▶대뉴욕지구교회 협의회 ▶퀸즈한인회 ▶맨해튼한인회 ▶롱아일랜드한인회 ▶뉴욕한인경제인협회 ▶뉴욕한인네일협회 ▶뉴욕한인수산인협회 ▶뉴욕한인드라이클리

“냉동순대 아닌 즉석 평양순대로 입맛 사로잡아”

릴라리어블서 매 주말 맛볼 수 있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북한 예술인 탈북자 마영애 씨가 오는 7일 금요일부터 9일 일요일까지 3일 간 캄브리지에 위치한 릴라리어블 마켓에서 평양 순대를 판매한다.

2년 전 롯데마트에서 순대에 목말랐던 보스톤 한인들에게 즉석순대를 맛보여 화제가 됐던 마영애의 평양순대가 다시 보스톤을 찾아오는 것. 마영애 평양순대는 앞으로 매 주말

금, 토, 일 릴라리어블에서 보스톤 소비자를 만날 예정이다.

마영애 씨는 “참쌀과 흰쌀에다 각종 ‘웰빙’ 야채로 속을 꽉 채운 평양 순대를 매 주말마다 보스톤 한인들에게 판매하게 될 것 같다”며 평양순대를 잊지 않은 한인들에게 감사함을 표했다. 또한 “이번 순대 판매 수익금은 6.25 전쟁 때 납북된 국군 포로병들의 가족들을 돕는데 쓰고 싶다”고 전했다.

행사일정: 3월 7일 금요일~9일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행사장소: 릴라리어블 마켓

hckim@bostonkorea.com

탈북자마영애씨가 2년전롯데마트에서판매하던평양순대를들고다시 보스톤을찾는다

너스협회 ▶미동부지역뉴욕해병대전우회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미북동부지회 ▶뉴욕한인변호사협회 ▶코리안아메리칸시민활동연대 ▶세계한인입양인협회 등 여러 한인 단체들이 참석해 캠페인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hckim@bostonkorea.com

보스톤산악회 정기산행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산악회가 오는 3월 15일 토요일 Mt. MOUNT CHOCORUA로 2014년 제 4차 정기산행을 간다.

산 행 지 는 Mt.Chocorua

(3478ft), Albany, N.H. 소 재 (Chamney Falls-Piper trail.)이며 기타 신청문의는 전화 617-780-5711 (김수환)으로 하면 된다.

hckim@bostonkorea.com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617.871.1482

캠브리지 덴탈 어넥스
Cambridge Dental Annex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www.yasuboston.com

야수 레스토랑

자녀를 위해 요리하는 엄마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야수는 작은 나물에서부터 요리 하나하나까지 자녀들을 기르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만듭니다. 직접 만들어 손맛이 들어있는 야수의 음식 - 맛과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야수를 찾아주세요.

YASU RESTAURANT
Telephone 617.738.2244
1366 Beacon Street, Brookline, MA 02446

단체예약
주문음식

보스톤노인회 신임회장 체제 본격 돌입

정기총회 통해 결산보고 및 사업계획 보고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보스톤한인회(회장 유영심)가 지난 5일 오전 11시 보스톤감리교회 (담임목사 안신형)에서 60 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첫 정기총회를 갖고 신임회장 체제의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김인순 총무의 사회로 진행된 총회는 유회장의 개회 인사말과 신임임원 소개, 그리고 고영복 이사장의 소개가

있었다. 이어 유 회장은 2014년 월별 활동계획서와 연중행사 계획서를 발표하고 회원들의 의결을 통해 내용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2013년 수입과 지출에 대한 보고와 2014년 예산안이 발표됐고, 원안대로 만장일치 통과됐다.

유회장은 올해 노인회를 '건강증진, 즐거운 삶, 품격 가꾸기'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기로 밝히고 흡리스와 너싱

홈 등을 방문 봉사할 계획도 전했다.

이날 총회후에는 주보스톤총영사관에서 과전 나온 담당 영사 및 직원들이 이중국적과 기타 호적 등에 관한 궁금증을 설명해 주었다.

올해 노인회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회장 유영심/ 부회장 윤철호, 권정자/ 총무 김인순/ 회계 박진영/봉사 황진희

hckim@bostonkorea.com



유영심 노인회장이 결산 및 사업 계획을 보고하고 있다



한인회 총회 참석자들

한인회 결산보고 및 사업계획 보고 총회

참석인원 60명 미달, 한인회 한인 동원력도 미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38대 뉴잉글랜드 한인회는 지난 3월 2일(일) 3.1절 기념식을 마친 후 2013년 한인회 재정 집계에 대한 결산보고 및 2014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한인회관 관리위원회 안병학 재무위원이 한인회관 운영비 결산에 대한 보고를 했다.

결산 보고에 앞서 뉴잉글랜드 한인회 감사를 맡은 이경해 시민협회장은 뉴잉글랜드한인회의 2013년도 결산



(좌)이경해 시민협회장이 올해 한인회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를 했다 (가운데)한선우 한인회장이 한인회 결산보고를 하는 모습 (우)안병학 한인회관재정관리위원회가 한인회관운영비 결산보고를 하는 모습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이상이 없음을 보고했다. 한인회 결산보고에 따르면

2013년도 총 수입은 \$147,905이었고 총 지출은 \$146,113로, 2013년 말

\$1,792의 잔액을 남겨 2014년으로 이어졌다. 한인회는 올 2014년 사업계획으로 3.1절, 6.25, 8.15국경일 행사를 진행하는 한편 한인사회를 위한 커뮤니티 서비스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한 회장은 "한인회의 활동에 보다 많은 한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행사에 내실을 기하고 한인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전했으며 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총회 참석자는 56명으로 정족수 60명을 채우지 못했다. 이에

2013년도 뉴잉글랜드한인회 결산 보고서 (수입)		
항목	금액	비고
전년 이월금	\$960	
회비	\$18,860	
이사회비	\$2,400	
후원금	\$26,310	
차입금	\$15,000	
행사수입	\$5,320	연말파티
광고수입	\$79,055	한인회보
총 수입	\$147,905	

2013년도 뉴잉글랜드한인회 결산 보고서 (지출)		
항목	금액	비고
신분발행비	\$30,450	
배달비	\$11,200	
인쇄비	\$17,210	
3.1절	\$1,020	
7.28항전기념	\$2,881	
8.15 제복대행	\$2,180	
Korean Night	\$1,530	
연말파티	\$5,105	
기타	\$424	세무, 모바일게이 설명회 등
단체후원비	\$1,040	직능단체 후원 및 행사지원
사무경비	\$1,220	인터넷, 프린트업체, 우표 등
한인회관운영비	\$1,768	원원회의 등
연도사 비용	\$19,850	
공통경비	\$45	은행 Fee 등
2014년도 이월	\$1,792	
총 지출	\$146,113	

별첨 1 : 행사경비 세부내역		
행사명	경비내역	금액
3.1절	음식 및 다과	\$220
	공연장비	\$800
	한인회관 이사대행비	\$100
7.28 항전기념	기념품	\$800
	기타 행사준비비 (음식 등)	\$117
	총합	\$2,117
8.15 제복대행	음식 및 음료수 (인원별 식사 등)	\$1,050
	인력, 장물 구경비	\$330
	의정서 비용	\$500
	장소대여비	\$300
	의정서	\$300
	기타	\$280
	총합	\$2,860
연말파티	음식 (대행비 (음식 포함))	\$4,480
	공연 및 오락 비용	\$100
	음료	\$500
	기타 (배우 등 용구 등)	\$300
	기타 (대행비 포함)	\$45
	총합	\$5,415
기타 (세무, 모바일게이 설명회 등)	기타 (세무 등)	\$424
	총합	\$1,792

대해 한선우 회장은 총회 의결권을 위임한 10여명 회원의 위임장을 받아 처리할 뜻을 밝혔다.

hckim@bostonkorea.com

Frank Y. Shin, D.M.D
현 **Tufts** 치과대학 부교수

신영목치과

- 치아 이식 수술 (Implants)
- 미용치과 (Veneers/Bleaching)
- 아말감 대신 치아색으로 [Composite Fillings]
- 응급환자 당일치료
- 토요일도 진료함
- 각종보험 지정병원

www.drfrankshin.com

617.265.5606

1428 Dorchester Ave. Boston, MA 02122

가주 순두부 & 샤부샤부

한식&일식

"2013년 보스톤 잡지 선정 한식1위인 가주순두부 이제 엘스턴과 캠브리지 두곳에서 모시겠습니다."

영업시간은
오전11시~ 밤11시까지 입니다.

엘스턴 주소: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8540
캠브리지 주소: 57 JFK St., Cambridge, MA 02138 (617) 864-6868

단체예약과 문의 가능



INTERVIEW

한국 전통음악을 강의하게 된 미국인 교수 늦깎이 해금 연주자 힐러리 핀참 성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이번 국악 연주회의 해설을 맡은 이유 및 동기는?

1977년 인류음악학(Ethnomusicology)을 공부하면서 국악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후 국악 연주자들과 함께 외국에 나가서 한국전통음악에 대해 당당히 이야기하고 싶은 꿈이 늘 있었다.(특히 영어로는 국악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던 중 브랜다이스 대학에서 세계음악을 가르치고 있는 주디스 아이센버그 음악교수의 추천으로 보스톤 한미예술협회의 행사에 참석하게 됐다.

외국인이 바라본 한국의 전통 음악은 어떤가?

한국 음악을 보면 '정성스럽다'라는 이미지가 제일 먼저 떠오른다. 예를 들어 한국음악은(한국음식도 마찬가지) '정을 넣고 성을 다하여' 가장 한국스러운, 한국만의 맛을 만들어 낸다. 그리고 한국전통음악의 특색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흙소리'라는 생각이 든다. 국악의 '흙소리'는 자연을 닮은 소박한 소리이고, 그것이 정말 매력적이다. 그런 점이 한국문화의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국악을 배우고 강의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했는가?

석사때부터 한국음악 연구를 시작했고 국악기를 배우기 시작했다. 장구, 거문고, 가야금, 해금 그리고 민요를 배우면서 국악의 특징을 점점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 음악을 연구하기 위해선 연주기법을 반드시 배워야 한다.

처음 접했고 감명을 받은 국악은 어떤 것이었나?



1995년 무속음악 분석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음악은 일본, 중국음악의 아류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시나위(남부지역 무속 음악) CD를 듣는 순간 깜짝 놀랐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음색과 리듬이었다. 그 전에 이 끌려 지금까지 국악과 함께하고 있다.

본인이 연주하는 악기는? 왜 그 악기를 택했나?

사람의 목소리와 가장 유사한 해금의 음색이 좋아서 해금을 배우기 시작했다. 어렸을 때부터 바이올린을 배웠기 때문에 다른 악기보다 배우기가 더 쉬울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연주법이 너무 달라서 어려웠다. 해금을 한 지 6년이 됐는데 아직도 배울 것이 많다.

이번 보스톤 공연에서 한국인들이 어떤 점을 기대하면 좋은가?

많은 한국 사람들이 국악은 재미없고, 느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음악이라고 생각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고 싶다. 한국인들에게 국악이 더욱 자랑스럽게 느껴 질 수 있도록 하고 싶다. 옛 것, 어른들의 것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세계적인 음악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 우리가 김연아 선수를 자랑스럽게 느끼듯이 사람들이 국악을 자랑스러운 한국대표로 느꼈으면 좋겠다.

외국에 살고 있는 이민자 한인들에게 국악 공연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라 생각하나?

음악과 정체성은 연결되어 있다. 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이 우리 공연을 보면서 한국을 더 가깝게 느꼈으면 좋겠다. 나도 한국에서 살고 있는데 가끔 미국 남부의 전통음악을 듣거나 연주를 하면 눈물이 난다. 내가 외국에서

미국인 국악해설가와 함께하는 국악의 향연

‘Soul of Korea 2014: A Night of Korean Traditional Music’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오는 3월 15일(토)과 16일(일) 이틀간 보스톤에서 펼쳐지는 한국 국악 공연은 국내외적으로 유명한 전문가들의 주옥같은 공연과 함께 미국인 국악교수의 해설이 어우러진다.

판소리, 가야금, 대금, 피리, 장구가 어우러지는 이번 공연 ‘Soul of Korea 2014: A Night of Korean Traditional Music’은 한국과 미국, 유럽 등 세계 무대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가민(피리), 유홍(대금), 안이호(판소리), 박이슬(가야금), 최소리(장구) 등의 젊은 음악인들이 전통적인 기악 음악과 판소리를 들려 줄 예정이며, 미국인으로 국악을 가르치는 힐러리 핀참 성(Hilary Finchum-Sung) 교수가 영어권 관객들과

한인 2세들에게 한국음악을 해설한다. 힐러리 교수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교수로, 공연에 앞서 3월 13일에는 연주자들과 함께 브랜다이스 대학교에서 한국 음악 수업도 할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보스톤한미예술협회(Korean Cultural Society of Boston, 이사장: 이충시, 회장: 김병국)가 주최하는 것으로, 브랜다이스 대학교의 주디스 아이센버그(Judith Eissenburg) 교수 및 Korea Foundation의 협력으로 이루어지게 됐다.

미국인으로서는 한국의 음악에 흠뻑 빠져 해금을 연주하는 한편 서울대 음대에서 국악을 강의하고 있는 힐러리 핀참 성 교수와 인터뷰를 나눴다.

hckim@bostonkorea.com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나 이해한다. 이번 연주는 보스톤 이민자 한인들에게 귀중한 선물이 될 것이다.

국악 공연을 통해 외국인들에게는 어떤 인상을 주고 싶은가?

많은 미국인들은 K-Pop이 한국음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인들에게 K-Pop 보다 더 한국적인, 더 멋진 한국음악이 있다는 것을 알려 주고 싶다. 그리고 관객들이 이번 연주를 ‘이국적인 음악’으로만 느끼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 곡에 대한 설명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공연일시 및 장소〉

3월 15일 (토) 저녁 7시 30분, 웨스트 패리쉬 교회, 129 Reservation Rd., Andover, MA).

3월 16일(일)저녁 7시 30분, 브랜다이스 대학교의 슬로스버그 뮤직 센터, 415 South St., Waltham, MA

공연 입장권: 일반 \$20, 학생 \$10, www.kcsboston.org에서 구입 문의 전화: 781-223-4411

hckim@bostonkorea.com

무료전화 1-888-666-1708

- 한국, 아시아, 미국내, 유럽, 남미 등
- KE, UA, DL, AA 등 모든 항공사 취급
- 항공권 특별 할인 제공
- 통역, 번역 서비스



유니버스 여행사

대표 최 한길

Tel 617.739.2888 / www.utsboston.net

Universe travel services
100 Hano Street #23A, Allston, MA 02134

공인회계사

정진수
CPA/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융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료(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공인세무사

김창근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SAT II 한국어 모의고사로 준비하자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일제히 실시

(보스턴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뉴잉글랜드 한국학교협의회 소속 한글학교들이 SAT II 한국어 시험에 대비해 오는 22일(토)과 23일(일) 이틀간 모의고사를 실시한다.

SAT II 한국어 모의고사는 재미한국학교 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미 전역에서 추천된 전문가를 엄선해 문제를 출제하고 감수를 거친 후 미국 전역의 한국학교에서 동시에 실시한다.

재미한국학교 협의회 뉴잉글랜드지역 협의회는 그동안 모의고사를 원하는 회원교의 신청을 받아 해마다 실시해 오던 중 올해부터 한국학교에 등록되지 않은 학생들에게도 기회를 확대했다.

따라서 이번 모의고사는 한국학교



학생들을 포함해 한국학교 등록생이 아닌 학생들도 응시할 수 있으므로 SAT II 한국어 시험에 관심있는 학생들은 거주지와 가까운 한국학교에 문의해서 시험을 치를 수 있다.

이번에 모의고사를 실시하는 학교 중 외부 학생을 수용하는 학교는 뉴잉글랜드한국학교와 북부보스턴한국학교, 보스턴 천주교 한국학교 세 곳

다.

뉴잉글랜드한국학교

3월 22일(토) 오전 10시 20분, 11시 30분, 주소: 130 Wheeler Rd, Newton, MA, 문의: 남일 교장(ksneusa@verizon.net),

북부보스턴 한국학교

3월 22일(토) 오전 9시 45분, 주소: 244 Lowell St, Andover, MA 01810, 문의: 장인숙 교장 insuk121@comcast.net

보스턴 천주교 한국학교

일시: 3월 23일(일) 오후 1시 40분, 주소: 45 Ash St, Auburndale, MA, 문의: 김현정 교장 anasta24.kim@gmail.com

hckim@bostonkorea.com

너싱 홈이 있긴 하지만, 자식들 입장에서는 찾아가기 쉬운 위치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몇 군데 너싱 홈을 옮겨봤다는 이 씨는 딱히 추천할만큼 마음에 맞는 곳은 없었다는 뜻을 비쳤다.

사우스 커브 마노 너싱 홈의 관리자(administrator)인 리 첸 씨에 의하면 이 곳은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한 너싱 홈으로 평점 5개를 받을만큼 질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US News & World Report는 2013년 미국 내 최고의 너싱 홈으로 이곳을 선정하기도 했다.

일반 환자의 경우 하루에 370불의 비용이 청구되지만,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를 적용 받으면 거의 무료로 요양을 할 수 있다. 음식은 중국식과 미국식을 겸해 제공되고 다양한 아시안 문화 활동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몇년 전 한국인 노인이 한 달 가량

다"고 고개를 저었다.

보스턴 지역 한인 노인들 중 몸이 불편해 너싱 홈의 신세를 져야 하는 경우는 대부분 김모 노인처럼 언어가 안통하고 문화가 달라 불편함을 호소한다.

하지만, 한인이 운영하는 너싱 홈은 뉴욕이나 엘에이 등 한인 인구가 많은 지역이라야 찾아볼 수 있어 보스턴 노인들에게 그곳은 '꿈의 나라'다. 자식들이 방문하기 너무 먼 거리이기 때문에 염두를 낼 수가 없다.

몇 년 전 부친을 여윈 이 모 씨는 "돌아가실 때까지 장기간 너싱 홈 신세를 졌다"며 "환자와 스태프 대부분이 미국인이어서 아버지가 힘들어 했다"고 말했다. 이 씨는 "뉴욕에 한인

▶▶1면에 이어서

비교적 음식과 문화 한국인에 친근

사가 2명 배치돼 있다는 점이다. 젊은 20대 남자간호사 허태혁 씨와 40대 여성 간호사 최신자 씨가 균형을 이뤄 한인 노인들의 아쉬운 점을 살필 수 있다.

영어로 의사 소통을 못하는 한인 노인들에게 미국 너싱 홈은 창살 없는 감옥이나 마찬가지다.

"제일 힘든 건 말이 안통하는 거죠. 음식도 안맞지만, 어느 누구 하나 말이 통해야 말이지요. 정말 외로워서 있고 싶지 않지만, 자식들 신세를 질 수가 없으니..."

지난 해 미국인이 운영하는 너싱 홈 신세를 졌던 김모 노인은 당시를 떠올리며 "가능하면 다시는 가고 싶지 않

에 따른 증빙서류(병명면제 공문,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증 등) 1부,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경우 증명서류 1부, 부모가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경우는 부모 및 본인이 17년 이상 거주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동일인증명서 1부(출생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상의 한글이름과 영문성명이 다른 경우), 수수료 \$9, 우표 1장 붙인 반송용 봉투이다.

각 신청서 서식은 주보스턴 총영사관 홈페이지 <http://usa-boston.mofa.go.kr/>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마감일은 31일이지만, 각종 신청서류의 발급 기간이 필요하므로 가능하다면 3월 중순까지 신청서류를 준비해 접수하는 것이 좋다.

한편, 총영사관에 따르면 부모를 따라 영주권을 취득한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37세까지 병역 연장이 가능하다.

임시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2년씩 병역연장이 가능하며, 추후 정식 영주권이 나오면 37세까지 병역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주보스턴 총영사관 민원실 국적업무 담당 직원(617-641-2830)에게 연락하면 된다. hckim@bostonkorea.com

머물다 갔다"고 밝힌 루이안 자오 디렉터는 "미국 너싱 홈이 불편한 한인들은 정서와 문화가 비슷한 아시안끼리 있는 것이 더 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스턴 글로브에 의하면 사우스 커브 마노 요양 및 재활센터의 전신인 사우스 커브 마노 너싱 홈은 그동안 평균 99% 이상 노인환자의 등록률을 보였으며 매사추세츠 보건부(Massachu-

setts Department of Public Health)에서 실시한 17개의 검사에 완벽한 점수를 받았다.

사우스 커브 마노 요양 및 재활센터에 대한 문의나 신청은 <http://www.southcovemanor.com/>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617-423-0590으로 문의할 수 있다. 한국인 상담은 617-875-6301(허태혁 간호사)이다.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문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 932-0400 Fax: (781) 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개인상해-교통사고, 미끌어짐, 낙상사고, 동물 물림
채무(개인, 세금)-신용카드, IRS, 사업 거래처 조정, 합의
파산법, 이민법, 추방소송 디펜스, 비즈니스 회계, 세무, 중개, 매매
민사소송, 형사소송 디펜스

상담문의: (781) 712-1706 CHANG & ASSOCIATES, P.C.
@ One Burlington Business Center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사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대행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1, J1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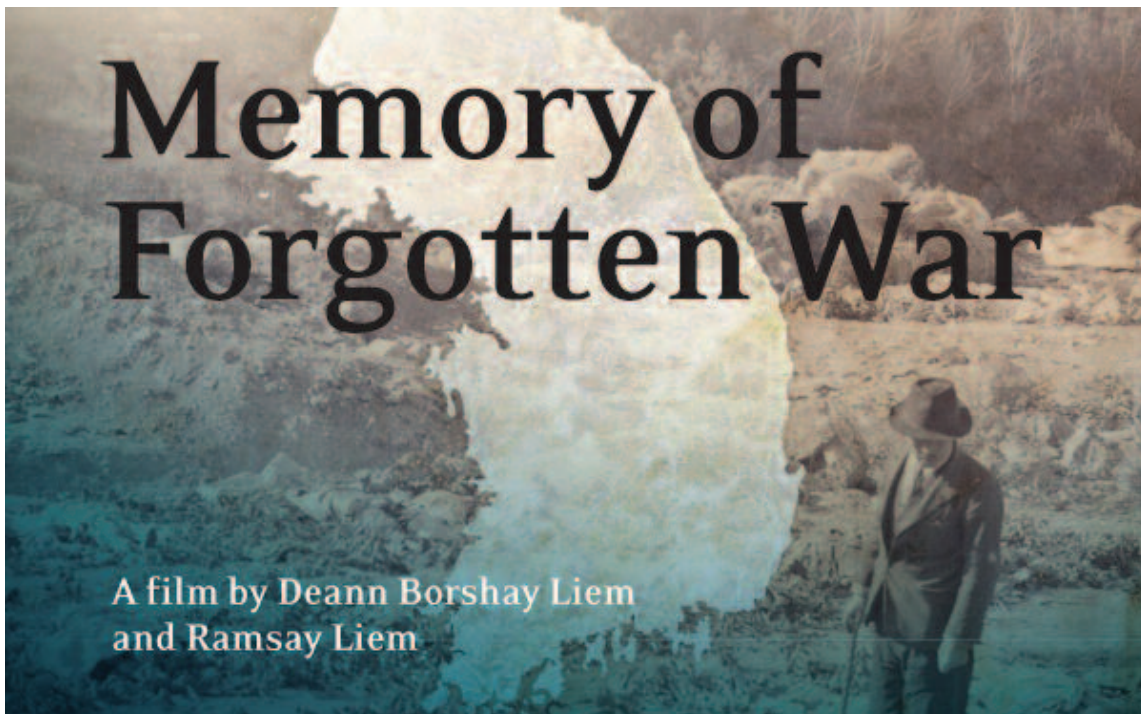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ichelleha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Office (Alewife Station)
125 Cambridge Park Dr. Suite 301
Cambridge MA 02140

이산가족 다룬 영화 상영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 American Studies)가 이산가족의 가 ORY OF FORGOTTEN WAR를
자 = 아시안 어메리칸 연구회(Asian 슴 아픈 이야기를 다룬 영화 MEM- 오는 13일 오후 2시부터 유매스 보스



한국영화 하버드에서 감상하기 무산일기, 두번째 사랑, 만추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
자 = 하버드 대학 한국학회에서 오는
3월 19일부터 5월 7일까지 '무산일기',
'두번째 사랑', '만추' 세 편
의 영화를 매달 한편씩 무료로 상영한
다.

세 작품 모두 영어 더빙이나 자막이
제공되며 상영 시간은 오후 4시 30분,
상영 장소는 Porté Seminar Room

(S250 : CGIS South Building, 1730
Cambridge St.)이다.

영화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han-
kim@fas.harvard.edu로 문의하면 된
다.

무산일기

3월 19일(수) 상영되는 첫 작품은 지
난 2011년 개봉돼 화제를 모았던 '무
산일기' (감독, 주연 박정범)로 이 작



품은 탈북자의 가슴 쓰린 남한 생존기
를 다룬 영화다.

개봉된 해에는 청룡영화제에서 신
인감독상을 수상했고, 일본 필맥스 국
제영화제에서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
상했다. 이어 지난 해에는 디아스포라

톤 캠퍼스에서 상영한다.

딘 보 사이 림 (Deann Borshay
Liem)과 램지 림 (Ramsay Liem)이
제작한 이 영화는 4명의 한국전쟁 생
존자이자, 재미동포의 이야기를 통해
군사적 충돌이 빚어낸 인간이 치러야
할 값에 대한 영화이다.

교사인 부모 밑에서 행복한 삶을 누
렸던 한 여인은, 6.25전쟁으로 온 가
족이 남북으로 흩어지는 비운의 주인
공이 됐다. 50년 만에 찾아간, 평양(북
한)에서 부모와 형제들은 다 죽었고,
조카들만 만날 수 있었다. 그들을 품
에 안았는 데, 모두가 팔 안에 들어올

정도로 여위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전쟁의 궤적을 통
해 현재까지도 DMZ을 사이에 두고
생이별하고 있는 가족들 속으로 관객
들을 데려간다.

영화 상영에 대한 문의는 이경혜 시
민협회장(508-962-2689)에게 하면 된
다.

상영일시: 3월 13일 오후 12시~ 1시
30분

상영장소: Campus Center, Room
3545, 3/F, UMass Boston

hckim@bostonkorea.com

영화제에서 상영됐다.

같은 민족이지만 외국인보다 환영
받지 못하는 탈북자. 살기 위해 국경을
넘어온 그들이 남한 땅을 밟고 나서 보
게 되는 현실은 무엇이며, 또 다른 생
존 경쟁의 한 가운데 던져져 살아남기
위해 누군가를 짓밟고 그 과정에서 또
다시 짓밟혀 지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
박정범 감독이 던지는 메시지를 만날
수 있다.

두번째 사랑

4월 9일(수) 상영되는 김진아 감독
의 이 작품은 대한민국과 미국의 합작
영화. 한국에서는 2007년 개봉됐으나
크게 흥행하진 못했다.

성공한 한국계 변호사 앤드류와 미
국인 아내 소피는 남 보기에 부족함이
없지만 날이 갈수록 소원해진다. 소피
는 아이를 갖게 되면 모든 것이 예전처
럼 돌아갈 거라 생각하고 임신에 집착
한다. 하지만, 앤드류의 정자가 너무
약해 인공 수정을 해도 임신 확률이 희
박하다는 말을 듣게 된 소피는 병원에
서 정자 기증을 거절당한 지하와 마주
친다. 지하와 남편이 많이 닮았다고 생
각한 소피는 지하에게 정자 거래를 제
의하고 지하는 소피의 제안을 받아들
인다. 요즘 인기가도를 달리고 있는 하

정우가 지하 역으로 나온다.

이 영화는 상영 후 김지나 감독과의
질의 응답 시간이 마련된다.



만추

5월 7일(수) 상영되는 만추는 2011
년 김태용 감독이 리메이크한 작품으
로 현빈과 탕웨이 주연. 국적이 다
른 두 주인공은 시애틀을 배경으로 짧
지만 평생 잊을 수 없을 강렬한 사랑을
선보인다.

김태용 감독의 '만추'는 안개 자
욱한 시애틀 거리 속 조금씩 가까워지
는 두 남녀와 함께, 전작 '만추'들과
는 또 다른, 잊을 수 없는 사랑을 보여
준다.

이 영화는 개봉된 해 탕웨이가 출연
한 것만으로도 뜨거운 관심을 끌었던
작품으로, 그해의 최우수예술가상 영
화부문, 그린산타상, 부일영화상 최우
수 감독상, 부산영화평론가협회상 대
상 등 4개의 상을 휩쓸었다.

hckim@bostonkorea.com



부동산 중개인 김현구

Chris H. Kim, GRI
Realtor

정직하고 성실하게
도와 드립니다

주택 무료 감정

Brookline Office
622 Hammond Street
Chestnut Hill, MA 02467
(B) 617-566-2447



Cell 617.694.0985

Newton Office
1261 Centre Street
Newton, MA 02459
(B) 617-969-2447

Covering Boston, Brookline, Newton,
and Greater Boston

Chris.Kim@NEMoves.com

Birchtree Properties. R.E.

이정선 부동산

*부동산
비즈니스 세일



Cell 781.883.5984
Fax 781.874.9587
Work 781.874.2087
Email Chunglee7@gmail.com

33 third street medford, Ma 02155

www.btpusa.net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최상의 선택

혜민한의원

617-787-0789 www.acupark.com
60 Leo M. Birmingham Parkway, Suite 101, Brighton, MA 02135

화음 보스톤 챔버오케스트라 Spring Concert

"Russian Night"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화음보스톤 챔버 오케스트라의 봄음악회가 오는 22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텡스대학의 Granoff Music Center에서 "Russian Night" 으로 개최된다.

새 봄을 여는 2014년 첫 연주회의 레퍼토리로는 널리 알려진 Tchaikovsky Symphony "비창(Pathétique)" 과 Rachmaninov Piano Concerto No.2 가 피아니스트 안지혜 씨(NEC, 변화경교수 사사)와의 협연으로 연주된다.

박진욱 음악감독의 지휘 아래 이루어지는 이번 음악회는 Grand Orchestra의 웅장함, 역동적이고 섬세함을 만끽할 수 있는 Russian Night Concert로, 많은 음악 애호가들이 CD로만 들었던 대곡을 생생하게 현장에서 들을 수 있는 좋은 무대다.



장수인 단장은 "길고 추웠던 보스톤의 겨울에서 벗어나 신선함과 생동감으로 가득찬 아름다운 음악을 선사

할 것"이라 전했다.

보스톤 지역의 한인 음악인들로 구성된 화음보스톤챔버는 2013년 3월 창단되어 연 2회의 정기연주회, 3회의 실내악연주, 병원방문concert, 한마음콘서트 등의 다양한 모습으로 관중들을 만나고 있다.

일시: 3월22일 (토) 7:30 pm

장소: Tufts Univ. Granoff Music Center (20 Talbot Ave, Medford MA 02155)

후원: Tufts KSA, KSNE, KACF, KACL, KSEA

음악회정보: www.hwaumboston.org

음악회티켓문의: sooihnee@com-cast.net 978-821-9434 (당일 구입 가능)

hckim@bostonkorea.com

유진벨재단 북한 결핵퇴치사업보고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북한 결핵 퇴치 사업을 벌이고 있는 유진 벨 재단이 보스톤을 방문, 지난 1일 성 안무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에서 북한 결핵퇴치 사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한국 선교 사역 100주년을 맞아 민주평통 보스톤협의회와의 후원을 받아 이루어진 것으로, 유진벨 재단의 회장이자 자손인 스티브 린튼 박사 일행이 직접 나서 북한 결핵퇴치 사업과 향후 계획 등을 보고하고 동포 사회의 후원을 요청하였다.

린튼 박사는 의료, 복지 등 많은 문제

를 안고 있는 북한 사회에 만연한 결핵의 퇴치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알리며, 북한내에 지역별 영양소와 협력, 결핵 진단과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린튼 박사는 특히 결핵 중에도 특히 다제내성 결핵의 대한 위험성과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민간 교류와 문화차원에서 북한 결핵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린튼 박사에게 의하면 현재 다제내

성 결핵 치료를 위해서 미국 의료진은 많은 비용을 들이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급박한 사정을 감안해 유진벨 재단의 의료진의 노력으로 새로운 치료법이 개발돼 적은 비용으로도 조기치료가 가능해졌다. 린튼 박사는 장기적으로 남북 통일 후에도 경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한인사회의 후원을 요청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지난 1일 성안무안다블뤼 보스톤한인성당에서 북한결핵퇴치 사업보고회

한 주에 한 개씩
잘못된 말 고치기 #5
이철영

보다 빠르게 (X) → 더 빠르게 (O)

우리말 '보다'는 조사라 말머리에 올 수 없습니다.

이건 잘못된 일본식 표현이 일제시대 이후로 스며들어와 우리 말의 문법을 잠식한 무서운 경우입니다.

올림픽 표어 "Citius, Altius, Fortius"를 우리 말 번역이라며 "보다 빠르게, 보다 높게, 보다 강하게"라고 애들에게 가르치는 건 냉철하게 말하면 망국행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걸 알고 요즘엔 "더 빠르게, 더 높게, 더 강하게"라고 수정을 거친 거 같아서 고무적이긴 한데, 아직도 일반인들은 일본식 표현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네요.

예를 들면 "선생님께서 수업

을 시작하십니다"라고 해야지 "께서 수업을 시작하십니다"라는 식으로는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당연하게 알면서 "보다 빠르게"와 같은 표현을 쓰는 것은 우리 말을 잘못된 일본식 문법으로 오염시키는 도우미 역할을 자처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특히 신문기사나 노래 가사, 교과서 글 등에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글을 쓸 때나 말 할 때나 모두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잘못된 말이 '부사'로 쓰일 수 있다고 사전에 버젓이 나온다는 점입니다. 이런 잘못들이 곧 시정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3월 9일 서머타임 시작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서머타임(일광절약시간)이 3월 9일 새벽 2시(동부시간 기준, 한국시간 10일 오후 4시)를 기해 시작된다. 이에 따라 9일 새벽 2시는 3시가 된다.

한국과의 시차는 14시간에서 13시간으로 1시간 줄어들게 된다.

Daylight Saving Time으로 불

리는 서머타임은 3월 첫째 일요일에서 11월 첫째 일요일까지 9개월간 시계침을 1시간 빨리하는 것이다. 디지털 시계는 자동으로 시간이 바뀌지만, 아날로그 시계일 경우 3월 8일 밤 잠들기 전 10시를 11시로 한시간 앞으로 돌려놓으면 된다.

hckim@bostonkorea.com

아이가 한국말을 못해 고민하십니까?

한국방송을 즐기게 하십시오

KBS1, KBS 2, MBC, SBS 인기 프로그램과 영화, 키즈, 교육, 신앙생활, 골프 등 수만여편의 콘텐츠, 이제 엔티비와 함께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즐기세요! 한국어는 자연스럽게 늘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617.955.9112/617.650.6656

"당신의 환한 미소가
마름답습니다."

거의 모든 보험 받습니다
매스헬쓰도 받습니다

978.689.9363
(한국어문의)

김동원치과
465 South Broadway Lawrence MA 01843

가족 물리치료 병원

GB Family Physical Therapy

**매사추세츠 최초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교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



조기유학 및 학업지도 대표 기관



보스톤 유학원

www.bosec.com

보스톤유학원은 가장 오래 전통을 가진 유학원으로 많은 학생들을 명문 중/고등 사립 학교와 명문 대학에 입학 시켜온 교육 컨설팅 대표기관입니다. 보스톤 유학원은 학생들이 미국에서의 학업에서 성공하도록 최상의 컨설팅과 수준높은 학업지도를 제공합니다

Educational Consulting Department

1. 조기유학, 초/중/고 /대학 입학, 전학, 인터뷰 가이드 전문
2. 한국에서 갓 전학 온 학생 교육컨설팅
3. 대학 입학 상담, 지원서 작성 (College Consulting) : 하버드 입학담당관 출신이 전문위원으로 활약
4. 가디언, 홈 스테이, 여름/겨울 캠프
5. 주말 봉사활동, 특활 지원
6.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www.bosec.com

■ 컨설팅 서비스의 특징: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성공적 상급 학교 진학을 보장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서울 사무소: 부모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참조)

■합격한 중, 고등 학교: Fay, Choate Rosemary, St. Paul, Milton, Groton, Kent, NMH, Loomis Chaffee, Hotchkiss, Lawrenceville, St. George, Middlesex, Concord, Governor Dummer, Eaglebrook, Cardigan Mountain, Fessenden, Cushing, Brooks, Westover, Dana Hall, Holderness, Kent, Worcester Academy, Eaglebrook, Philips Academy, Pomfret 등.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합격한 대학: Harvard, Yale, Stanford, Cornell, Colombia, NYU, Bowdoin, Dartmouth, Trinity, Emory, U. Mich., U. Penn. Brandeis, Boston College, Bowdoin 등 다수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Academic Tutoring Department

SAT, SSAT, TOEFL, Writing 전문 학원

대표 강사 부원장: James Kim, Harvard, Yale 철학 전공

책임 강사: Robin Burns,
Stanford Univ. English Major, MS, BA, 수석 졸업,
SAT Verbal 800

- 대상 학생: Native Speaker, 유학생, 보딩스쿨/데이스쿨 학생
- 한국식 엄격한 지도, 숙제 관리,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지도 함.
- 시험 요령 습득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 SAT, TOEFL, SSAT수강생 전원에게 정선된 필수 단어 목록 제공

Private Tutoring

Math, Essay Writing, Physics,
Chemistry, Biology, History,
Spanish, French, Latin, TOEFL,
SSAT, ISEE SAT, ACT

\$70-
100/hr)

여름 방학 특강 (보스톤)				
SAT 집중반	7월6일-8월 20일, 월, 수,	10 AM-1PM	\$1250	실전 테스트 5회
개인 지도	학생이 지정		\$60-\$80 여름 특별가	전 과목

단 주 1회 실전 테스트 일은 10 AM-1:30 PM, 최소 인원 3명

여름 방학 특강 (서울)

개인지도 혹은 4인 이하 소 그룹: 문의 02-579-9731

지도과목: SAT, ACT, AP US History, AP English, SSAT, TOEFL, Reading/Writing

기숙학교 연중 프로그램(안전한 홈스테이, 항공, 교통편 제공)

Program	기 간	그 룹 지 도	개 인 지 도	제공서비스
추수 감사절	11월 중순-말	SAT, SSAT, TOEFL,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성탄 휴가	12월 중순-말	SAT, SSAT,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봄방학	3월중 3주간	SAT, SSAT, TOEFL,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이 프로그램 들은 2001년 부터 6년 째 제공되고 있는 정평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학부모가 이 기간 중 한국에서 오시는 경우 편안한 장기 투숙 안내 제공.

- 주말 교통편, 홈 스테이, 학업 지도, 봉사 활동 제공
- 학생이 필요한 과목별 개인 지도, 유학생을 위한 집중 영어 쓰기 지도 제공
- 한 학교에서 3명 이상이 같은 프로그램으로 오는 경우 할인 혜택
- SAT는 CR과 Writing점수목표가 650-750사이인 학생을 목표로 함. SSAT는 80-99%를 목표로 하는 학생을 위한 클래스임.

보스톤 유학원

미국: 545 Concord Avenue, Suite 214,
Cambridge, MA 02138

한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 아크로텔 2402호
(삼성 타워팰리스 단지 내 02-579-9731)

대표: 원장 공학박사 송영두

Tel 617-491-0041
617-491-0043

* 교사 수시 모집: info@bosec.com 으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홈스테이 가정 수시 모집: 뉴잉글랜드 전역. info@bosec.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사절.

* 사무 직원 모집: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분. humanresource@bosec.com 로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주차는 보스톤유학원 옆의 Fresh Pond Mall 의 Whole Foods Market에 하시면됩니다."



소나무, 껍질 벗긴 소나무, 튜브와 조임쇠, 그리고 완성된 실험 정수기.

MIT 엔지니어 소나무 정수기 만들어

나무의 수액 흡수과정에서 아이디어
박테리아 등 훌륭하게 걸러내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MIT의 연구가가 소나무 가지 껍질을 벗기고 플라스틱 튜브에 고정해 정수할 수 있는 간단한 정수기를 고안했다.

로히트 카닉 MIT 기계공학과 부교수는 지난 6년간 정수 기술 개발에 집중해왔다. 때론 용액이 가장 작은 입자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세밀하고 정밀한 물리학적 지식으로 그리는 작업도 해왔다.

각기 다른 분야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함께 하는 한 학회에서 그는 식물의 수액이 흐르는 방법에 대한 묘사를 듣고 전율을 느꼈다. 나무가 공기

방울이 형성되어 순환계를 막는 것을 방어하는 방법이 식수에서 미세 병원균을 걸러내는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는 것으로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카닉과 한 고교 교사 및 한 학생으로 구성된 팀은 3월 첫째주 과학잡지 PLoS ONE에 연구 결과를 실었다. 싸고 효과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차세대 정수기이지만 소나무 가지를 이용한 간단한 정수기에 관한 내용이다.

카닉은 “이미 과학자들은 수액의 흐름을 관찰했지만 결코 정수 쪽은 생각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나무를 이용해 어떤 것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다”고 밝혔다.

나무는 수액을 운반하는 실렘(xylem)이라는 조직을 가지고 있다. 나무의 중심은 마른 오래된 실렘으로 송진으로 가득차 있으며 바깥쪽 새로 성장하는 실렘은 수액을 운반한다.

실렘 내부는 내부연결 수로 구조로 되어 있는데 각 수로는 세포막으로 연결되어 용액은 흘러가고 조그마한 분자나 거품 등은 걸러낸다. 거품이 형성되는 경우 수액의 흐름을 막고 결국 나무의 건강을 해치게 되므로 이를 막기 위한 장치다. 카닉은 특히 침엽수의 실렘이 훨씬 여과기능이 좋다는 것을 발견했다.

연구팀은 마른 나무로 실험했지만 마르는 과정에서 실렘 내의 수로나 세포막을 변형시켜 여과기능에 효과적이지 않으므로 무산됐다. 이후 매사추세츠에서 소나무를 잘라 껍질을 벗

기고 길이 1인치, 지름 .05인치 정도를 튜브에 넣어 실험했다. 빨간색 미세 입자를 걸러냈고 박테리아보다 적은 100나노미터 크기의 입자까지는 걸러냈다. 이 콜라이 박테리아도 걸러냈지만 이보다 적은 바이러스는 걸러내지 못했다.

이 정수기는 하루에 약 4리터 가량의 물을 정수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캠프하는 사람들은 굳이 정수기를 소지하지 않아도 소나무 가지로 물을 걸러 먹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카닉 교수는 테크놀로지는 좀더 발전하고 변형시켜 차세대의 초저가 정수필터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봤다. 특히 정수가 없어 물로 인해 질병이 발생하는 아프리카 등에는 이 저렴한 정수 장비가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카닉 교수는 이 여과장치에 대해 특허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우리는 너무나 보편적인 것으로 특허를 신청해서는 안된다고 느꼈다”고 그는 밝혔다. 그는 “실험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여과할 수 있도록 하느냐에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고 밝혔다.

hsb@bostonkorea.com

미셸관의 차 로드 아일랜드서 도둑맞아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피겨 스케이트 스타 미셸관의 차가 25일 도둑맞았다.

AP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로드 아일랜드 주지사 후보로 출마한 미셸 관의 남편 클레이 펠은 지난 25일 밤 한 행사에 참석했다. 펠은 미셸관의 토요타 파이어러스의 차키를 좌석 사이에 빠뜨렸지만 손에 닿지 않자 문을 잠그고 다른 차에 미셸 관을 태우고 집으로 돌아갔다.

다음날 미셸관 부부는 차를 찾아 이 동네를 돌았지만 결국 발견

하지 못하고 26일 경찰에 신고했다. 미셸관은 5차례 피겨 세계 챔피언을 지냈고 우두차례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했다. 지난 소치 올림픽에서는 팩스 TV 해설자로 활동했다. 남편 펠은 현재 주지사 경선에서 민주당 2명의 후보와 경쟁하고 있다.

미셸관은 27일 '올림픽 챔피언과 강남스타일'이란 제목으로 지난해 2월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2013 평창 동계 스포셜올림픽 폐막식 피날레 사진을 게재기도 했다.

hsb@bostonkorea.com

정관장

정관장 정품은 정관장만 취급하는 “브랜드스토어”에서 구입해야 안전합니다.

약중의 약 “고려인삼”



신농본초경과 신농황제상

고려인삼은 상약

중국 남조시대 양나라의 도사 도홍경은 <신농본초경>을 개편한 한의서 <명의별록>에 고려인삼을 가장 품질 좋고 신호한 인삼은 조선것이며 군약 또는 상약이라 했습니다.

상약이란 평소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무독하여 다량 복용하거나 장기간 복용해도 사람이 상하지 않으며 오래 복용할수록 좋은 것을 말합니다.

고려인삼의 약리작용

도홍경은 저서에서 “인삼은 맛이 달고 약간 차가우며 오장을 보하고 정신을 안정시키며, 혼백을 안정시키고 경계를 멈추게 하며,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사기를 제거해 주고, 눈을 맑게 하고 마음을 열어 더욱 지혜롭게 하며, 오래 복용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장수한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SPECIAL GIFT

3월 16일 까지



홍삼정 240g 구입시
홍삼정 30g 무료증정



FREE GIFT

전화주문 서비스



로 주문 다음날 편하게 받으세요.
\$50 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781-238-0303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Burlington점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치마 속 촬영 매사추세츠에선 합법

하원의장 대법원 판결 후 법개정 천명

(보스턴=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에서는 카메라로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해도 불법이 아니다. 주 대법원은 5일 여성의 치마 속을 카메라로 비밀리에 촬영하는 행위인 업스커팅(upskirting)이 주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주 대법원은 판결에서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벗은 사람을 촬영하는 “몰래 엿보는 호색가(Peeping Tom 이하 피핑탐)” 관음증 금지법은 결코 옷을 갖춰 입은 사람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주 로버트 들리오 주하원의장은 5일 판결 직후 의원들이 즉각 이 법안의 허점을 막을 수 있는 법안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 판결은 현행 법의 정신과 반하는 것이다. 하원은 현재의 법을 테크놀로지 시대에 맞도록 즉각 재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법 판결은 그린라인 전철에서 여성의 치마속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 남성의 사건을 두고 내려진

것이다. 주 대법원은 특히 “부분적으로 벗은 사람”을 몰래 촬영하는 것을 금하는 법의 범문에 중점을 두고 판결했다.

주 대법원 마곳 보츠포드 판사는 판결문에서 “MBTA를 탄 치마, 드레스를 입었거나 여성의 (사적인) 부분을 가린 MBTA 여성승객의 치마 밑이건 아니든 속옷이나 다른 옷이 있는 경우라면 부분적으로 벗은 사람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대법관 만장일치로 판결되었으며 보스턴 지방 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피고의 무혐의 동의안에 힘을 실어주게 됐다.

대법원은 검찰 논의의 핵심은 “대중 교통을 이용한 여성은 타인이 자신의 치마속을 촬영하지 않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할 것이라 전제”라고 지적하고 “이 전제는 합리적이지만 현행 법은 이를 정확하게 기술하지 않고 있다”라고 검찰 패소 이유를 적었다.

서픽카운티 대니얼 콘리 검사는 피

핑탐(Peeping Tom)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법문의 해석에 결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판결이 “사생활에 대한 심각한 타격”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10년 마이클 로버트슨은 전철에서 여성의 치마속을 촬영하다가 경찰에 신고당했다. 경찰은 다음날 치마를 입은 여성 승객으로 분해 치마속을 촬영한 로버트슨을 현장에서 체포했다.

2011년에 기소된 그는 2012년 검찰의 혐의를 취하해달라는 동의안을 제출했으나 보스턴 지방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그는 다시 대법원에 항소했었다.

서픽지검 대니얼 콘리 검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옷 속에 대한 사생활권이 있다. 의회는 당장 이 권한을 인정하도록 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hsb@bostonkorea.com

칼라한 터널 3월 12일 재개통

공항 가는 시간 단축 될 듯

(보스턴 = 보스톤코리아) 오현숙 기자 = 지난해 12월 27일부터 공사로 통행이 금지됐던 칼라한 터널이 원래 계획보다 이틀 앞당겨진 3월12일에 재개될 예정이라고 고속도로 관리자 프랭크 데파올라가 지난달 28일 발표했다.

3,490만달러의 비용이 들어간 이번 프로젝트는 맨홀이 텍의 바닥으로 빠져 통풍구로 들어갈 만큼 상태가 불량해진 터널 콘크리트 바닥을 재시공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공사 후 지금은 옅은 회색 콘크리트 노스 엔드부터 이스트 보스턴까지 깔렸다. 곧 2~4인치 두께의 아스팔트 층이 콘크리트 위로 깔리고, 그후에 인부들은 아스팔트를 방수와 밀봉시켜주는 스프레이 형태의 물질을 뿌릴 것이다.

데파올라는 터널의 양쪽 끝에 사는 사람들은 밀봉 물질이 바닥에 뿌려지면서 악취를 맡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이것이 신선한 공기와 섞이면 전혀 위험하지 않으며, 터널 안에 있는 인부들은 보호장비를 착용해서 이 화합물을 들이마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데파올라가 작년에 발표한 계획대로 일부 공사는 교통이 재개된 후에도 계속될 것이다.

담당자들은 공사팀이 최근 터널의 원래 있던 옆면에 박은 스테인리스강 클립에 커다란 벽 패널을 설치할 수 있도록 몇주 동안은 터널을 야간에 닫을 계획이다.

공사의 나머지 몇몇 부분은 여름의 한산한 시간대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가오는 주말에 있을 하인즈 컨벤션 센터 아래 있는 매사추세츠 터널과 구간 공사와 보스턴 마라톤으로 인한 도로 폐쇄까지 맞춰서 플랜을 짜야하기 때문에 짧아진 폐쇄일정을 관리하는 것 역시 담당자들에게는 힘든 과제가 될 것이다.

hsoh@bostonkorea.com

EBT 이용한 사기 행각 급증

(보스턴=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혜택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일자 드별 패트릭 행정부는 이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다. 그 결과, 현재 EBT(electronic benefit transfer)를 통해 이루어지는 식비 지원에서 많은 사기 행각이 드러나고 있다.

매사추세츠 주 감사관은 2013년 1월

부터 10월 사이 10개월 동안 EBT를 이용한 사기나 EBT를 잘못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케이스가 무려 14,431건이라고 발표했다. EBT는 전신인 푸드 스탬프가 발전한 형태로, 저소득 가정 EBT 카드를 통해 마지 은행의 데빗 카드처럼 식료품을 살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감사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에

발생한 EBT 사기 사건은 2012년 같은 기간에 비해 87%가 증가했다. 현재 EBT 카드는 약 88만 명의 저소득 가정이 사용하고 있다.

EBT 시스템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EBT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현금을 받고 판매하는 것이다. 혹은 식료품 구입을 지원 받기에는 소득이 너무 많은 가정에 EBT 카드가 발급된 경우도 있고, 때로는 감옥에 있는 사람 명의로 EBT 카드가 발급되기도 했다.

매사추세츠 복지부의 스테이시 모

나한 장관은 EBT 사기 행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감사관을 전년에 비해 4배 이상 투입하고 의심스러운 사안을

더 쉽게 적발하기 위해 컴퓨터 시스템을 교체하고 있다고 밝혔다.

jsi@bostonkorea.com



NEWSTAR Realty of Boston
Each office independently owned and operated

NEWSTAR BOSTON

Gina Choi
Realtor, MBA

978-866-3248
ginachoi@newstarrealty.com

안녕하세요. New Star Realty의 지나 최입니다.
1997년에 보스턴 지역으로 유학을 와서 학부와 대학원(MBA)을 마치고 다년간 BOSTON과 CAMBRIDGE 지역에서 직장 생활로 각 지역마다의 장점, 단점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업중이며 불경기에도 10년 이상의 가족 비즈니스를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자리에 집과 사업체 매매를 도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exington Office
40 Waltham St., Lexington, MA 02420
Tel: (781) 259-4989

Newton Office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Tel: (617) 969-4989

Acton 콘도
\$249,000, 2beds, 1.5baths,
1,370 sq ft (학군 좋음)

Natick 콘도
\$469,000, 2beds, 2baths,
1,323 sq ft (몰과 private 통로)

Lexington 단독주택
\$1,469,000, 5beds, 4.5baths,
7,405 sq ft (2014 새집)

luxury harbor tower 콘도
\$519,000, 1bed, 1bath,
753 sq ft (실내 수영장)

Wesford 단독주택
\$650,000, 4beds, 3baths,
3,986 sq ft (야외 수영장 딸린 집)

Cambridge Luxury Apartment
한달 또는 두달 무료있음

St. 패트릭스데이 퍼레이드 동성애자 참여에 얹힌 사연

동성애자 참여 주최측 강력 반발,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공방도

(보스턴=보스턴 코리아) 오현숙 기자 = 보스턴의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 퍼레이드에 동성애자들을 포함시킬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동성애 옹호 그룹 MassEquality는 보스턴의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 퍼레이드에서 동성애자들이 “자유롭고 떳떳하게” 행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보스턴 시장 마틴 월시는 지난 1일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에 게이 퇴역군인들이 그룹 배너 아래에서 행진할 수 있도록 MassEquality와 퍼레이드 주최측 사이에서 합의를 중재했지만 그 다음날까지도 안건을 마무리 짓지 못했다.

동성애 옹호그룹의 멤버들이 퍼레이드에서 스스로의 동성애 기호를 나타내느냐, 나타내지 않으면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가에 대해 논의 중이다.

“LGBT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사람들이 스스로를 LGBT 라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표현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것에 관해 주최 측과 대화 중이다.” 라고 MassEquality 책임자 캐라 코레디니가 지난 3일 말했다.

퍼레이드 코디네이터 팀 듀로스는 퍼레이드의 스폰서 South Boston Allied War Veterans Council 은 게이 퇴역군인들의 행진을 허가해 줄 의향이 있지만, MassEquality 측은 본인들이 게이라는 것을 밝히는 꽃말을 들고 티셔츠를 입어야 한다고 고집하고 있어, 퍼레이드의 취지가 세인트패트릭스데이를 기념하는 것임을 확실하고 싶은 주최측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월시는 모든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해결책이 나오기를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다” 며 “나는 양쪽 그룹의 열린 마음과 용기에 감사하고 있다.” 말했다.

퍼레이드 스폰서인 South Boston Allied War Veterans Council 은 조직화된 게이 단체들을 거절해 온 역사가 있다.

1992와 1993에 주 법원은 ‘보스턴 아이리쉬-아메리칸 게이, 레즈비언, 바이섹슈얼 그룹’ 이 퍼레이드에서 행진하게 하도록 퍼레이드 스폰서 측에 강요한 적이 있다. 1994년, South Boston Allied War Veterans Council 은 게이 그룹을 참여하게 하느니 퍼레이드 자체를 취소

해 버렸다.

1995년, 스폰서들은 퍼레이드가 아이리쉬 역사상 전통적인 가족의 모습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존의 법원 판결에 대해 항의했다. 같은 해, 미국 대법원은 매사추세츠 법원이 퍼레이드 스폰서로 하여금 게이 그룹의 행진을 허가하도록 강제했을 때, 스폰서들의 헌법상 권리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한편, 우스터 근방의 이매쿨레이트 하트 오브 메어리 스쿨(Immaculate Heart of Mary School)은 MassEquality가 참가한다면, 학교의 약단이 올해의 퍼레이드에서 빠질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 학교는 24년간 줄곧 이 퍼레이드에 행진약단과 군중을 축복하는 패트릭 성자 조형물을 보내 참가해 왔다.

hs0h@bostonkorea.com



로건 공항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터미널E에 대한 리노베이션이 진행된다

로건 공항 1억 달러 규모 리노베이션

국제선 터미널E 위주로 업그레이드, 올해 여름부터 2년 일정으로 공사 진행

(보스턴=보스턴코리아) 정성일 기자 = 보스턴에 위치한 로건 공항이 올해 여름부터 1억 달러를 들여 국제선 터미널을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다.

드벌 패트릭 주지사와 매사추세츠 항만청은 지난 4일, 로건 공항에 대한 리노베이션 공사 계획을 발표하였다. 총 1억 달러가 소요되는 이번 공사는 2014년 7월부터 2년 일정으로 진행된다.

이번 공사를 통해 로건 공항 국제선 전용 터미널인 E터미널에 여권 검사를 셀프 서비스로 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된다. 또한 보안 검사를 통과한 국제선 여행객들이 오갈 수 있도록 터미널 C와 터미널E 사이에 연결 통로가 설치되며, 대합실과 터미널 내에 상점들이 위치한 지역도 리노베이션 대상에 포함된다.

매사추세츠 항만청에 따르면 지난 10년 사이 로건 공항을 이용한 국제선 여행자는 20% 증가하여 국

내선 여행자보다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작년에 로건 공항을 거쳐간 국제선 이용객은 570만 명으로 전체 공항 이용자의 1/5 수준이다.

패트릭 주지사는 그레이터 보스턴 상공회의소에서 로건 공항 리노베이션 계획을 발표하며 “새롭게 리노베이션 공사를 하게 되면 국제 여행객들에게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앞으로 수년간 계속해서 매사추세츠 주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라며 “로건 공항은 우리 경제 성장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용자들에게 친절하고 효율적인 공항이 될 수 있도록 항만청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로건 공항은 36개 도시에 직항 노선을 개설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더블린, 마드리드, 토론토, 도미니카 공화국, 도쿄, 파나마 시티, 이스탄불, 두바이와 베이징을 오가는 직항 노선이 추가되었다.

jsi@bostonkorea.com

교통사고
직장상해
닥터노트
학생보험

**물리치료
재활치료
전문병원을
찾으십니까?**

현, 닥터스 통증 병원 대표 원장
뉴욕 닥터스 통증 클리닉 대표 원장
노스이턴 대학교 물리치료학 박사
메모리얼 병원 재활의학과 수퍼바이저
워싱턴 디씨 통증병원 원장
대구대학교 외래 교수
삼육대학교 외래 교수
영동대학교 교수 | 학과장
한양대학병원 재활의학과

617.731.1001
GOODPT.COM
44 Washington St, Suite 104 Brookline, MA 02445

DOCTOR PHYSICAL THERAPY
닥터스통증병원

Century 21 송 윤주 Realtor
SHAWMUT PROPERTIES Yoon Song

Direct: 857-636-0429
Email: Yoonjoo@century21.com
Web: YoonBoston.com

Exclusive listing - Cambridge Townhouse
\$799,000 / 2 Bed 2 Bath / 1477sq
최고의 위치
Fully Renovated 조용한 싱글하우스같은 타운하우스
온돌바닥 / 새로운 전기 난방 시스템 / 세탁기 / 큰창고

최고급 디자이너 화장실
개인 야드 / Deck / Court Yard
하버드 까지 도보로 10분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은혜
한의원**

Grace Acupuncture
& Oriental Medicine

원장: 백승희 (경희한의대 42기)
각종 상해, 의료보험 취급 / 편리한 주차

전화 781.862.1842
442 Marrett Rd, Suite 6, Lexington, MA 02421
www.graceaom.com



지난 4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를 방문한 존 케리 국무장관

오바마, “우크라는 서방과 러시아 모두의 친구 될 수 있어”

진정국면 맞은 우크라이나 해법 싸고 마려 긴장 팽팽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오현숙 기자 = 일촉즉발 군사 충돌위기로 치닫던 우크라이나 사태는 러시아가 무력 개입 의지가 없음을 밝힘으로써 일단 진정 국면을 맞았다. 하지만 ‘

우크라이나 해법’ 을 둘러싼 미국과 러시아 양국은 여전히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4일 “우크라이나는 서방과 러시아 모두의 친구

가 될 여지가 있다”며 경제제재를 앞세워 압박 수위를 높이던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났다. 오바마 대통령은 “러시아의 무력이 우크라이나 내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사용돼선 안 된다

”고 재차 호소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앞서 지난 1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가진 90분 간의 전화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주권과 영토보전을 러시아가 명백하게 위반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개입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4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를 방문해 10억달러 자금 지원을 약속한 존 케리 미 국무장관도 대화를 제의했다. 그는 “러시아가 긴장 완화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우방국들은 러시아를 정치·외교·경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 뭉칠 것”이라면서 “미국은 우크라이나에서의 대치를 원하지 않으며 러시아 또한 우크라이나에서 합법적인 이익을 추구할 더 나은 방법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관리가 5일 미국의 금융지원 대가로 유럽 미사일방어(MD)망을 러시아 접경국가인 우크라이나에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주장하면서 러시아의 심기가 불편해졌다.

러시아는 대화를 모색하면서도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러시아는 미국이 자국에 제재를 가하면 맞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러시아는 4일 전투태세 점검훈련의 종료를 선언하면서 약 15만 명의 훈련 참가 군인들에 대해 원대 복귀 명령을 내리기는 했지만, 이날 카스피해 인근의 아스트라한 지방 기지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인 ‘토폴’(RS-12M) 발사실험에 성공해 우크라이나와 서방을 향해 군사력을 과시했다.

지난 5일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레바논 국제지원그룹 회의에 참석한 케리 미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직접 만나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했다.

양국 장관 면담 후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러시아는 서방국과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서방 외무장관은 이날 라브로프 장관이 파리에 와 있는 안드레이 데쉬차 우크라이나 과도정부 외무장관과 만날 것을 촉구했지만 야누코비치 우크라이나 대통령 실각 후 들어선 친서방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러시아 측의 거절로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다. hsoh@bostonkorea.com

빌 게이츠, 4년 만에 세계 부자 1위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오현숙 기자 = 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4년 만에 세계 최고 부자 자리를 되찾았다.

지난 3일 포브스가 발표한 2014년 억만장자 순위에 따르면 760억달러의 자산을 보유한 게이츠가 멕시코 통신재벌 카를로스 슬림(720억달러)을 누르고 자산 순위 1위에 등극했다. 슬림은 지난 4년 동안 1위를 지켰으며 게이츠는 지난 20년 동안 15차례 1위를 차지했다.



4년만에 세계 최고부자 자리를 되찾은 빌 게이츠

스페인 의류 브랜드 '자라' 창업자인 아만시오 오르테가 3위, 버크셔해서웨이 회장 워런 버핏(440억달러)이 4위를 차지했다. 오라클 최고경영자(CEO) 래리 엘리슨은 5위로 집계됐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는 자산이 두 배 이상 늘어(285억달러) 21위로 올라섰다.

올해 포브스 순위에 오른 억만장자는 남녀 1645명으로 이들이 보유한 자산은 평균 45억 달러였다. 이는 지난해 1426명의 평균 자산 42억달러 보다 늘어난 것이다.

포브스는 억만장자 1080명은 자수성가했으며 207명은 부를 물려받았고 352명은 부분적으로 부를 물려받았다고 밝혔다.

억만장자 중 미국인이 492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중국인 152명, 러시아인 111명 등으로 집계됐다.

hsoh@bostonkorea.com

성취 ACHIEVEMENT: 내 집에서 느끼는 안락함과 편안함



PNC MORTGAGE는 주택 구입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여러분의 내집 장만을 앞당겨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PNC는 구입절차 및 주택융자과정을 하나하나 명료하게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융자기관에 대한 신뢰가 커질 때 여러분의 성취 역시 커집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십시오.

Kimberly Moon
NMLS#838021
857-204 0174
kimberly.moon@pncmortgage.com



성취하는 당신을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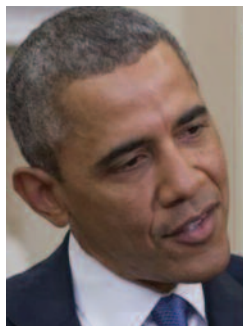
PNC는 The Financial Services Group, Inc. ("PFG")의 서비스 등록상표입니다. PNC Mortgage는 PNC Bank 및 National Association의 부속기관이자 PNC 자회사입니다. 모든 대출금은 PNC Bank 및 National Association에 의해 제공되며 신용승인 및 재산평가에 의해 결정됩니다. 모든 문서와 법률문서 및 공시문서 등은 영문으로만 제공되며 검토시 개별적으로 번역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All written communications, legal agreements and disclosures will only be provided to you in English. We suggest that you arrange for the assistance of an independent translator to assist you in reviewing these documents. ©2013 The PNC Financial Services Group, Inc. 전권소유.

오바마, 3.9조 달러 내년 예산안 의회 제출 고용·교육 추가 지출분 부자증세로 메꾼다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오현숙 기자 =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15회계연도(2014년 10월~2015년 9월) 정부 예산안을 지난 4일 연방의회에 제출했다.

3조9천억달러 규모의 차기 회계연도 예산안은 경기부양을 위해 고용, 교육, 직업훈련 등의 프로그램에 5천6백억달러를 추가로 지출하되 부유층 증세, 건강보험 지급 감축, 이민법 개혁 등을 통해 세수를 1조달러 가량 늘리는 것이 골자다.

신규 투자분은 국방 부문과 교육, 연구 및 개발(R&D) 등 내수 부문에



균형적으로 배분됐다. 이중 교통 분야와 공공 일자리 프로젝트, 저소득층 세금 감면 등에 3천20억달러가 투입되고 저소득층 및 중산층 4세아동의 취학전 교육프로그램에 660억달러

가 쓰인다. 줄어든 세수는 고스란히 부유층이 채워야 할 몫으로 돌아갔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소득 100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에게 최소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버핏 룰'을 통해 향후



10년간 5천980억달러 상당의 세수입을 늘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포괄적인 이민 개혁으로 불법 체류자에게 합법적 자격을 제공함으로써 처음 10년간 1천580억원, 또 20년간 1조달러를 더 거둬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세제 개혁을 통해 6천500억달러, 메디케어·메디케이드 개혁을 통해 4천20억달러를 추가로 아끼는 방안도 포함됐다.

오바마 행정부는 새 회계연도 재정적자가 5460억달러로 전년보다 13% 줄고 이후에도 3년간 지속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예상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2009년 9.9%로 정점을 기록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새 회계연도에 3.7%에서 내년 3.1%, 2024년 1.6%로 점차 감소

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에서 2015년 예산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공화당은 부자증세는 물론 정부가 지원하는 직업교육 예산 등에 대해서도 격렬히 반발하고 있다.

연방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상하원이 각각 심사해 통과 여부를 결정하며 최종 승인시한은 9월30일이다.

hsoh@bostonkorea.com

TASTE OF KOREA

코리아나

KOREANA RESTAURANT

BEST OF
BOSTON
2006

BEST OF
BOSTON
2001

BEST OF
BOSTON
2000

모든 테이블에 최신 바베큐그릴을 설치, 한결같은 맛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Parking Information

1. 주유소주차, Broadway Gas Station
(Mon~Sat: After 6pm), (Sun, Holiday: All Day)
2. 건물 뒤 주차장, Drive Way(Behind Building)
(Lunch: 4 Cars), (Dinner: 2 Cars)
3. 도로주차, Broadway Play Groung 옆
(2 Hours Free Parking: 8am~6pm), (After 6pm: Free)
(Sun: All Day Free)

*이외에도 Free Parking 가능한 곳이 Restaurant 가까이
여러곳이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617.576.8661
www.koreanaboston.com

영업시간
일요일~목요일(11:30AM~10:30PM)
금요일~토요일(11:30AM~12:00AM)
154 Prospect St, Cambridge, MA 02139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219)

시조 한수

‘3월의 광란’ (March Madness)으로 불리는 미국대학스포츠 협회(NCAA) 남자농구 챔피언십 토너먼트의 열기가 올해는 더욱 뜨거울 것 같습니다. 투자의 귀재인 워런 버핏 회장이 금융대출회사 퀵큰(Quicken)과 손잡고 남자농구 68강이 펼쳐지는 총 67경기의 승리 팀을 완벽하게 맞추는 농구팬에게 10억 달러 (1 Billion) 상금을 걸었습니다.

퀵큰의 마케팅 최고 책임자인 제이 파너는 “10억 달러 정도면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데 적절할 것으로 생각했다”며 “고객에게 놀랄 만큼 멋진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억만장자가 될 수 있다는 기대는 그 목적에 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설명은 그럴듯하지만 진정한 목적은 퀵큰회사의 '광고목적'입니다. 참가 신청을 위해 수많은 사람이 퀵큰 웹사이트에 들락날락할 것이 분

명하기 때문입니다. 대다수 사람에게 가볍게 재미삼아 참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피아(?)라는 커다란 범죄 조직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대학 68개의 팀, 각 팀 주전선수 5명에게 백만 달러씩 제공으로 경기조작, 68 x 5 x 1 million = \$340 million, 나머지 \$660 million이 나의 돈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먼 옛날 한국에서 까까머리 시절 친구들과 나누었던 시조 하나가 떠오릅니다.

청산도 절로절로 녹수도 절로절로
산절로 수절로 산수간에 나도 절로
이 중에 절로 자란 몸이 늙기도 절로절로

靑山自然自然 綠水自然自然
山自然水自然 山水間我亦自然

푸른 산도 자연이요, 푸른 물도 자연 그것이다. 산도 자연이요 물도 자연인데, 그 산수 사이에 살고 있는 인간인 나도 자연 그것이다. 이렇게 자연 속에서 자연대로 자란 몸이니, 늙기도 자연대로 하리라.

순리를 따르지 않는 길은 잘못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실패의 주요인은 좋은 종목에 투자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대부분 해서는 안 되는 투자를 하기 때문입니다. 어뉴어티(annuity), 생명보험(index universal life insurance), 부동산(non-trade REIT), 등의 투자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품을 파는 사람은 "원금이 보장되고 높은 수익률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10억 달러를 받기 위해 전 경기 결과를 맞힐 행운은 '1-4,294,967,296' 이라고 합니다. 미국인 모두가 참가한다고 가정할 때

400년에 1명이 나올 확률이며 골프 싱글 라운드에서 홀인원을 4번 할 확률보다도 더 높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불가능한 기대입니다.

최근 CNBC는 백만장자(5백만 달러 이상)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백만장자가 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가능한 한 일찍 저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많았던 대답은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 이었고, 그다음에 '많은 돈을 버는 것', '지출을 조정하는 것' 등이었습니다. 또한, 성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행동에 대해서는 63%가 '열심히 일하는 것', 16%가 '올바른 결정' 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행운' 을 꼽는 이는 9%에 불과했습니다.

CNBC는 “백만장자 대다수는 열심히 일하는 동시에 몸에 밴 절약 정신으로 스스로 운명을 컨트롤하

고 있었다”며 “이는 일반적인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선택이기에 ‘아메리칸 드림’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에 이민 온 한인 동포는 열심히 일합니다. 그야말로 목숨을 담보로 일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일찍 저축'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간이 만들어 주는 복리(magic compound interest)효과를 이용하지 못합니다.

주식 대박, 투자보장, 요행 등을 기대하면 실패하는 투자로 이어집니다. 투자 경비가 저렴하며 분산투자할 수 있는 인덱스 펀드나 ETF를 이용하여 장기간 투자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꾸준한 저축이 투자 기본이며 백만장자로 가는 길입니다.



한의원 선유당

진료 과목

- 통증치료 알러지
- 불임 갱년기 여성질환
- 여드름 한방피부미용(주름개선 안면침)
- 소아진료 성장침 비염 아토피
- 교통사고 유학생 여행자보험 적용가능



www.sunudang.com

1208 VFW Parkway #201
Boston MA 02132
617.327.1812



Dedicated to
Your Health

Icon Dental

아이콘덴탈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렉싱턴과 콩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아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성인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17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exington.com
www.icondentalexington.com

Dr. 차 영 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en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Dr. 오 동 현

교정 전문의

H M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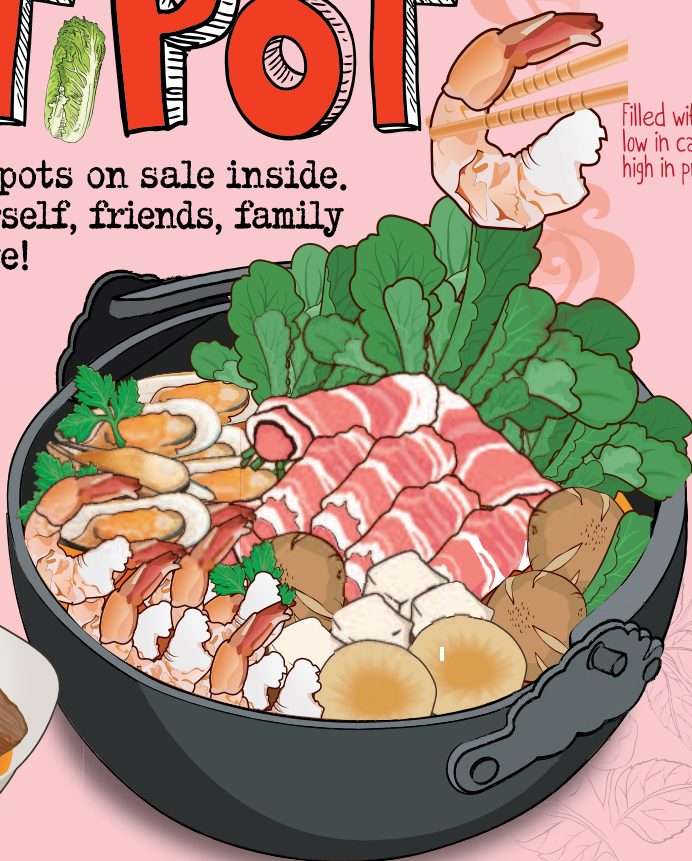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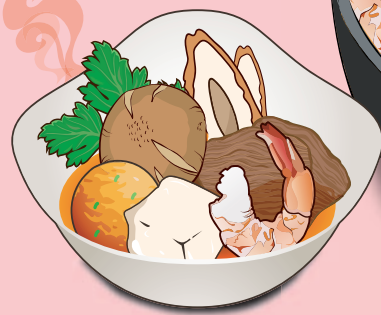
Yes, We are **OPEN 365** days a year!
SALE WEEK MAR. 7, 2014-MAR. 13, 2014
ONLY FOR HMART BURLINGTON STORE
 STORE HOURS: SUN.-THU. 8:00 AM - 9:00 PM | FRI.-SAT. 8:00 AM - 10:00 PM
 All prices are based on availability. Typographical errors may be present in the prices and descriptions.
 수량에 따라 세일이 일찍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광고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인쇄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CUSTOMER SERVICE
 For coupons, Event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Toll Free No. 877.427.7386/Customer_care@hmart.com
 Scan our QR-code with your smart phone for more information.
Hmart Cambridge COMING SOON
 581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A KOREAN TRADITION MADE IN AMERICA SINCE 1982.

ROCK THE HMART HOT POT

Cold outside, hot pots on sale inside.
 Prepare it for yourself, friends, family or all of the above!
 Easy to prepare, yet so healthy and delicious!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건강식 마트 핫팟으로 오늘 저녁을 준비하세요!



Strengthens blood vessels and is filled with nutrients.

금토/일만 세일 가격 적용
 Fri/Sat/Sun Limited Time Offer

BUSSEL SPINACH
 부셀 시금치

\$0.88
 bun.

WITH SMART SAVINGS CARD

THIN SLICED PORK SINGLE BELLY
 냉동 대패 삼겹살

\$7.99
 lb.

Filled with calcium, low in calories, and high in protein.

HEADLESS WHITE SHRIMP
 머리없는 흰새우

\$7.99
 lb.

금토/일만 세일 가격 적용
 Fri/Sat/Sun Limited Time Offer

31-35 size

금토/일만 세일 가격 적용
 Fri/Sat/Sun Limited Time Offer

HEAD ON SHRIMP
 머리 새우

\$5.99
 lb.

Fish sauce is so delish! Soup taste better and salads get yummierr...

THREE CRAB FISH SAUCE
 삼계 피쉬소스

\$3.98
 24 fl.oz.

WITH SMART SAVINGS CARD

ZOJIRUSHI GOURMET ELEC. SKILLET & GRILL
 조지루시 전골 냄비

\$84.99
 EP-PBC10HC/ea.

BIG SAVINGS FOR SMART SHOPPERS LIKE YOU! 오늘부터 마트 스마트 카드로 똑! 소리나게 장보세요.



HAIOREUM Roasted Seaweed
 해오름 밭도독 김
 파래/재래/돌 3.5oz.
\$3.49



SEMPIO Jin Soy Sauce
 설탕 진간장 S
 60.8 fl.oz.
\$4.99



CHUNGJUNGONE Cooking Vinegar
 청정원 산생 요리초
 30.43 fl.oz.
\$6.49



Beef Leg Bone
 냉동 사골
 lb.
\$0.99



Korean Singo Pear
 한국산 신고배
 box
\$22.88



Koimo Sweet Potato
 코이모 고구마
 lb.
\$1.38



Green Onion
 파
 bun.
3\$1
 for



I LOVE TOFU Tofu
 아이러브 두부
 All Varieties/14oz.
\$0.88



Sliced Beef Rib Eye Bulgogi
 냉동 소불고기
 lb.
\$5.99



Whole Chicken
 통닭
 lb.
\$1.49



Boneless Pork Loin Cutlet
 돈까스
 lb.
\$5.99



HAIOREUM Premium Frozen Oyster
 해오름 청정생굴
 8oz.
\$3.49



TONGTONGBAY Dried Pollock Cut
 통통배 절단 코다리
 1.57 lbs.
\$4.99



Salted Beltfish
 자반 갈치
 lb.
\$3.99



Sea Urchin Roe (Uni)
 성게알
 pkg.
\$6.99



NATURE'S/HAIOREUM Brown Sweet Rice
 자연담은/해오름 현미찰쌀
 4 lbs.
\$3.99



CHUNGJUNGONE Dumplings
 청정원 군만두
 김치/0채/고추잡채
 24 oz.
\$5.99



HAIOREUM Canned Bai Top Shell
 해오름 굴뱅이
 14.1 oz.
\$4.99



HAIOREUM Red Pepper Paste
 해오름 핫고추장
 6.6 lbs.
\$11.99



OHSUNG Hong Bowl Noodle Soup
 오성 홍 사발면
 육개장/김치
 3.03oz. x 12ea./box
\$7.49



HAITAI Waffles
 해태 웨하스
 크림/말기
 1.97oz.
\$0.99



EPOCA Yo Cool
 에포카 요쿨
 All Flavors
 7fl.oz. x 4ea./pkg.
\$2.99



OSAKI Fish Cake
 오사끼 게맛살
 1.1 lbs.
\$5.99



Organic 100% DELICIOUS
 H마트 유기농 제품으로 더 건강하세요.
 ORGANIC FARM Organic Haiga Mai Rice
 유기농장 유기농 배아미
 15 lbs.
\$32.99



HATA Ramune Soda
 라무네 소다
 All Varieties/
 6.76 fl.oz.
\$0.99



HORMEL FOODS Spam
 스팸
 All Varieties/12oz.
2\$6
 for



WINDY RIDGE FAMRS Fresh Quail Eggs
 윈디 릿지 팜 메추리알
 18cnt/pkg.
2\$5
 f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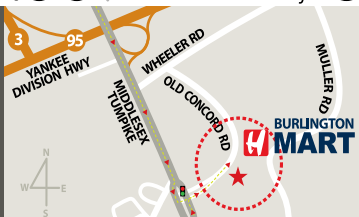


OXY Humidity Buster for Closet
 옥시 물먹는 하마 (웃장용) ea.
\$2.49



Ceramic Tea Cup Set
 세라믹 5인 다기
 Blue Cat - 5pcs/set
\$10.99

WE'RE NEVER CLOSED
 Store hours vary between locations. Please call the one nearest you for exact times.
 H마트는 1년 365일 항상 오픈합니다.



I-93 NORTH: Exit 37B (into I-95 S/MA-128 S) toward Waltham, Exit 32B-32A toward Burlington, follow signs for Middlesex Turnpike/Arlington, turn left (at the light) and turn left when you see the Hmart sign (near Market Basket).
I-3 SOUTH: Exit 25A (into I-95 S/MA-128 S) and follow signs for Middlesex Turnpike (South), turn left (at the light) and turn left when you see the Hmart sign (near Market Basket).
 43 Middlesex Turnpike, Burlington, MA 01803

AND THAT'S WHAT YOU GET WITH THE BUYING POWER OF 45 STORES.
 H마트는 최고의 신선함과 뛰어난 품질,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객님의 만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전역 45개 매장을 통합관리하는 구매력으로 온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최상의 식품을 공급하겠습니다.
 Our mission is to offer the freshest products. If that means we have to get our fish from the Fulton Fish Market, we do it. If it means we have to negotiate directly with farmers, it's done. If it means we have to go out of our way, and bend over backwards for the best price, it's not a problem. So when the time comes to make that "magical" meal... Hmart think your ingredients had better be, better than the best.

Find us on: facebook
 H마트 페이스북에 놀러오세요!
www.facebook.com/hmartofficial
 Scan our QR-code with your smart phone for more information.

학자금 대출 생활비로 쓰는 미국인 늘어

고용부진에 학위 생각없이 대학 등록해 저금리 자금 받아
학자금 대출에 대한 신용조사 없다는 점이 증가 원인

(애틀란타 = 연합) = 미국에서 고용시장이 부진하자 학위 취득의 목적이 없이 대학에 등록해 연방정부의 학자금 대출을 받아 생활비로 쓰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들은 취업 가능성을 높이려고 공부를 더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저금리의 학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대학에 등록하고 있으며 학위를 딸 생각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다.

플로리다주의 포트로더데일에서 가게 판매원으로 일했던 레이 셸런트(30)도 이런 생계형 학자금 대출자의 한명이다. 그는 2012년에 실직하자 브로워드 카운티의 커뮤니티칼리지에 시간제 학생(part-time student)으로 등록하고 수천 달러의 학자금을 대출 받았다. 이 돈으로 어머니의 집세와 자신의 휴대전화 요금을 냈고 때로는 영화도 봤다.

셸런트는 "경제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학교로 돌아가 학자금 대출을 더 받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다. 그는 학교로 돌아가면서 이전에 대출했던 학자금 상환을 위해 매월 400달러가 나가는 것을 유예받을 수 있었다. 미국 연방정부는 대출자가 학생이면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지 않는다.

미국 대학 관계자들과 연방 감독기관들은 막대한 규모의 학자금 대출 중 어느 정도가 생활비로 충당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지만 정부 보고서와 각종 자료를 보면 생계형 학자금 대출이 실제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WSJ는 지적했다.

지난달 교육부 감사관은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이 늘어나면서 더 많은 학생이 개인 비용을 위해 대출을 과도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관이 8개 대학의 온라인 프로그램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 중에서 집세, 교통비, 잡비 등 비(非) 교육 항목의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수강 신청을 하지 않은 4만2천명 이상의 학생에게도 평균 5천285달러의 학자금이 지급됐다.

온라인 학교를 운영하는 카펠라에

듀케이션은 미네소타주의 공립 및 사립 교육기관 학생들의 대출을 조사한 결과, 25~75% 정도의 금액이 비교육 항목에 쓰였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생계형 학자금 대출이 늘어나는 것은 저금리 자금을 수월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연방정부로부터 수천 달러의 저금리 학자금을 대출 받는 게 은행 대출보다 쉽다. 연방정부는 대부분의 학자금 대출에 대해 신용조사를 하지 않는다.

미국 연방정부는 학생들이 공부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 졸업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이유로 학자금의 일부를 생활비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하지만 생계형 학자금 대출이 확산 추세를 보이자 시간제 등 일부 학생에 대한 대출 한도를 낮추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도리 놀트 교육부 대변인은 "학생들이 필요 이상으로 대출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안드로이드, 태블릿 왕좌 차지

애플이 태블릿 컴퓨터를 발명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태블릿의 왕좌는 애플이 아닌 안드로이드가 차지했다.

시장 조사업체 가트너는 3일 발표한 조사자료를 통해 지난해 안드로이드를 탑재한 태블릿이 127% 증가한 1억2천100만대가 판매돼 세계 시장의 62%를 점유했다고 밝혔다.

안드로이드 태블릿은 지난 2012년엔 5천330만대가 판매됐으며 시장점유율은 45.8%였다.

애플의 아이패드에는 작년 7천만대가 팔려 전년의 6천100만대에서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쳤다. 시장 점유

율은 53%에서 36%로 하락했다. 애플은 세계 최대 태블릿 컴퓨터 제조업자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삼성의 빠른 추격을 받고 있다.

삼성전자는 작년 33% 증가한 3천700만대를 팔았다고 가트너는 밝혔다.

하지만, 애플의 태블릿은 고가에 팔리는 데 반해 안드로이드의 성장은 저가 및 소형 화면 제품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고 가트너는 지적했다. 가트너는 태블릿 시장은 앞으로 수년간 계속 '하이브리드 울트라모바일' 기기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춰 변해가리라 전망했다.

bostonhanjin.com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한진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T: 617.782.2424 F: 617.782.2421

귀국이사 / 로컬이사 / 파워딩 / 택배 서비스

여권사진 / 이벤트 사진 / 영상 촬영 및 편집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 디지털 포토 & 포토샵 튜터링

결혼식비디오예약중 Nabis Studio

CJ

대한통운 보스톤 지사
<http://www.keboston.com>

대한통운 과 CJ 아시아 최고의 물류시장 오픈!!
뉴잉글랜드의 모든 이사를 맡겨 주십시오.

귀국이사 · 로컬이사 · 타주이사
한국 및 타주 자동차 운반

고국의 전지역 일주일 도착을 보장하는 **항공택배**

24시간 이사상담

978-461-2424 / 1-888-239-9377
e-mail 상담 : huny@keusa.com

51 Knox Trail, Acton, MA 01720






1114 Beacon St. Newton, MA
 예약문의: 617.527.7888
단체 석 노래방 시설 완비!
 월-목 11:30~3:00/4:30~10:30
 금-일 11:30~3:00/4:30~11:00
 잊을 수 없는 한국의 맛을 압구정에서 느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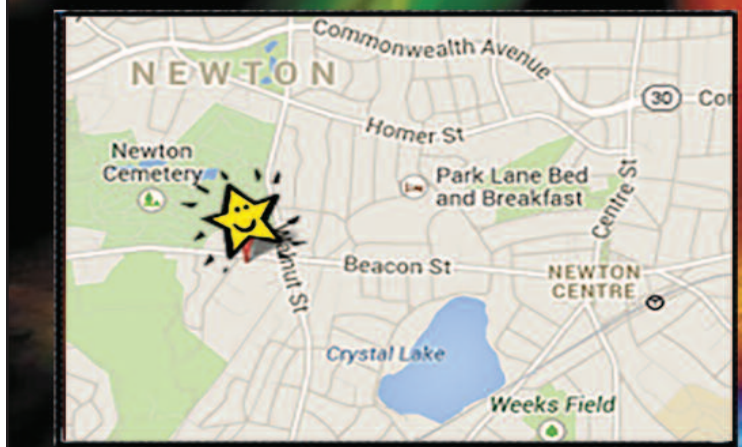
확! 달라진 메뉴와 맛으로 압구정이 여러분을 모십니다!



**입에서 살살 녹는 생갈비와 토알갈비
 그리고 함께 즐기는 \$6.99 소주!
 푸짐 칼칼한 야구찜과 곱창전골!!**



참이슬
 Original
ONLY \$6.99



9시 30분 이후 단체 석 노래방 이용 가능!

단체 손님 예약 환영!

1114 Beacon St. Newton, MA
 예약문의: 617.527.7888
단체 석 노래방 시설 완비!



이명원

공인회계사
617-455-8073
mwlee@kicpa.or.kr 또는
tomwlee1125@gmail.com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위한 세무가이드(13)

한국에 있는 금융계좌(financial accounts) 및 금융자산(financial assets) 신고해야

이번주도 지난 주에 이어 FBAR와 FATCA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Penalties) 부과

FBAR대상인 해외금융계좌를 재무성에 보고하지 않으면 가산세(Penalties)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신고를 안 한 해마다 부과되는데, ①부주의, 태만인 경우(Negligent Violation)에는 최고 \$500, ②고의가 아닌 경우(Non-Willful Violation)에는 최고 \$10,000 그리고 ③고의인 경우(Willful-failure) 최고 \$100,000과 신고 안 한 금액의 50% 중 큰 금액이 부과됩니다. 이 외에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FBAR대상이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어 지연제출보고서(delinquent FBAR report)와 관련 서류를 제출한 사람의 경우,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한편 FATCA에 의한 해외금융자산을 IRS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0(IRS로부터 통보받은 후에는 추가로 최고 \$50,000 까지)의 벌금을 물게 되며, 해외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소득 중 누락한 소득에 대해서는 40%(사기의 경우 75%)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자진신고하면 가산세를 감면해 준다는데

해외계좌신고(FBAR)를 누락한 사람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해외 은닉재산 자진신고 프로그램(OVDP : Off-

shore Voluntary Disclosure Program)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FBAR규정에 따른 해외계좌를 재무성에 보고하지 않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FATCA에 의한 해외자산을 IRS에 보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FATCA에 의한 해외자산보고를 누락한 사람의 경우 수정세금신고(amended return)를 해야 합니다.

OVDP란 이 프로그램이 정한 절차에 따라 미신고 해외계좌나 자산 그리고 누락한 소득을 신고하면 신고불이행에 따른 벌금을 낮춰 주고 형사처벌을 면해주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그 중 FBAR와 관련된 가산세 경감규정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신고 안한 해마다 매년 부과되는 가산세가 27.5% (지난 8년간의 기간 중 미신고 금융계좌 및 자산의 최고 잔액의 27.5%)로 한번만 과세됩니다. 이 때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75,000을 넘지 않은 경우에는 12.5%가 적용되며, 특수한 경우 고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5%가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①누락된 소득에 대한 당초 미납세금, ②가산세 중 Accurate-related penalty인 20%, ③이자, 그리고 ④FBAR 가산세 27.5%를 내게 됩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납세자(Non-resident U.S. taxpayer)를 위한 특례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의 납세자(non-

resident U.S. taxpayer)' 중 세금신고와 해외금융계좌(FBAR) 보고를 누락한 납세자 중 아래의 요건을 갖춘 사람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관련한 새 규정(New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 for Non-Resident, Non-Filer Taxpayers)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2009년 1월 1일 이후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납세자여야 하며(non-resident U.S. taxpayers),

둘째; 위 기간동안 미국에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어야 하며,

셋째; 준법훼손 위험도가 낮아야 합니다(low level of compliance risk).

따라서 미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납세자는 이 규정의 적용대상자가 아니며, 외국에 거주하는 납세자라 하더라도 기존에 세금신고를 한 사람은 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외국에 거주한 납세자로서 2009년 이후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던 자라도 준법훼손위험도가 높은 사람은 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을 적용받게 되면 신속한 약식감사를 받게 되고 해외금융계좌 지연제출과 관련한 가산세를 면제받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①지난 3년간의 세금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②미납세금, 관련 가산세 및 이자를 납부해야 하며, ③지난 6년간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④이 규정과 관련된 질문서(questionnaire)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세금신고는 제대로 했지만, FBAR에 의한 해외금융계좌를 신고안한 경우는?

과거에 세금신고를 제대로 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냈지만 단순히 FBAR에 의한 해외금융계좌신고가 누락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와 같이 누락된 소득없이 세금신고는 잘 했지만 재무성에 해외계좌신고만 안 한 경우에는 FBAR지연제출신고서(delinquent FBAR report)와 지연제출사유서를 재무성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 경우 미납세금이 없고 사전에 세무조사와 관련된 접촉이나 지연제출신고서를 요청받은 적이 없었다면 FBAR관련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해외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을 포함하여 세금신고는 잘 했는데, FATCA에 의한 해외금융자산보고가 누락된 경우는 수정세금신고(amended return)를 해야합니다. 즉 2011년도와 2012년도 세금신고시 FATCA에 의한 해외금융자산 신고가 누락됐다면, 서식 Form8938(Statement of Foreign Financial Assets)을 작성하여 수정세금신고서(amended return: Form1040X)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IOPE



당신도, 경험하세요
피부 탄력의 끝!

슈퍼바이탈 크림 바이오인텐시브

\$90이상 구매 고객님의 OR 바이오에센스를 구입하시는 고객님의
썬오안 미소 발효 클렌징 티슈를 증정합니다



아모레 보스톤점 INSIDE H MART BURLINGTON 781.229.6800 March 1~March 31

슈퍼바이탈크림 바이오인텐시브 구매시 슈퍼바이탈 5키트를 증정합니다

SUPER VITAL CREAM BIO INTENSIVE LAUNCHING PROMOTION



NEW TROUBLE SOLUTION TOTAL ACNE CARE IN 4 SIMPLE STEPS
폐부진정은 기본 트러블 예방까지 (IOPE TROUBLE CLINIC)

IOPE

new TROUBLE SOLUTION



피부진정은 기본! 트러블 예방까지!

Cleansing Foam 150ml, \$20~\$22 CAN
Soothing Toner 150ml, \$35~\$38 CAN
Control Emulsion 130ml, \$37~\$40 CAN
Intense Essence 40ml, \$47~\$50 CAN

진정, 트러블 관리 및 방어 환경 조성 강화 치유 강화

공정원의 입학 사정관들이 알려주지 않는 대학 입학 지원 요령



공정원 선생님은 보스톤 근교 브록라인 공립학교에서 17년째 교사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대학입학 컨설턴트인 엘리자베스 위스너-그로스의 “대학 입학 사정관들이 알려주지 않는 272가지 비밀/미국 명문대학 입학기술” (마고박스 출판)을 공역하셨습니다. 공정원 선생님은 하버드대학 출신들이 창립하고, 전직 아이비리그 대학 입학 사정관들로 구성된 종합 교육컨설팅회사에서 컨설턴트로도 활동하고 계시며, 두 자녀 모두 프린스턴 대학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대학 진학 설명회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BostonKongConsulting@gmail.com 이나 또는 978-505-7884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14학년도 미국 대학 정시 지원 현황을 분석한다

올해 대학 정시 지원 현황은 아이비 리그 대학 중 프린스턴, 예일, 유펜, 브라운대학이 지원자 수의 증가를 보였고, 하버드, 컬럼비아, 다트머스대학은 지원자 수가 작년에 비해서 감소했다. 프린스턴은 26,607명이 지원해서 2012년 엘리 액션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한 이후, 최고의 지원자 수를 기록했고, 프린스턴 역사상 세번 째로 높은 지원자 수를 기록했다. 예일은 30,922명이 지원, 작년에 비해 4.4%의 증가를 보였고, 예일 역사상 처음으로 30,000명 이상이 지원했다. 유펜은 35,788 명이 지원, 작년에 비해 14%의 증가를 보였다. 브라운은 30,320명이 지원, 브라운 역사상 두 번 째로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였다.

하버드는 34,295명이 지원, 작년에 비해 2% 감소하였고, 컬럼비아는 32,952명이 지원, 1.5% 감소하였다. 다트머스는 19,235명이 지원, 작년에 비해 무려 14%나 감소하였고, 대학대변

인 저스틴 앤더슨에 의하면, 이는 지난 21년중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수치다. 작년에 보도된 대학내 성희롱 사태와 대학 내 사교클럽의 무리한 신고식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대학측은 보고 있다.

노스웨스턴은 33,200명이 지원 작년에 비해 1.3% 증가 하였으며, 지난 11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시카고는 27,499명이 지원, 작년에 비해 9.5% 감소했다.

이처럼 점점 지원자 수가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를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다르다. 전체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주장도 있고, 줄어드는 학생 수를 늘어나는 외국학생들이 채울 것이므로 지원자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 어쨌든 이 지원자 수는 입학 정원을 크게 넘는 숫자로 여전히 명문대 입학은 어려운 일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미 얼리에서 합격한 학생들은 여유

롭게 마지막 고등학교 생활을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매일 불안과 고통속에 초조한 마음일 것이다. 아무리 우수한 학생에게도 명문대 입학은 보장되지 않는다. 물론 자격 미달인 학생은 불합격이 보장 되겠지만, 우수한 학생에게도 입학이 숫자로만 결정되지 않고, 또 다른 우수한 학생들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불안할 수 밖에 없다.

명문대 입학 준비는 빠를수록 좋다. 우선 고등학교 시작 전에 기초를 튼튼히 다져야 하니까, 최소한 중학교부터는 공부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대학에서는 학점도 중요시 하지만, 그 보다 어떤 교과목을 수강했는지 철저히 본다. 쉬운 과목만 수강해서 좋은 학점을 받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명문대 대학 과정은 쉬운 과목이 아니다. 최소한 명문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이라면 항상 자신의 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최고 수준의 과

목을 수강해서 좋은 학점을 받도록 해야한다. 예를 들면, 수학 과목에서 최소한 4학년때 Calculus를 수강하려면, 9학년때 최소한 Geometry를 수강해야, 3학년때 Pre-Calculus를 수강할 수 있다. 많은 수의 명문대 지원학생들은 3학년때 AP Calculus를 수강하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고등학교 4년의 교과과정도 미리 짜고, SAT 준비와 계획, 과외 활동 계획, 대학 Essay 준비, 등등 최소한 고등학교 시작과 동시에 이런 계획이 완료되어야 한다.

과외활동도 이것 저것 여러개 하는 것보다, 6학년이 되면 자신이 정말 잘하는 분야를 정해야 한다. 모든 대학들이 대학 전체를 두고 볼때 well-balanced 하게 학생들을 구성하고자 한다. 그러려면, 학생 개개인이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어야 가능하다. 예를들면, 수학을 잘하는 학생, 운동을 잘 하는 학생, 음악을 잘 하는 학생

들이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 일때, 그 대학의 명성이 모든 것을 잘하는 대학이 되기 때문이다. 자신이 좋아하고 잘 하는 과외활동을 찾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 부터,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고 여러 경연대회에도 참가해야한다. 여기에는 부모님의 역할이 크게 요구된다.

지금 얼리에서 입학 연기된 학생이라면, 벌써 가고 싶은 대학의 입학 담당자와 연락을 취했을 것이다. 이제 남은 4학년에서 최상의 성적을 받고, 가끔 변동사항이 있을 때, 입학 담당자에게 알려야 한다. 그리고, 학교 담당 카운슬러의 도움을 청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된다. 하지만 절대로 부모가 연락을 한다거나 해서는 안된다. 모든 일을 학생 스스로가 연락을 취하고, 처리해야 한다.

JEI MATH OLYMPIAD

(For grades 1 through 8)

Saturday, March 15, 2014

(Registration deadline: March 8)

Entry Fee: \$20 for members / \$30 for non-members
Event Time: 9:30AM - 11:00AM

PRIZES

Grand Prize: \$1,000 College Scholarship + Samsung Galaxy Tab

1st Place Prizes (8): Samsung Galaxy Tab

2nd Place Prizes (8): Lenovo IdeaTab

3rd Place Prizes (8): Apple iPod shuffle

Gift bags for all participants!

COMPETITION VENUE

JEI of Burlington
11 Adams Street
Burlington, MA 01803
Please call: (781) 365-0075

재능교육

JEI

Learning Centers

For more info, please check our website www.jeilearning.com

1월 16일부터 시작합니다

헤어 스타일리스트 영을 찾아주세요!!

헤어 스타일리스트 영입니다.

2014년 시작과 함께 Watertown Hair salon Sabrina에 새로운 등지를 틀게 되어 인사드립니다.

무조건 서비스 (1/16-3/31)

길이 상관없이 무조건!!

컷 남자 20불, 여자 25불, 파마, 코팅, 염색 70불
셋팅 디지털, 캐라틴 130불, 매직 200불

617.947.6840

주소 ; 25 church st, watertown MA
대중교통 ; 52, 57, 59, 70, 70A, 71, 502, 504

경력: 압구정 김영남 미용실
롯데 호텔 마리 미용실
송내 부천 박준 오픈 스탬
뉴욕 fox 헤어 스튜디오
SALON LOFTS sunny 운영

경력: 압구정 김영남 미용실
롯데 호텔 마리 미용실
송내 부천 박준 오픈 스탬
뉴욕 fox 헤어 스튜디오
SALON LOFTS sunny 운영

미국 유학 성공 가이드



오승준 (Albert Oh)

SD Academy 원장
SDAcademyOnline.com
617-505-1852, 510-387-0735
info@SDAcademyOnline.com

SAT와 AP 시험 등을 주관하는 College Board의 새 회장으로 2년 전에 임명된 David Coleman은 부임 당시부터 현재의 SAT 시스템, 특히 Essay를 포함한 Writing section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현해 왔다. 부임 이후부터 SAT의 변화를 꾸준히 예고해 온 Coleman 회장이 드디어 오늘(2014년 3월 5일) 종전의 시험 방식을 확 뒤엎는 대대적인 개혁안을 발표했다.

새로운 개혁안의 변화들을 살펴보면 솔직히 시험의 난이도가 하향 조정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우선 문장 완성 문제(Sentence completion)에서 난해한 어휘(예: deprecatory-엠티어기는, membranous-막을 형성하는, prevaricate-얼버무린다)는 모두 사라지고 고등학교, 대학교 수업 시간 중에 쓰일 만한 어휘(예: synthesis-합성, empirical-

경험적)로 대체된다. 또한, 2005년에 Writing section과 함께 새롭게 추가되었던 Essay가 선택 사항으로 바뀌면서 영어와 수학의 총 1600점 만점의 배점으로 돌아가게 된다. (선택 사항인 에세이를 쓰는 학생들은 에세이 점수가 총점과 따로 보고 된다.) 에세이 자체도 현재의 논쟁 형식의 글에서 지문의 독해와 분석을 요구하는 더욱 심층적인 추론 형식의 에세이로 바뀌게 된다. 학생 개개인의 경험이나 주어진 지문을 기반해 주장을 펼치게 되며, 아무리 터무니 없고 억지스러운 주장일지라도 글 쓰기 능력으로 커버한다면 감점이 없다.

문제의 채점 방식도 바뀐다. 현재의 방식에서는 정답일 경우 1점을 주고 오답일 경우 1/4 점을 감점, 문제를 건너뛰거나 안 풀 경우에는 점수의 가감이 없다. 마구잡이로 찍어서 점수를 벌거나 단순히 운에 의한 고득점을 경계하기 위한 감점 정책이었지만, 새로운 SAT에서는 이마저도 사라지게 된다. 즉, 모든 문제를 연필을 굴려서 찍어도 단 한 문제도 안 풀 사람보다 훨씬 높은 점수가 나올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 (참고로 틀릴 경우 감점을 하는 현재 방식에서는 자신의 이름만 쓰고 답안지를 제출하는 경우 2400점 만점에서 약 700점 정도를 받는다.)

수학 섹션에도 꽤나 큰 변화가 생긴다. 일단 모든 문제에서 허용되었던 계산기 사용이 문

SAT: 또 확~ 바뀐다!

제의 난이도 별로 제한된다. 즉, 계산기조차 필요 없는 암산 문제의 비율이 늘 예정이다. 게다가 문제의 출제 범위도 대폭 줄어든다. 현재 SAT 수학 문제들의 유형을 보면 기본적인 Pre-algebra 수준의 덧셈, 뺄셈부터 Pre-calculus 과정에 나오는 sequence(수열)까지 기본적인 고등학교 수학 과정을 모두 섭렵하며, 단순한 계산을 요구하는 쉬운 문제부터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는 응용 논리 문제까지 폭넓은 난이도를 자랑(?)한다. 하지만 새로 바뀌는 SAT 수학 문제들은 1차 방정식(linear equation), 함수(equations & functions), 비율(ratio & proportional reasoning)의 세 분야에서만 출제된다. College Board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SAT를 대비하기 위해 공부해야 하는 범위를 확 줄여서 학생들의 불안을 덜어주려는 취지라고 한다.

공부해야 할 범위가 주는 것은 영어(독해) 섹션 또한 마찬가지다. 독해를 위한 지문과 과학, 사회학, 역사 등 여러 분야에서 제출되는 것은 변함이 없지만 모든 SAT 시험은 적어도 1개의 미국사 초창기 시대의 문서(예: 독립 선언문(Declaration of Independence), 권리장전(the Bill of Rights) 등) 혹은 그런 문서에 대해 논하는 에세이가 지문으로 출제된다. 적어도 미국사를 꾸준히 공부해온 학생이라면 독해가 아니라 시험 전에 이미 지문 전체를 외

워 올 수도 있다. (반대로 미국사에 익숙하지 못한 외국인 유학생은 불리할 수도 있다.)

오늘 발표에서, College Board 대변인은 "비싼 사립 과외로 배울 수 있는 시험 보는 기술에 대한 이점을 줄이고 학생들이 실제로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에 대해 시험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런 식의 개혁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College Board의 Coleman 회장도 고액 과외 문화는 "불평등하고 불공평하다는 인식(perception of inequality and injustice)"을 만든다면서 "우리[College Board]의 잘못은 아니지만 우리가 답해야 할 문제"라고 강하게 이야기했다.

얻을 수 있는 총점을 줄이고, 문제의 난이도를 낮추고, 운보다 실력을 드러내는 감점을 없애고, 시험 범위를 미리 알려주는, 전체적으로 하향 평준화 되는 시험이 어떤 식으로 더 효과적인 대입 시험의 기준이 되는지 되려 묻고 싶은 기분이다.

완전 새로워진 형식의 SAT는 2016년 봄, 즉, 현재의 9학년생들이 SAT를 보기 시작할 때쯤부터 시행된다.

오승준 (Albert Oh)

Copyright ©2013.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칼럼 내용이나 상담, 수업에 관한 문의는 전화(617-505-1852) 또는 이메일(info@sdacademyonline.com)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고 싶으십니까?

ISAL 어학원을 소개합니다

수준별 맞춤형 수업
비즈니스 영어회화
대학교 진학 준비(학사, 석사, 박사과정)
ISAL 에서 시작하세요.



INTERNATIONAL SCHOOL
OF
ADVANCED LEARNING

20 Linden Street 2nd Floor
Allston, MA 02134

855-595-5885

www.isalusa.com

info@isalusa.com

하나여행사 HANA TRAVEL



- 한국, 아시아, 미국내, 유럽, 남미 등 항공권 할인
- 관광 패키지



전문가와 함께 편안한 여행을 설계하세요.

617-713-HANA(4262)

Cell.phone: 617-818-2772

email: hanatravel@gmail.com

Toll Free 1-800-368-6977

송영두 박사의
조기유학 물고 답하기

송영두 박사 (보스톤유학원 원장)
보스톤유학원 www.bosec.com
545 Concord Av, Suite 214
Cambridge, MA 02138, USA
Tel 617-491-0041
9731

한국 사무소: 타워팰리스
전화: 02-579-9731
Email: ysong@bosec.com / www.bosec.com

필립스 아카데미 입학에 관심이 있는 부모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보스톤 뉴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9월에 9학년이 되는 딸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Phillips Academy에 보내고 싶은데 1) 편입도 가능한지요? 2) 일단, Newton South에 다니면서 입학을 준비할 수 있나요? 있다면, 현재 3) 보스톤 유학원에서 운영하는 준비반이 있나요? 4) 입학확률은 어떻게 되나요? 5) 현재 영주권자인데 후, Phillips Academy 한국인 쿼터에 걸리지는 않나요? 현재 4년째 거주하고 있습니다.

답변
우선 저희 홈페이지 '조기유학 물고 답하기'에는 과거 10년 넘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모두 수록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맨아래 검색 기능을 활용하시면 많은 정보를 얻으실 것 입니다. 문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립니다.

1) 대다수의 고등학교는 9/10/11 학년에 모두 지원을 받습니다. 물론 9학년이 제일 많이 뽑고 그 다음이 10학년인데 대개 9 학년 뽑은 숫자의 반 혹은 그 이하를 뽑습니다. 11학년부터는 예외적인 케이스라고 취급되고 따라서 이보다 훨씬 적게 뽑습니다. 12 학년은 대개 뽑지 않습니다. 다만 PG (post graduate) 라고 해서 12학년을 다른 학교에서 마친 학생을 12 학년으로 받습니다. 즉 12 학년을 다시 하는 것이므로 일종의 재수생입니다.

2) 지원 준비는 어느 학교를 다니건 할 수 있고 사실 지원 요건 만 갖추면 미국은 물론 세계 어느 곳에 있건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필립스 같은 큰 학교는 인종적 다양성을 중요시하는데다 동양 학생들이 잘 하므로 서양 학생만큼 선호합니다. 지원 준비는 첫째로 학교 성적을 잘 받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학교이므로 B/C student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Newton South는 학업이 대단히 강하고 어려운 학교인만큼 B+가 honors 과목에서 한개 정도라면 크게 문제 삼지 않지만 두 개 이상 되면 다소 불안합니다. 세 개면 지원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C가 하나라도 있다면 지원 학교를 바꾸는 게 현명합니다. 그리고 입학 시험인 SSAT를 응시해서 90-99 % 사이를 받아야 하는데 95% 이상인 게 바람직합니다. 두 번 째는 공부 외에는 무엇을 할 줄 아는지가 중요합니다. 음악이나 미술, 운동, 클럽, 장기 같은 것입니다. 동양 학생들은 80%이상이 악기를 합니다. 악기는 입학 후 활동을 생각한다면 오케스트라에 참여할 수 있는 악기가 낫고 수준도 그 정도는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학생의 심성과 인간적 매력입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당락에 영향을 미칩니다. 저희 오랜 경험으로는 한국 가정에서 소홀히 하는 세 번 째 항목 같은 것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어차피 필립스 정도를 지원하고 경쟁 풀에 드는 학생이라면 학교 성적이나 SSAT는 거의 완벽한 학생 들입니다.

3) 저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지원 컨설팅과 SSAT 시험 준비입니다. 전화나 방문 상담을 받

아 보신 후 결정을 하시는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Newton에 사신다면 저희 Cambridge 사무실에서 학생과 같이 상담하시면 되고 한국에 거주하시는 학부모형은 서울 강남의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 있는 저희 서울 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SSAT는 사시는 곳이 Newton 경우는 선생님이 방문해서 지도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도 준비를 안 해본 학생이라면 여름 방학에 8주 정도 지도를 받을 것을 권합니다. 학기 중에는 주말에 3-4 시간 씩 받으면 됩니다 만 학생의 수준에 따라 소요 시간이 다릅니다. 시험은 9, 10, 11, 12, 1월에 볼 수 있습니다.

4) 필립스 경우 미국 학생 경우 7-8 명에 하나 정도 합격합니다. 한국계/중국계 학생은 같은 실력과 조건이면 Caucasian 보다 입학이 어렵습니다.

5) 공식적으로 racial quota나 country quota가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학교든 외국 학생의 비율을 정해놓고 있고 중국, 한국 학생 들은 학교 자체의 기준에 따라 재학생 숫자를 조정합니다.

아래는 2010년에 유사한 질문에 대해 드린 답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 홈페이지의 미국 교육 뉴스란에 필립스 아카데미 기사를 인용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이 학교는 모든 시니어 보딩 스쿨 중에서 입학이 가장 어려운 몇 학교 중 하나입니다. 필립스 앤도버는 올해는 총 2845명이 지원해서 400명 정도를 합격시켜서 합격률은 사상 최저인 14% 정도

입니다. 불과 5년 전에 합격률이 20% 대였던 것에 비하면 대단히 가파르게 입학이 어려워지는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합격된 400명 중 이중 315명이 앤도버에 진학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평균적인 사립 보딩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입니다. 지원자는 작년에 비해 5% 증가한 것이고 2년 전에 비해서는 무려 23%가 증가한 것인데 이는 미국 및 세계 경기가 안 좋은 기간 중에도 이 사립 학교의 인기가 꾸준히 높아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필립스의 인기가 높다는 것과 더불어 미국 교육 전반에 걸쳐 한국이나 중국 같은 나라에만 연되어 있는 일류학교병이 미국 사회에도 퍼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입학생 들 중 중간 정도인 학생의 (미디언) 의 학교 석차는 최상위 1% 이고 SSAT 점수는 94% 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치는 한국 학생을 포함한 전체 입학자에 대한 수치이고 한국 학생은 사실 이보다 두 세배 이상 더 높은 경쟁을 거쳐야 합니다. 물론 요구되는 점수도 조금 다릅니다. 앤도버같은 학교를 가려면 SSAT의 reading 점수가 95% 이상 되는게 좋습니다. SSAT 점수가 이 정도인 학생들의 경우에는 토플 점수는 조금 덜 중요합니다. 그러나 과거 예로 보면 110점 혹은 그 이상인 학생이 많습니다. 명문 학교들은 토플이 문제 될 정도의 학생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고, 사실 그런 학생들은 진학을 해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시험 점수는 전체 그림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시험 점수 외에도 학생의 인성, 과외활동/장기 등도 아주 중요합니다. 시험 점수에만 집착하다가 원하는 성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이곳에 게재되는 답변 내용은 보스톤유학원에 저작권과 판권이 있습니다. 보스톤유학원 허락 없이는 허가없이 전재, 변조, 복사, 양도, 배포, 출판, 전시, 판매하거나 상품제작,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하버드,프린스턴,컬럼비아 등 아이비리그 대학과 MIT,스탠포드에 90% 합격률을 유지하는, 보스톤의 최강 강사진으로 구성된, **선진학원**에서 다음 강의를 오픈합니다.

방학 내용	기간	강좌 내용	강사진
탱스기빙	11/23 ~12/ 2/2013	SAT I / All subjects AMC 10,12 (수학경시)	Olivia (Milton,MIT졸,다년간 보스톤 및 서울 유명학원 강사유경험자)
겨울방학	12/20/2013 ~1/5/2014	SAT I / All subjects AMC 10,12 (수학경시)	Richard (Columbia대학원 역사전공졸,보스톤및 서울유명학원 강사유경험자)
봄방학	3/5~3/23/3014	SAT I / All subjects AMC 10,12 (수학경시)	Daniel (MIT수학과 졸업,수학박사과정중,보스톤 지역스타강사)

* 상기 기간은 개별학교의 Break 기간이 다르므로 학생별 기간을 선택할수 있습니다.

영문학, 미국 역사, 세계사 박사 소지자로서 선진학원 다년간 강사 경험자 참여함. 물리, 화학,컴퓨터, 라틴어 강의도 합니다.
년중 매주 월,수,금(4~6시), 토, 일 (10~12시, 1~3시) :SAT 그룹강의 개설:클래스당 3명 이상시 강의 개설함.
학부모님 학원 예약 방문시 무료 대입및 고입 상담

차별화된
특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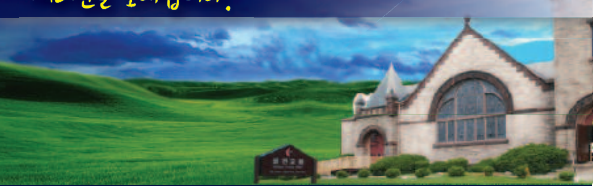
- 강의 기간동안 학생들을 위한 대학 진학 가이드및 원하는 학생들을 위한 대학 투어도 가능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나 이메일로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 위 기간동안 그룹 강좌 외에 개인 강좌를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전과목 강의 가능함.
- 개인 학생별 상담하여 중학교,고등학교 수업기간별 마스타 플랜 작성해줌.
- 미국 현지의 최고 수준의 과목별 강의와 맞춤형 Extra Curriculum 제공

1050 Waltham St. Suite#320 Lexington, MA 02451
781-863-0677 icarus766@gmail.com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해 막혔던 답을 예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겸손.. 은유.. 인내.. 사랑.. 용납..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금요찬양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 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유스 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 금 오후 8:00
새벽예배 :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7:00
청년모임 주일오후 12:30
속회모임 수 - 주일 속회별
중보모임 화,목 오후 8:00, 주일 오전 9: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2:30, 수 오전 9:30, 금 오후 9:30

비전 교회 Open hearts. Open minds. Open doors.
The peopl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80 Mt. Auburn St., Watertown, MA 02472 **Tel: 617.744.9557**
www.gracevisionumc.org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삶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십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턴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임목사 유 경 렬



미 주 한 인 예 수 교 장 로 회

세빛교회

NEW LIGHT KOREAN CHURCH

주일예배 : 오전 11시 30분
주일영어예배 (EM) : 오전 11시 30분
주일학교 (유, 초, 중, 고) : 오전 11시 30분
수요일예배 : 오후 8시
금요기도회 : 오후 8시
새벽기도회 : 오전 6시 (월요일 제외)

담임목사 김대업
730 Main St. Waltham, MA 02451
781-652-0001 / NewLightKC.org

뉴햄프셔한인교회

New Hampshire Korean Christian Church

주일예배 • 오후 1시 30분
담임목사 • 장계은

12 Station Rd. Bedford, NH 03110 (GPS 주소: 8 Hawthorne Dr. Bedford)
603-264-6799 • 603-264-6798 • www.newkcc.org





임마누엘 연합교회

주일예배: 오후 1시 30분
새벽기도: 오전 6시 (월~금)
담임목사: 김 덕 기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0 Forest Park Rd, Woburn,
MA 01801
617-939-3903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턴 한인성당
St. Antoine Daveluy Parish at Corpus Christi

주일미사(한국말)
오전 11시30분 (교중미사)
오후 4시30분 (청년주관)

영어미사
오전 10시

평일미사
(화) 오전 10시30분
(목) 오후 7시30분

고백성사
미사 시작 30분전

셔틀서비스(요청시)
(http://stdaveluychurch.org/오시는길)
11:15 am, 리버사이드역 → 성당
미사 30분 후, 성당 → 리버사이드역

45 Ash St. Newton, MA 02466
617-558-2711, 617-244-9685
office.kccb@gmail.com
www.stdaveluychurch.org



보스턴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 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주일학교: 오후 2시
중고등부: 오후 2시	대학부모임: 주일 1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임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781.894.3958 목사관: 617.969.5809



광고 문의

617.254.4654



“매주 2만여명의 독자를 직접 찾아갑니다”

보스톤코리아 이메일 발송 서비스

— 2만여 회원들에게 인터넷 지면보기 전세계 어디서나 볼 수 있어
보스톤 코리아가 매주 신문 발행과 함께 이메일로 2만여 회원들에게 인터넷 지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매주 새로운 소식을 전세계 어디에서나 웹사이트에서 또는 지면보기로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 새로운 소식, 깔끔한 디자인
새로운 소식을 깔끔한 디자인으로 전해드립니다. 컴퓨터는 물론 태블릿, 스마트폰에서도 저희 보스톤코리아를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보스톤이안 2014도 볼 수 있어
보스톤 및 미주 생활 가이드로 교육에서 의료 그리고 각종 생활정보를 eBook 또는 보스톤코리아 웹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보스톤코리아 보기가 어려우시다면?
이제 이메일 주소로 신청하세요!
픽업 장소가 마땅치 않아 보스톤코리아를 보지 못하는 분들은
bostonkorean@hotmail.com으로 이메일 보기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성경말씀을 통한 기쁨으로 사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보스톤한인교회

담임목사 : 송연호

안식일 학교: 토요일 오전 9:30
안식일 설교예배: 토요일 오전 11:00
중고등부 학생반: 토요일 오후 2:00
금요일 예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일요일 오전 6:00
제자훈련: 화요일 저녁 8:30 (스카이프)
영어교실: 화요일 오전 10:00

부설: 보스톤 세생활 센터 / 17년간 한인들의
위해 매달 무료 진료를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주소: 4 Spring st. Stoneham, MA. 02180
전화: 781-279-3270 bkadventists@gmail.com
www.bkadventists.com

살짝 땡기자

우리가 흔히 찍는 사진은 스냅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엔 스냅사진에 대한 내용을 복습하고, 어떻게 촬영해야 하는지 얘기를 나눠보자.

초기에 사진촬영의 주목적은 인물사진 촬영에 있었다. “사진은 인물사진에서 시작해서 인물사진으로 끝난다” 는 말이 있듯이 인물사진은 사진의 여러 주제 중에서 가장 으뜸이다. 초기 인물사진은 초상화적인 외적 아름다움 추구하고, 석고상 같은 인물사진을 촬영했다. 그러나 최근 인물사진은 내면 속에 흐르는 인간미나 인간상을 풍부하게 표현이 목적이 된다. 따뜻한 감정이나 인간의 표정이 얼굴이나 형태로 시각화하는 작업이 주로 이루어지며, 인물사진에서는 일상의 실제 표정을 그대로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물사진을 간단히 나눠 보면, 우연성을 존중하며 상대방이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찍는 사진인 캔디드(Candid-솔직한,정직한)사진, 성격이나 심리적인 것을 묘사한 초상(Portrait)사진, 그리고 선, 면, tone, mass의 조화를 중심인 커머셜(Commercial)사진, 얼굴을 소재로 한 충동적 또는 표상적인 조형적 인물사진 등이 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연스러운 스냅사진은 캔디드 사진이라 볼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잘 찍을 수 있을까? 정면에 세워놓고 천편일률적인 자세와 표정을 찍는 것 보다는 조용히 옆에서 뒷모습이나 옆모습을 자연스럽게 찰칵찰칵 담아내는 게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을 담는 것이 좋다. 대화를 하며 사진을 찍는 것 또한 추천한다.

즉, ‘음 좋아요’ ‘지금 표정 정말 예뻐요,’ ‘머리카락 넘겨보세요, 오, 훨씬 더 예쁘네요’ 등의 말을 건네면 카메라 앞의 인물은 미세하게 표정이 달라진다. 이런 순간을 잘 포착하면 자연스럽고 이쁜 사진이 많이 나온다.

때론 인물의 느낌을 담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걸음걸이를 찍는다거나, 역광을 이용해 찍어보는 것도 좋다. 이런 사진은 또렷한 모습보다 오히려 더욱 아름다운 사진으로 오래도록 기억에 남으며, 때론 핀 나간 사진이 느낌이 좋을 때가 있다.

그리고 인물의 모습 전체가 아닌 일부분만 찍어도 멋진 사진이 나온다. 인물의 발이 예쁘다면 발을, 가방 끈을 쥔 손, 찻잔을 만진 손 등을 찍는 것도 좋다. 손이나 발 등 신체 일부가 얼굴이나 몸동작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하기도 한다. 때론 연속촬영 모드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면서 좋은 표정을 잡아 보는 것을 추천한다.

인물의 높이가 항상 일정하게 찍으면 예쁜 얼굴이 안 나온다. 그래서 여성의 인물사진 찍기가 꽤나 부담스럽다. 가장 큰 원인은 인물도 선자세에서, 촬영자도 항상 선자세로 사진을 찍기 때문에 잘 나와 봐야 본래의 얼굴 정도다.

해결방법은 상황에 따라 촬영 각도를 달리하는 것이다. 가장 쉽고 기본적인 방법은 인물이 선 자세일 경우는 촬영자는 허리를 굽힌 자세이거나 앉은 자세로 촬영하면 볼이 약간 도톰해 보이게 되어 귀엽고 좀 더 어려보이게 되고, 다리가

약간 길게 표현되어 날씬하게 보인다.

인물사진을 찍을 때는 배경과 인물을 함께 찍으려는 욕심을 버리자. 이 둘을 다 담으려다가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찍지 못한다. 인물을 배경 바로 앞에 세우지 말고 멀찌감치 떨어져 지게 만든 후, 인물에 포커스를 맞추고 조리개를 개방하여 배경을 흐릿하게 찍으면 한결 생동감이 있는 사진을 찍을 수 있다.

그리고 인물사진 촬영시, 스토리텔링을 하는 것이 좋다. 사진 속에는 글은 없지만 메시지는 있다. 단어가 모여 문장이 되고 이야기가 되는 것처럼, 낱장의 사진을 잘 묶으면 이야기가 만들어진다. 사진으로 이야기를 만들기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우선 키워드를 정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자. ‘가족 나들이’라는 막연한 주제 보다는 포옹, 교감, 행복, 따뜻함 등 다양한 키워드를 정해 느낌을 표현해 보자.

마지막으로, 기억해 두자. 사진은 좋은 사진 혹은 좋지 않은 사진도 없다. 단지 멋지게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 있을 뿐이다. 인물사진은



Photograph by SoungDae Yang

모델의 표정이 제일 중요하다. 표정이 좋은가 좋지 않는가는, 인물이 카메라를 의식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이다. 그래서 되도록 모델과 거리를 적당히 두고 망원으로 살짝 땡겨서 찍어라. 프로모델이 아닌 이상, 누구든지 카메라를 의식하고, 그러다 보면 표정이 딱딱해 지기 때문이다. 살짝 땡기면 렌즈로 인한 왜곡도 줄어들고 자연스러운 사진이 나온다.

Crouser & Suh PLLC

크라우저 & 서 로펌

이민법/국제법 전문 미국 로펌
한인 변호사들의, 한인들을 위한
최상의 법률 서비스!



이소영
이민 변호사

전문인력 취업비자 (H-1B)
단기연수인 비자 (H-3)
주재원 비자 (L-1)
특기자 비자 (O-1, P-1)
취업이민 (NW, EB-1, EB-2, EB-3)
투자비자 (E-2) / 투자이민 (EB-5)
종교 비자 (R-1) / 비자 변경 및 연장
가족초청 이민 / 시민권 신청
추방 재판 / 각종 이민 관련
비지니스, 민사 등 각종 소송 관련



조규성
민법/상법 변호사



양선영
이민 변호사



스티브 서
이민 변호사

Crouser & Suh PLLC

1111 Washington Street. Newton, MA 02465

Tel: 617.969.7979 / 617.877.3435

Fax: 617.969.4959 www.stevesuh.com / www.suhladyer.com

신영의 **세상 스케치**

438 회

창의성의 원동력은 두려움에서 시작되고...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창의성의 원동력은 두려움이었다. 두려움은 편안하게 안주하는 생활을 벗어나게 해준다. 또 불가능해 보이는 어렵고 힘든 일도 가능하게 한다. 육체적 고통을 경험한 사람이 더욱 건강 유지에 노력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 앤드류 그로브, 인텔 2대 회장 (육동인 저, '누구나 인재다' 에서 인용)

계절과 계절의 사잇길에서 서성일 무렵이면 방랑벽이 있는지 혼자서 훌쩍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진다. 굳이 남들이 즐겨 찾는 곳이 아니라도 좋다. 때로는 잠자리가 불편하고 먹거리가 시원치 않아도 가슴을 흥뻑 적셔주고 채워줄 그 무엇인가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누림은 아닐까. 혼자 여행하기를 좋아하는 나는 가끔 정하지 않은 곳 낯선곳으로부터 생각의 유혹을 받는다. 여행은 언제나 설렘과 두려움 사이에서 느끼는 긴장감이 있어 좋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행은 우리네 인생과 너무도 닮은꼴이다. 보이지 않는 길에서 서성이다 제 길을 찾아 걷는 우리네 인생과 많이 닮았다.

언제나처럼 황홀한 올가슴!

어디로 갈까.
결정하지 않은 시간
그 이전의 선택하지 않은
모호한 그 시간은

가끔 흥분의 도가니로 이끌고

그 순간의 느낌은
언제나처럼 황홀한 올가슴

정하지 않은 목적지
두 갈림길에서 서성이는
아슬아슬한 그 순간의 누림
생각과 생각의 사잇길에서
누리는 찰나의 카타르시스

그 순간의 느낌은
언제나처럼 황홀한 올가슴

산을 오르면
오를수록 가파른 숨
등줄기 타고 흐르는 땀방울
거친 호흡에
가슴이 타들던 순간
그 순간의 느낌은
언제나처럼 황홀한 올가슴
설렘과 두려움 사이
정체 모를 긴장감이 찾아오고
조여진 현의 활처럼
활대의 휘어질 듯 말 듯한
그 순간의 느낌은
언제나처럼 황홀한 올가슴

인간은 누구나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누구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잠재력이 항상, 저절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엄청난 몰입과 고민, 지속적인 노력과 학습, 그리고 두려움과 간절함이 결합될 때 스스로도 깜짝 놀랄만한 창의성이 발현되는 것이다.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을 가는 인생길처럼 새로운 것으로의 도전은 때로는 두려움이고 몇 번의 아니 수십 번의 실패와 그에 따른 패배와 좌절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아직 오지 않은 결과를 놓고 성공과 실패 그리고 승리와 좌절이라는 단정 지어진 생각은 포기만을 부추길 뿐이다.

숫이 보석(다이아몬드)이 되기까지 필요했던 시간을 곰곰이 생각하면 저절로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귀한 묵상의 시간이 되는 것이다. 보석이 되기 이전의 과정을 살펴보면 나무가 자라서 뿔감으로 쓰이고 불에 타 숫이 되는 이치야 그 누구를 모를까. 진정 그 숫이 숫검정을 묻히는 숫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보석이 되어 반짝이는 다이아몬드가 될 것인가. 누구나 반짝이고 화려한 보석인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싶어 할 것이다. 숫으로 남은 원소나 다이아몬드의 원소는 똑같은 탄소이다. 똑같은 원소가 하나는 숫으로 남고 또 하나는 다이아몬드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똑같은 원소가 하나는 숫이 되고 또

하나는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일이지만 깊이 생각을 만나면 참으로 신비한 일이다. 숫이 보석이 되기까지는 땅속 깊은 곳에서 오랜 시간을 높은 온도와 압력으로 눌려지고 또 눌려진 후라는 것이다. 그 고온과 고압을 통과한 후에야 맑고 투명한 보석이 된다는 사실은 놀랍고도 신비한 일이다. 사람의 삶도 비슷하다는 생각을 한다. 각자 삶의 자리와 모양과 색깔이 모두 다를 것이다. 하지만 힘겹다고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의 그 고난은 더 밝은 희망을 준비하는 고통의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면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남이 가지 않은 길을 선택해 가는 것은 무엇보다도 두려움이다. 하지만 그 선택한 두려움의 길을 망설이지 않고 묵묵히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다면 그 기쁨과 환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경험이고 표현할 수 없는 황홀함이다. 설령, 가다가 목적지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그것은 포기가 아닌 도전이었음을 명심해야 한다. 그것은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새로운 일에 대한 두려움을 벗겨주는 희망이고 꿈이 된다. 그것이 바로 두려움이 원동력이 되어 새로운 도전의 창의성을 위한 디딤돌이 되는 것이다. 창의성의 원동력은 두려움에서 시작된 까닭이다.

보스톤 한미 예술협회 주최

Sound of Korea 2014

국악 콘서트



출연
가민(피리), 유홍(대금),
안이호(판소리), 박이슬(가야금),
최소리(장구)

해설
Hilary Vanessa Finchum-Sung 교수
(서울대학교)



3월 15일 (토) 저녁 7:30
West Parish Church of Andover
129 Reservation Road
Andover, MA

3월 16일 (일) 저녁 7:30
Brandeis University
Slosberg Music Center Recital Hall
415 South Street, Waltham, MA

일반 \$20, 학생 \$10 (with ID)
입장권 판매: kcsboston.org
문의 전화: 781-223-4411

협찬: Korea Foundation, Brandeis University, West Parish Church of Andover, 주 보스톤 총영사관



삼월三月님이군요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한국에선 삼월을 삼일절과 더불어 시작한다. 삼일절은 삼월 초하루다. 독립선언문 첫 문장이다. 다시 떠올릴때, 문장이 장중莊重하다.

‘오등 قوم은 자 茲에 아我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自主民임을 선언하노라.’

꽤 거였고 낭보였다. 소치에서 날아온 젊은이들 소식이다. 몇주 계속되는 한파에 움추렸던 몸과 마음을 녹이고도 남

았다. 다시 보는 동영상은 감격이라 해야 한다. 그러니 뒷풀이해야 할 것들이 많기도 하다. 겨울이야기가 겹겹히 쌓여 있다는 말이다. 폐봄이 오기전에 겨울을 털고 가야 한다. ‘말씀드릴 게 얼마나 많은 지요.’

스피드 스케이팅에서는 혼자 달리는 것보다, 둘이서 레이스 하면 기록이 더 낮다 했다. 쫓으려는 욕망과 지지 않으려는 욕심이 동인動因일 것이고, 플러스 알파로 작용한다는 말이다. 이상화는 쫓았는가 아니면 쫓겼는가. 쫓는 자는 훨씬 덜 초조하다. 쫓기는 자보다 말이다. 한국은 여전

히 쫓아 가는 모양새다. 그러니 기록이 좋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더욱 더 바짝 붙어야 한다.

= 벌써 섬머타임 세이빙에 시간을 바꿔야 한다. 아직도 봄에 시계바늘을 밀어야 하는지 당겨야 하는지 헷갈린다. 어디가서 물어 볼수도 없으니 그저 외운대로 시간을 바꾼다. ‘Spring Forward.’ 역시 삼월은 봄을 미치는 계절이다. 진한 봄에 더욱 바짝 달라 붙을 것이며, 여름을 당기면서 간다는 말이다. 물론 격렬히 저항하는 겨울을 온전히 뿌리치지는 못했고, 뒤쫓는 추위는 여전하다.

달력에서만 봄이 와서 그런가. 겨우 내내 입이 열렸던가. 날이 풀릴듯 하니 쌓였던 이야기가 많기도 하다. 입만은 풀렸으니 주저리 주저리 읊조리는데, 봄 손님 앞에 두고 나 혼자 떠돌고 있다. 밖의 날씨와 상관없이 봄은 봄이다. 우리동네 에밀리 디킨스 시인은 ‘Dear March’ 라 불렀다.

‘삼월님이군요. 어서 들어 오세요/오셔서 얼마나 기쁘지요.
일전에 한참 찾았거든요/모자는 내려 놓으시지요
아마 걸어 오셨나 보군요/그렇게 숨치 차신걸 보니
그래서 삼월님, 잘지내셨나요/다른 분들은요
자연은 잘 두고 오셨어요./아, 삼월님, 저랑 바로
이층으로 가요
말씀드릴 게 얼마나 많은 지요.’
(에밀리 디킨스, 삼월)

헌데, 한국 텔레비전 사극에서 여종 이름은 왜 ‘삼월’인가. 예진아씨라는 말은 들었어도, 삼월아씨는 없는 듯하니 말이다. 삼월이란 이름이 그리 나쁘지 않아 곱다. 예진이란 이름에 비해 덜 고상하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말이다. 삼월님이 섭섭하겠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히브리서 13:2)

영어를 배우세요!

전 세계 70 여개국 수백명의 학생들이 거쳐간 CSI 의 ESL 아카데미

인텐시브 영어 프로그램 & 아카데미 영어 프로그램

ESL 아카데미에서 실시하는 인텐시브 영어와 아카데미 영어 프로그램에서는 문화와 언어에 대해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프로젝트와 실험, 견학과 다양한 사회적 행사 참여를 통해 언어와 미국문화를 함께 이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학생들이 미국에서 전문적, 학문적, 사회적 기능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문화적 지식과 언어능력을 제공합니다.

ESL 아카데미에서 제공하는 여러가지

- J-1 비자를 포함한 F-1 비자로 변경
- 다른 학교로 이전 도와줌
- 해외에서 학생비자 취득 안내
- 공식적인 여름방학
- 여러 일정의 수업
- 기초영어부터 어드밴스 아카데미 영어까지 다양한 레벨



COMPUTER
SYSTEMS
INSTITUTE

지금 전화주세요 !

888-886-5740

esl.csinow.edu

Charlestown, MA • Worcester, MA
Chicago, IL • Skokie, IL • Lombard, IL

Computer Systems Institute is approved by the Division of Private Business and Vocational Schools of the Illinois Board of Higher Education and is authorized under federal law to enroll nonimmigrant alien students. Student visa and work authorization are issued to those who qualify. For more information about our graduation rates, the median debt of students who completed the programs, and other important information, visit our web site at: <http://www.csinow.edu/about-csi/consumer-information>. Program offering varies by campus.



1년 학비 \$3,300!!



NAMU
 꿈을 키우는 부동산
 NaMuRealEstate.com

2001 Beacon Street, Ste. 101
 Boston, MA 02135
 info@NaMuRealEstate.com
617.858.NAMU (6268)

Commercial · Rental · Purchase · Sale · Residential · Rental · Purchase · Sale

NAMU REAL ESTATE은 모기지(mortgage)와
 부동산 지식을 두루 갖춘 전문가들이 설립한 컨설팅 기업입니다.
 고객님의 주택 및 상업용 부동산 구매와
 렌트에 필요한 일반적인 절차와 금융관련 정보를
 쉽고 친절하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골치 아픈 부동산 매매를 믿고 맡겨 주십시오.
 고객님의 부동산 자산과 함께 성장하는
 나무 Real Estate이 되겠습니다.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주택 구매융자, 재융자,
 부채통합 융자
 Conventional Loan / FHA Loan
 / Portfolio Loan

상업 구매융자,
 재융자
 Conventional Loan
 / SBA Loan

류 영욱

Young Uk Lew
 NMLS#164694

Cell: 617.777.2929
 Fax: 617.284.6196
 ylew@indmortgage.com



Independent Mortgage

Boutique broker for individualized
 residential & commercial loans

경험과 신뢰를 자랑하는 보스톤의 모기지 박사

we arrange but do not make loans. The Commonwealth of Massachusetts,
 Licensed by the Division of Bank and Loan Agencies, NMLS #641207



레드삭스의 유망주 잰더 보거츠는 올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일 것이다

올해 레드삭스에 대한 희망찬 기대

31세인 시즈모어는 스프링 캠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이번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예상치 못한 선수가 15승 달성

존 레스터는 레드삭스에서 확실한 제1선발 투수다. 클레이 벅홀츠가 뒤를 이어 제2선발 투수 맡을 것이다. 두 선수 모두 이번 시즌에 15승에서 20승 정도를 챙길 것이다. 그러나 그다음은 예상해 보기가 쉽지 않다.

존 래키는 작년에 29경기에 선발 출전하여 방어율 3.52과 출루 허용률 1.16을 기록했다. 2007년 이후 최고 기록이다. 35세에 접어든 래키가 작년의 성공을 올해도 반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제4선발 투수가 유력한 제이크 피비는 지난 5년 동안 23경기 이상 출전한 적이 딱 한 번밖에 없다.

레드삭스가 아메리칸리그 동부지구 1위를 수성하려면 앞서 언급한 4명의 선발 투수 외에 믿을만한 선발 투수

가 1명 더 있어야 한다.

올스타 선수 다니엘 나바

2012년에 나바는 267번 타석에 들어서 타율 .243과 출루율 .352에 그쳤다. 그러나 지난 시즌 나바의 성적은 458타석에 타율 .303, 출루율 .385로 급상승했다.

지난 시즌 나바는 자니 고프스와 번갈아 가며 좌익수 포지션을 소화해 모든 경기에 출전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올해 중견수를 맡을 선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나바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가능성이 높다. 나바에게 풀타임 메이저리거로 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작년과 같은 수준의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다면 충분히 올스타 선수로 선정될 수 있다.

잭더 보거츠 전경기 출전

보거츠는 21세의 어린 나이에 작년 플레이오프를 뜨겁게 달구었다. 보거츠는 포스트시즌에서 출루율 .412와 장타율 .481을 기록해, 이 부문에서 데이빗 오티즈 다음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2013년에 주전 유격수였던 스티븐 드류가 미계약 프리 에이전트가 되면서 이제 보거츠가 주전 유격수 자리를 꿰찰 기회를 얻었다. 만약 3루수를 맡을 윌 미들브룩스가 지난 시즌처럼 저조한 모습을 보이면 보거츠가 3루수로 기용될 가능성도 있다. 올해야말로 보거츠는 자신의 진가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jsi@bostonkorea.com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정성일 기자 = 보스턴 레드삭스가 시범 경기를 시작으로 2014 시즌을 대비하기 위한 마지막 담금질에 한창이다. 영화 같은 작년 시즌의 성공에 이어 올해 레드삭스가 2년 연속으로 월드 시리즈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까?

리드오프 타자였던 재커비 엘스베리가 뉴욕으로 떠난 것을 제외하면 레드삭스는 비교적 조용한 오프시즌을 보냈다.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현재 전력에 자신이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1998-2000 시즌에 뉴욕 양키스가 3년 연속 월드 시리즈를 제패한 이후 아직까지 월드 시리즈를 2년 연속으로 제패한 팀은 없다. 레드삭스가 2년 연속 월드 시리즈를 차지할 수 있는 팀인지, 스포츠 전문 웹사이트 블리처스 리포트가 레드삭스에 대해 예상한 4가지를 살펴보자.

그래디 시즈모어, 개막전 주전 중견수

메이저리그 2년차인 재키 브래들리 주니어가 엘스베리가 떠난 중견수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러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브래들리 주니어가 지난 시즌에 보인 모습은 실망스럽다. 97번 타석에 들어서 .189의 타율에 .280의 출루율을 기록했다.

시즈모어는 2011년 이후로 메이저리그에서 본 적이 없다. 그러나 시즈모어는 2008년에 타율 .269, 홈런 33개, 타점 90점, 도루 38개를 기록했다. 아직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25 부인 잘만난 의병장 김천일(2)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임진년에 이르러 왜적이 쳐들어 오자 부인은 김천일에게 말하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영웅들과 교제하게 함은 이 같은 때를 당해 힘을 얻기 위함이니 의병을 창기倡起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시부모님들이 피신할 장소는 이미 마련해 두었으니 조금도 염려마시고, 군량미도 갖추어져 있으니 의병을 모집하라고 권했다. 김천일이 마침내 의병을 일으키니 원근에서 그간 은혜를 입었던 지인들이 모여 들어 사오천의 무리를 얻었다. 그리고 병사들에게 검은색을 칠한 박을 차고 나가 싸우게 하였다. 또한 회진回陳할 때는 쇠로 주물한 박을 길에 놓고 오게 하였다. 왜적들은 쇠박을 보고 놀랐다. 병사들이 모두 쇠박을 차고도 저렇게 날렵하게 움직이는데 가히 당하질 못하게구나 하면서 겁을 먹었고 왜적들은 김천일의 의병만 보면 바람앞의 풀잎처럼 쓰러졌다. 김천일이 기적적인 공을 많이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부인이 찬조한 힘 때문이었다.> 라고 청구영언과 계서야담에 전한다.

정사를 중심으로 김천일의 의병활동을 살펴보면 그는 1537년 나주에서 태어났다. 뛰어난 학문으로 조정에서 관직을 시작하여 지방에서 현감, 부사 등의 벼슬을 지내고 고향에서 말년을 보내다 임진왜란을 맞이하였다. 그는 호남에서 가장 먼저 의병을 일으킨 충의의 선비였다. 관군의 연패 소식을 들은 그는 1592년5월16일 나주에서 송제민, 양산숙, 박환 등과 300여명을 모아 북쪽으로 출정했다. 그때 그의 나이 이순을 바라보는 55세였다. 담양에서 의병을 일으킨 고경명과 함께 호남 의병의 쌍벽을 이룬 김천일은 국왕을 보호하는 일이 의병의 핵심 임무라 생각하고 계속 북상하였다. 한편 고경명은 전주에서 북상을 중지하고 금산전투에 참가하여 조선 선비의 기개를 떨치며 장렬히 전사하였다. 그는 전투의 실적은 없었지만 우리민족의 항전 의지를 보여줌으로 그후 많은 백성들이 의병에 참여하여 항전하였다. 호남지방을 중심으로 금산전투에서 순절한 고경명과는 달리 김천일은 고향을 떠나 전국 각처에서 관

군을 지원하고 또는 연합하여 항전을 계속하였다. 그리고 그의 의병활동은 실질적으로 여러 전투에서 많은 전과를 남겼다. 김천일의 부대는 계속 북상을 하면서 수원의 독산성을 거쳐 강화도로 들어갔다. 그리고 이후 도성부근 경기도 일대에서 소규모의 전투를 계속하였다. 특히 그의 부대는 왜적들에 의한 왕실의 능침도굴 방지에 크게 공헌하였다. 1593년 초에 명나라 제독 이여송李如松의 부대가 평양성을 수복하고 개성으로 남진할 때 도로와 지세, 적정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작전을 도왔다. 그리고 1593년2월에 벌어진 행주대첩 전투에도 합세하여 힘을 보탰다. 그리고 명군의 참전으로 전세가 불리해진 일본의 제의로 강화회담이 진행되었다. 이에 김천일은 조선의 사활이 걸린 문제를 명나라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려는데 항의하면서 우리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자주 국방의식을 고수하였다. 그리고 왜군들이 한양에서 철수하자 그들을 추격하였다. 김천일의 부대는 상주와 함안을 거쳐 계속 왜군들을 추격하였다

. 상주에 당도했을 때 그는 왜군들의 진주성 공격계획 정보를 입수하였다. 그는 ‘호남은 국가의 근본이요, 진주는 호남의 울타리 같으므로 의병의 못자리이며 군량의 원천인 호남을 살리기 위해서는 진주를 지켜야 한다.’ 는 판단하에 진주성으로 들어 갔다. 그리고 같은 해 6월 진주성에서 도절제사가 되어 관군과 의병들을 합동지휘하면서 임진왜란 중에서 가장 치열한 혈전을 벌였다. 그러나 같은 달 29일 성은 함락되었고 김천일은 아들 김상건, 고종후(고경명의 아들), 최경희(39) 등과 함께 남강에 투신하면서 장렬한 최후를 맞았다. 이후 왜군들은 진주성안의 6만 여명의 군관民軍官民을 학살하였다. 그들도 거의 다 소진된 전력으로 인하여 더 이상 진격하지 못하고 철수하였다.

이상이 1592년의 임진왜란과 1597년의 정유재란 중 대표적인 승병장과 의병장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활약상을 더듬어 보았다. 승군들을 이끈 승병장들은 모두 문무를 겸비하였고 그들을 따랐던 승병들은 모두 통통무어나 불무도佛武道를 연마한 무사들이었다. 또한 충의단심의 발로와 높은 기개를 가진 선비들이 일으킨 의병들도 선비들과 일반백성 그리고 많은 무사武士들이 합세하여 왜적에 맞섰다.

39) 경상우도 병마절도사, 논개의 남편 - 최경희의 본처 김씨가 논개의 재색에 감탄하여 지병으로 죽기전에 남편에게 소설로 맞을 것을 권유하였다. 어우당於于堂 유몽인 柳夢寅이 지은 ‘어유야담於野譚’ 에 논개가 왜장을 안고 남강에 뛰어들어 순국했다고 최초로 실려있다.

Mu Han

TOTAL MARTIAL ARTS, INC.

무한무도회



“To be the best of the best...”



ART SKILLS

World Taekwondo Federation
Korea Professional Taekwondo Federation
Korea Jing Wu Kung Fu Association
Korea Kyeok Too Ki Association
Korea Hapkido Association

LOCATIONS

Attleboro Mu Han Total Martial Arts

23 N.main St. Attleboro MA 02703
Ph) 508-226-0707, 508-226-0808

Franklin Mu Han Total Martial Arts

456 W.Central St. Franklin MA 02038
Ph)508-528-7772, Fax) 508-528-7797

Taunton Mu Han Total Martial Arts

147 Broadway Ave. Rte 138. Taunton MA 02780
Ph) 508-880-9200



TUSA Cup 2013

Facebook <https://www.facebook.com/MuHanMartialArts?rf=115870451838012>
U tube <https://www.youtube.com/user/MHtotalmartialarts>
Web site www.muhanmartialarts.com / www.franklinmartialart.com

Grand Master Kang

- 2011 – Pan-America Kukkiwon Grandmasters' Federation Executive Office
- 2010 – Korea Taekwondo Association(KTA)in USA, Secretary General
- 2007 – KTAin USA, Northeastern Regional Vice President
- 2006 – NEKTA (New England Korea Taekwondo Association) President
- 2006-2011 – Korean Taekwondo Association in USA Referee Chairman
- 2009 – Mu Han Martial Arts Director of Discipline
- 2008 – Hanmdang, International Referee (Kukkiwon, World TKD Academy)
- 2008 – TKD Hanmadang, Ambassador in U.S.A.
- 2007 – Greater Massachusetts State Taekwondo Association President
- 2007 – N.E.TaeKwonDo Association, President
- 2006 – TaeKwonDo 7th Degree Black belt (Kukkiwon)
- 2005 - U.S.T.L.U. New Hampshire State President
- 2004 – State of Georgia, Deputy Marshal
- 2004 – U.S.T.W New Hampshire State President
- 2003 – World Taekwondo Federation International Referee
- 2003 – USTU Referee of the Year
- 2002 – Featured Cover Story, Taekwondo Times Magazine
- 2001 – Korean Sports Council in USA, Taekwondo Team Director, Boston
- 1999 – Korean Sports Council in USA, Taekwondo Team Head Coach, New England
- 1991 – Kyuk Too Ki (Korean kick boxing) Master Certified
- 1991 – Kyuk Too Ki (Korean kick boxing) International Referee
- 1993 – Minister of Physical Education, Kyuk Too Ki Instructor's License
- 1990 – Director, Minister of Physical Education, Taekwondo Instructor's License
- 1989 – Master Instructor Certified by Kukkiwon



Grand Master Kang N. Kang



Master Oh

- 2002 Founded Mu Han Total Martial Arts
- 1999 Demonstrated in Canada and US
- 1998 1st International Team Pro Taekwondo in Korea
- 1997 Head Instructor in Pro Taekwondo Federation in Korea
- 1997 Taught Special Force 707 & Korea West Point
- 1992 1st Place -75kg Wu Shu Sparring Division in Seoul, Korea
- 1st Place Wu Shu Southern First Division in Seoul, Korea
- 1st Place Wu Shu Spear Division in Seoul, Korea
- 8th Degree Black Belt in Korean Professional Taekwondo
- 6th Degree Black Belt in Jeong Mu Kung-Fu
- Korea Taekwondo Association in USA International Office Chairman



Master Lee

- 2009 Mu Han Martial Arts Instructor
- 20 Years teaching experienced
- Taekwondo 5th Degree Black Belt(Kukkiwon)
- Demonstration in Europe
- Teacher Certification in Korea
- Certification for Convoy

공식협력업체 :

보스톤 정관장
대한민국 홍삼의 힘!
문의 전화 781-238-0303

NEWSTAR
Realty of Boston
Each office independently owned and operated
Vice President Kwang O Kim / 김광오
Direct: 617-792-8615

보스톤 한국콜택시
Boston Hankuk Jonghap Service, LLC

- 공항 픽업/관광 ● 소형 이삿짐/카지노
- 미니밴/승용차 ● 쇼핑물(아울렛 몰)

617.461.9270

한인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이민법 전문 변호사



스티브 서

비자 / 영주권
투자이민/취업이민
Lawcity7@gmail.com

617-877-3435

www.Stevesuh.com

Vol 10. No.10 March 7 2014

발행처 : The Boston Korea

한인들과 함께하는 좋은 신문 Bostonkorean@hotmail.com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775-8474

한진택배
HANJIN EXPRESS
보스톤 대리점

Tel 617.782.2424
175 Harvard Ave St14A, Allston, MA

선 가든 힐링센터

지 압
침
기치료

617-953-4988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이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 숨쉬는 한 가족 같은 사랑공동체에서 참 기쁨과 평화,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시겠습니까?

주일예배: 오후 12:30 담임목사: 최 형 략

보스톤 사랑의교회
www.bostonlovechurch.com
1 Church St., Wakefield, MA 01880 (978)869-2596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 781-648-0584

〈칼럼〉

통일로 가는길 ¹

윤상래 (yoonsville@aol.com)
전서울대동창회장, 윤상래 동물병원 원장

일본의 2차대전 패전으로 해방이 된 한반도는 1943년 12월 1일 미국, 중국, 영국간의 카이로 협정(Cairo Conference)의 국제 약속에도 불구하고 1945년 8월 10일 소련의 한반도 전체의 진출을 막기위해 당시 맥아더 사령관의 부하였던 딘 러스크 대령이 제의한 38선에 의해 뜻 아닌 양단의 운명을 맞게 되었던 바, 북괴의 6.25 사변으로 인하여 지난 60여년간 영구한 분단의 대립 상태를 이루어 오고 있다.

그동안 대한민국(남한)은 민주주의와 자유 경제 체제로 인류역사상의 전무 후무한 경제성장을 하여 왔으나, 북한은 3대 독재 세습주의와 통제경제를 지속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나라로 전락하여 왔다. 그동안 아사(餓死)로 2-4 백만이 죽었다는것은 여러 보도를 통해서 잘 알려진 사실이다.

전력이 부족한 북한은 마치 바다처럼 갇혀 있다.

북한 정권의 비인도적인 동포의 납치, 학살, 강간, 혹심한 고문, 강제 노동 등은 전 세계 인류의 지탄을 받아 오고 있는 바, 지난 2월 14일 유엔 인권옹호 위원장 MICHAEL KIRBY는 400여 페이지의 유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북한의 김정은 및 고위 지도자 등을 상대로 경고의 편지를 보낸 바 있다’ 고 밝혔다.

최근 유엔의 보고서는 우리 한인들에게는 새로운 것이 없으나 전 세계가 분노하는 북한의 인권 유린은 ‘나치 정권의 잔악한 행동과 다를 바 없다’ 로 단정할 만큼 잔혹한 것으로, 우리와 핏줄을 같이 타고난 한 민족으로서 분노와 걱정을 표현하기가 어렵다.

현 북한의 독재적인 3대 세습 체제를 보면, 통일이 없이는 우리의 북한 동포들이 이러한 인간 최악의 생지옥에서 헤어날 방도가 없는 듯하다.

근래 들어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많은 희망과 그리고 중요성을 우리는 읽어 오고 있다.

모든 글들은 한결 같이 ‘통일의 어려움’을 논하고 있으나 뚜렷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만큼 한반도의 통일은 어렵고 매우 복잡하기 때문이라.

세계 유명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붕괴할 것’ 이라고 예언을 하여 오고 있는데, 그 대표로는 STRATFOR THINK TANK 의 GEORGE FRIEDMAN 으로 그는 ‘북한은 10-15년 내에 붕괴될 것이다’ 라고 예고하고 있다. 러시아의 ‘세계경제, 국제관계 연구소(IMEMO)’ 도 “2020 년대가 되면 북조선은 없어질 것이며, 한국(남한) 주도 한반도 통일이 러시아 국익에 부합한다” 는 결론 보고서를 몇년 전에 발표한 바 있다.

RAND CORPORATION 의 BRUCE BENNETT 은 2014. 1. 29., The U.S. - 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청문회에서, ‘PREPARING FOR THE POSSIBILITY OF A NORTH KOREAN COLLAPSE’ 라는 제목으로 그를 대비한 전략적, 그리고 인권적인 방안을 역설한 바 있다.

최근 북한에서 일어 나고 있는 사태들은 북한의 붕괴가 더 빠르게 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는 바, 지난 12월 제 2인자였던 김정은의 고모부인 장성택의 처형이나 그의 측근자 1,000 여명을 처형했다는 한국 정보부의 보고에 의 하면, 매우 불안정된 북한의 체제를 알 수가 있다.

(다음호에 계속)



밤이 되면 사라지는 북한: 지난 1월 30일 NASA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508-740-9188

보스톤코리아 업소탐방

신청 방법:
전화번호 617-254-4654
bostonkorean@hotmail.com

코리아 여행사



617.267.7777
1.800.473.1922

오리엔트 여행사
Orient Travel

781.665.0004

145 Main st Melrose, Ma 02176
theorienttravel@yahoo.com

CHOISIGNS & DESIGN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 Car Sign, Lighted Box, All Types of Signs.

ART

간판 및 사인

617.470.1083
e-mail choisigns@yahoo.com

▶광고 마감 : 매주 화요일 오후 5시 (신문) ▶수표 보내주실 곳 : Payable to: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 Suite 13 Allston, MA 02134

알뜰 나눔터 안내

보스톤코리아는 2013년 5월 1일부터 새로운 알림광고 요금정책을 적용합니다. 보스톤 코리아 네이션 와이드 광고를 선택하시면 LA, 애틀란타, 뉴욕, 시카고, 애틀란타, 달라스, 시애틀 및 보스톤까지 총 미주 8개 지역의 오프라인 신문을 통해 광고를 동시에 내보내도록 합니다. 네이션 와이드의 광고는 총 5줄까지 가능하며 한 달 광고료는 \$50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N**은 보스톤 지역 외 네이션 와이드 광고임을 알려 드립니다. 만약 보스톤 지역 광고만을 원하실 경우 한 달에 \$30입니다. 결제는 그레딧카드로 하실 수 있으며 개인수표 또는 머니 오더 등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신문 광고 마감은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입니다. 보스톤코리아닷컴 광고는 신청 당일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사업의 시작은
이경혜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겨울에도 손님 많은 Nail Shop

JuJu Nails&Spa

지역: 웨슬리(Wellesley, 고급 동네, T Green-line D-line, Woodland Station 라이드 가능)
자격조건: 자격증 소지자 및 취득 가능한 젊고 참신한 남, 녀
기숙사 무료 제공
근무형태: 풀 타임 및 파트타임 (주 7일 오픈) 주중, 주말 및 원하시는 요일 하루도 가능함
급여: 주급제 (팁; 매상의 20% 보장제)
홀리데이 페이 및 보너스 지급
지원방법: 전화통화 후 내방

(347)892-0007
(774)208-3369

주방 쿡/주방보조 구함

주방 쿡(중식경험자)/
주방 보조(초보가능)
풀, 파트 타임 구합니다
(603)889.0055
(문의 3시 이후)

벌링턴지역 테일러 SHOP에서
테일러 기술자 구함 (초보자도 가능)
T. 631-525-7348

드라이클리닝 셔츠 홀세일합니다.
픽업 & 딜리버리
T. 978-766-6831

일류요리사와 웨이츄레스,
웨이터 구합니다.
T. 617-319-2833

We Buy Car

We buy used car for top money enen though they have high mil-iages and problems. Please call Sam at 508-725-8888. Speak English.

T: 617-777-7695

4989 부동산매매는 —————

뉴스타부동산

617-969-사구팔구

www.newstarrealty.com

**뉴튼 네일살롱에서
직원 모집합니다**

****초보자.기술자.중간 기술자.환영****
****자격증 소지 하신분.또는 취득 가능 하신분****

{저희 가게는 뉴튼에 위치하고 있으며 네일 살롱중 가장 단골고객을 많이 보유하고있는 6년차 가게 입니다.
주 7일간 오픈하며 풀타임에 한해선 (휴가, 및 공휴일) 페이도해드립니다.(파트타임, 토 일 하실분 환영)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617-678-4780/ 617-559-9953

사고 팔고

광고 문의 617-254-4654

Boston HTPC

데스크탑, 랩탑PC 수리
맥북, 아이맥 수리 및 윈도우설치
각종 데이터 복구 및 백업
인터넷 연결 및 공유기 설치

TEL 617-645-8885

N 주방헬퍼 구함

워싱턴주에 위치한
테리야끼에서 주방헬퍼 구함
숙식제공
509-432-4838, 509-432-4825

N 그로서리&테리야끼매매

페더럴웨이에 위치한
그로서리&테리야끼 매매
일매상 2,300불
매매가 199,500불
종업원 없이 부부가
운영할 수 있음
6일만 오픈
시애틀
부재시 메세지 남겨 주세요
253-250-8146

N [매 매]

픽업 스테이션 매매
위치 : 1 - 985 게인스빌, GA
개인사정으로 인한 급매
관심 있는 분만 연락
면적 900 sq
퍼브릭스 몰안에 위치
678-296-1669

N [매 매]

맛사지 Shop 매매
홀컴브리지, GA
좋은 로케이션
꼭 사실분만 전화 요망
방 5개, 오피스룸, 화장실 2, 드라이
사우나,스팀사우나,부엌 있음
706-464-0537

N [식당 임대]

살기 좋은 노스케로라이나(NC) 에서
시설 잘된 한국 식당을 오픈 하실분 연
락 바랍니다
연락처 : NC 상공회의소
919-349-3016

N [구 인]

한국마켓안에 있는 한식당 주방장 구함
월급 \$3,000 - \$4,000
가족처럼 일하실분 연락주세요
Warmer Roins, GA지역
615-714-8016

N 직원 모집

AutoCAD Drafter
- 건축 설계/Curtain Wall 경험자 우대
- Resume/문의사항:
cadjobs14@hotmail.com

N [유기농 농산물 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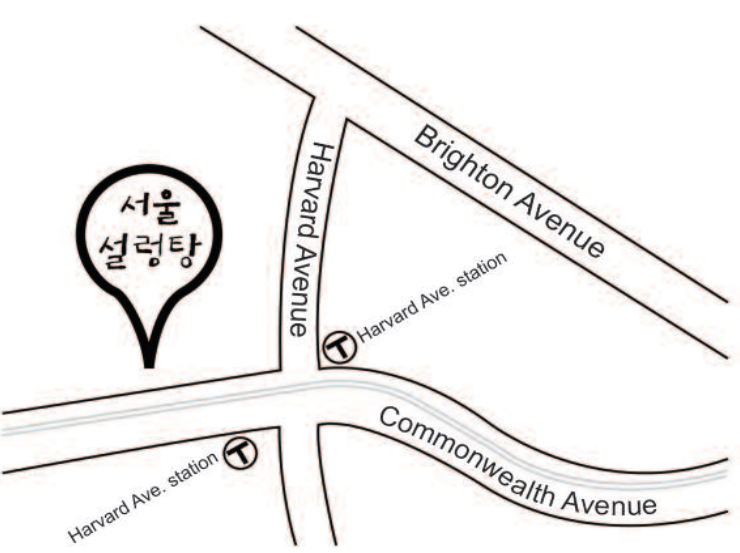
유기농 고추가루, 각종약재버섯,산채나
물 판매 합니다.

고추가루	1Bag	\$60
영지버섯	1Bag	\$100
대추	대	\$25
	소	\$20
고사리	1Box	\$120
취나물	1Box	\$100
질경이	1Box	\$90
비름나물	1Box	\$ 80

봄에는 생버섯도 주문 됩니다.
모든 작물을 유기농으로 재배하니 안심
하시고 주문 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H 915-751-0245,
C 915-539-8266

Beef Soup for the Soul 서울설령탕

자식이 아프거나 허약할 때
미국 어머니들이 치킨 수프를 끓여주시듯,
당신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좋은 설령탕 (Beef Soup)을 만들겠습니다.



1245 Commonwealth Avenue, Allston
617-505-6771

설령탕 갈비탕 육개장 도가니탕
수육 족발 보쌈
삼겹살구이 돼지갈비구이 양념갈비구이

한인 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긴급 주요 전화

가정폭력상담소(E.C. 33)	617-338-2352
견인	800-632-8075
고등교육위원회	617-727-7785
고등교육정보센터	800-442-1171
공중위생국	617-624-6000
구세군	617-536-7469
국세청	800-829-1040
날씨문의	617-976-6200
로간국제공항	800-235-6426
미아찾기	888-477-6721
백메이역	617-345-7958
보스턴공립학교	617-635-9000
보스턴수도	617-989-7000
보스턴시청	617-635-4500
보스턴총영사관	617-641-2830
사우스익	617-345-7958
사회보장국	800-772-1213
성폭행	781-237-9110
성폭행	617-492-8300
시간문의	617-637-123
아동보호	617-748-2000
아동학대	800-792-5200
알고음/마약	617-445-1500
여성학대	617-248-0922
운전면허	617-351-4500
펠레어	617-348-8500
자원봉사	800-522-8086
적십자	800-564-1234
전화신청 (Verizon)	800-941-9900
전화교장선교 (Verizon)	617-555-1515
택시	617-343-4475
AAA	800-222-4357
FBI	617-741-5533
MBTA	800-392-6100
NSTAR가스	800-572-9300
NSTAR 전기	800-592-2000
RCN케이블TV/전화	800-746-4726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인회	781-933-8822
뉴햄프셔 한인회	603-767-1356
로어일랜드 한인회	401-368-0467
메인한인회	207-756-0092
버몬트 한인회	802-734-2521

주요 단체

국채청(국채청장관회의)	978-407-7554
국채청(국채청장관회의)	603-889-8201
뉴잉글랜드폴리텍협회	617-438-9763
뉴잉글랜드공공안전위원회	978-902-8305
NE교육자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문인협회	978-688-3137
뉴잉글랜드 산악회	774-270-1948
뉴잉글랜드시민협회	508-962-2689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해병대전우회	617-833-1360
대행사추세초대권도협회	603-894-5425
민주평통보통협의회	413-535-0916
보스톤 대한체육회	617-326-9009
보스톤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미 노인회	978-994-5490
재미교향기(술자협회)	857-998-7043
재향군인회	339-298-7187
세탁인협회	508-826-5270
이복제도도민연합회	978-514-3399
한인학교도민협회	781-424-5269
F한인경제인협회	401-481-4900
한국인양자(동해(매인))	207-878-5652
6.25참전유공자회	978-725-9597

동창 향우 동호회

건국대학교동창회	401-738-8735
경기도고등학교동창회	508-995-7242
경기여고동창회	781-861-0437
경복고동창회	617-921-8799
고려대학교 교우회	617-795-1779
뉴잉글랜드 산악회	774-270-1948
배재중고등학교동창회	978-474-4780
보스턴 산악회	978-569-3256
보스턴한인사회관	617-789-4964
산사랑	774-270-1948
서강대동문회	978-314-9620
서울고 동문회	617-792-2635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서울신대대학교동창회	
성균관대동창회	802-734-2521
양정중고등학교동창회	508-541-6969

이화여고동창회	617-277-0730
이화여대동창회	978-390-1552
중앙대학교동창회	603-622-8883
강원도민회	617-875-1801
충청향우회	678-717-8800
한양대동문회	508-455-1490

언론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한인회보	781-933-8822
중앙일보(뉴욕)	718-361-7700
한국일보(뉴욕)	718-482-1111
Grapevine Times	781-548-9945

종교

가톨릭	
구세군 물든교회	617-792-8780
그린랜드 연합 감리교회	603-430-2929
글로벌 미션 보스톤교회	617-913-3074
나사렛사립교회	781-439-18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갈보리교회	413-789-9888
구세군물든교회	617-792-8780
그레이스연합감리교회	203-459-8517
그리니치한인교회	203-861-1134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나사렛사립교회	781-439-1840
내슈아한마음교회	603-888-80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잉글랜드한미교회	413-567-9142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뉴햄프셔장로교회	603-437-5134
뉴햄프셔한인교회	603-264-6799
라이코교회	978-387-1115
라이스한인침례교회	508-926-8236
로어일랜드상동교회	401-351-2347
로어일랜드제일교회	401-944-0520
R생명의길장로교회	401-821-2311
메리 맥 교회	978-806-1363
목양교회	617-233-1690
무지개교회	207-774-1617
밀알한인교회	978-244-0691
렉싱턴 동성교회	617-953-0856
버클랜드 침례교회	617-864-5948
보스턴 국제교회	617-459-6479
보스턴 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턴 사립교회	978-869-2596
보스턴 사랑제일교회	978-844-2404
보스턴 산성교회	617-997-6165
보스턴 새로남교회	617-947-6765
보스턴 새생명교회	978-777-1800
보스턴 생명의 교회	978-578-6987
보스턴서부장로교회	781-894-3958
보스턴 성결교회	781-275-8233
보스턴 성령교회	781-396-1004
보스턴 소망교회	
보스턴시온성교회	978-758-4541
보스턴산성교회	781-279-3270
보스턴 온누리교회	781-933-7044
보스턴웨슬레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턴 장로교회	508-435-4579
보스턴 제일교회	617-458-2733
보스턴 주의교회	617-966-9608
보스턴 중앙교회	617-230-5004
보스턴필그림교회	857-636-9985
보스턴 한인교회	617-739-2663
보스턴 한우리교회	978-454-0454
보스턴한인연합교회	617-923-9581
북부보스턴감리교회	978-470-0621

비전교회	617-308-2391
새빛교회	781-652-0001
새예루살렘교회	774-249-0022
선한목자장로교회	904-400-9386
성요한 교회	781-861-7799
순복음 보스톤교회	617-413-5372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413-789-452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781-781-2477
시온감리교회	401-739-8439
아름다운교회	617-869-8159
안디옥 교회	978-534-3394
열방교회	617-620-3352
에이여 베렐교회	978-274-2369
엘머스트 한인장로교회	978-549-6495
엘머스트 시온교회	413-549-9200
우스터 교회	508-799-4488
워싱턴프린티어 교회	918-876-2815
임마누엘 연합교회	978-394-3060
자연교회	603-437-6151
좋은땅교회	978-930-6613
지구촌방주교회	434-382-9450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하바드 한인선교회	617-441-5211

불교

문수사	781-224-0670
서운사	508-755-0212
심광사	617-787-1506

원불교

원불교보스톤성당	617-666-1121
----------	--------------

천주교

보스턴 한인천주교회	617-558-2711
로어일랜드한인천주교	401-499-8258

간판

조이스간판	617-470-1083
-------	--------------

건강식품

보스턴 정관장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	--------------

건축

글로벌건축	617-645-6146
김원태 건축사	617-620-8242
미남건축	508-650-8844
선아건축	508-230-5878
솔로몬 DRYWALL	978-761-0623
신중록 루팡사이딩 청문	617-999-9616
아놀드 건축	617-833-1360
파인항건축	617-688-6833
한센(南)	781-487-0101
ECO Construction	781-608-2971
E/Y 건축	617-590-3472
J.C건축	781-738-7871
J&D 인테리어	617-645-6661
LEE'S건축	617-538-0558

골프 개인

골프레스	617-458-2733
골프스쿨	617-775-5527

남궁연골프교실	978-474-4780
ABC골프	603-401-7990
최현주 골프 레슨	339-223-4700

공인 회계사

김양일 회계사	617-901-0707
김창근 세무사	781-935-4620
노성일공인회계사	781-863-2232
이현주 회계사	781-944-2442
이명원 회계사	617-455-8073
정진수회계사	508-584-5860
한미선회계사	617-792-2355
한성애회계사	617-283-7151

꽃

미스틱화원	617-666-3116
데코플라워	617-875-0648
앤더슨꽃집	781-894-1843

금융/부가지

인디펜던트(부영육)	617-777-2929
에이저 리	781-591-2722
이중수파이낸스	617-799-6158

냉동/에어콘/히팅

JK 플러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노래방

도레미노래방	617-783-8900
진 노래방	617-782-9282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턴공립도서관	617-539-5400

당구장

올스타당구장	617-782-0969
--------	--------------

동물병원

김문소 동물병원	978-851-3626
윤상대 동물병원	978-343-3049
제인시진 동물병원	978-658-5282

덱/잔치/빈찬

형제덱집	978-975-3303
장음식주문	781-648-0584
한아름	617-547-8723

미용실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스스킨케어	978-468-0039
그레이스커팅클럽	617-331-1011
딘오 헤어살롱	617-206-4560
뷰티클 헤어살롱	857-284-3879
세리 미용실	617-676-7374
압구정동얼굴방	617-437-0378
웨스트메인헤어	508-734-0446
타케이헤어디자인	508-768-7675
프로페셔널헤어디자인	978-772-7886
헤어 스크린	617-787-1735
헤어 센스	617-737-1220
헤어 Collage	617-354-4660
미용실 코리아LEE	617-913-3559
AYER BEAUTY SALON	978-772-6555
최지희헤어스타일	617-818-5596

돌상 대여

해피돌상	617-583-2339
------	--------------

방송국

엔티비보스톤사육국	617-650-6656
한국디지털위성	617-567-1346

변호사

김공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국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박현종특허변호사	978-474-8880
성기주변호사	617-504-0609
스티브시 변호사(이민법)	203-852-9800
워드랜드/맥커맨변호사	203-324-6155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정선진변호사	617-230-0005
피터전변호사	203-386-0503
JOHN DOWNEY 법률사무소	647-964-5809
STEVEN S. KIM 변호사	617-879-9979
Joy Lee 변호사	617-624-0292
Young Lee Danesh	617-367-4949

병원

가정의	
그레이스 김 가정의	978-475-5656
내과	
오상익	617-632-1070
허버트앤드(이)매우	617-421-2282
한서동내과	401-722-0305
산부인과	
최의웅산부인과	401-726-0600
이윤노산부인과	508-427-3000
소아과	
장경이 소아과	978-687-2119
심리상담	

배주은신경정신과	617-566-1055
심리상담	
양미아휠릴리카운셀링	508-728-0832
임나경심리상담소	617-738-9622
재활의학	
가족물리치료병원	781-365-1876
닥터스통증병원	617-731-1004
성진우척추신경전문	978-688-6999
추 남남 D.C.	617-230-4250

치과	
김동원치과	978-689-9363
김정규 치과	860-623-2601
브라이언윤치과	978-655-1583
신영목 치과	617-265-5606
안 치과	781-647-8000
엑셀패밀리덴탈	617-471-6970
이영환치과	508-987-8228
이요셉치과	781-431-7295
케임브리지덴탈	617-492-8210
케임브리지덴탈어스	617-871-1482
퀸지스치과	617-471-2184
퍼스트코스미덴탈그룹	781-273-2233
프루팩트덴탈그룹	617-576-5300
한은애고정치과	781-894-1127
아이콘덴탈	781-861-8978
ASHLAND FAMILY DENTAL	508-881-7272
장승혁보철임플란트	617-489-1470
전문치과	401-729-2711

기타	
메모리병원(병리)	203-330-8080

보석

국제보석상	617-523-2553
메타판보석	617-298-6661
우리보석	781-272-2400

보험

고영복(메트라이프)보험	978-646-3042
스티브(남술)김(뉴욕생명)	617-538-7851
이문환 보험	781-325-3406
조종은 종합보험	781-255-1134
베스트코스인종합보험	617-782-8800

비디오

나비스(촬영/편집)	617-756-5744
------------	--------------

부동산

가나안부동산(손득한)	617-290-0623
김중희부동산	978-866-7789
김현구부동산	617-694-0985
김현정부동산	617-388-8527
백영주부동산(뉴스타)	978-239-0141
송기백부동산	781-510-9924
송현미부동산	617-835-7664
순옥원부동산	508-737-8636
신현철부동산	617-94

한주간



시청률 순위

2014년 2월 24일 ~ 3월 2일



1위
KBS1 일일드라마
사랑은 노래를 타고
27.9%



2위 SBS 드라마스페셜 별에서 온 그대 27.1%



2위 KBS2 주말연속극 참 좋은 시절 27.1%

4	MBC	월화특별기획(기황후)	27.0%
5	KBS1	KBS9시뉴스	19.4%
6	KBS2	일일드라마(천상여자)	17.8%
7	SBS	정글의법칙더헝거게임	16.4%
8	SBS	특별기획(세번결혼하는여자)	15.7%
9	KBS2	개그콘서트	15.3%
9	MBC	주말특별기획(황금무지개)	15.1%

* 한국 TV KBS, MBC, SBS를 월 \$24.99에 볼 수 있는 안TV (617-955-9112) 지금 신청하세요!

한주간 인기 차트 순위 10

01 씬	소유
02 Mr.Mr.	소녀시대
03 너의 모든 순간	성시경
04 Come Back Home	2NE1
05 보름달	선미
06 안녕	효린
07 너 아님 안돼	2NE1
08 Something	걸스데이
09 Can' t Stop	씨엔블루
10 Let It Go	Indina Menzel

숫자 퍼즐 (Sudoku)

9			8					2
		6			7	3		
1				9		7		6
6		4		8			7	
		3				5		
	1			5		6		3
8		7		2				4
		1	4			8		
3					8			7

3월 9일 - 3월 15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쥐띠 | 솔직한 모습을 보이면

●운수: 일과 근심걱정에 쫓겨서 쉴 틈이 없는 때이니 과로는 삼가고 건강에 신경을 쓰도록 하세요. ●금전: 무작정 다른 사람들의 말만 듣고 남이 하는 대로 따라가면 결국에는 고생만 하고 득이 안 되는 시기입니다. ●애정: 구차한 변명이나 핑계를 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일에 책임을 지고 솔직한 모습을 보이면 오히려 잘 해결될 것입니다. 84, 72, 60, 48, 36년생은 10, 14일 길일. 9, 12일 주의.



소띠 |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는

●운수: 나보다 못한 사람도 많지만 또한 잘난 사람도 많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자연스럽게 행하면 대인관계를 폭 넓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전: 너무 물질적인 것에 얽매인 생활을 하지 않도록 하세요. 작은 것에 욕기다 보면 큰 것을 잃게 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애정: 황홀한 꿈이 현실로 나타나니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는 시기입니다. 85, 73, 61, 49, 37년생은 11, 15일 길일. 10, 13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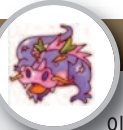
범띠 | 땅을 파다가 금을 얻는

●운수: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빛이 보이고 있습니다. 가고 싶은 곳은 가고 하고 싶은 일은 과감히 하도록 하세요. ●금전: 땅을 파다가 금을 얻는 것과 같이 뜻밖의 상황에서 금전운이 따라주니 소독을 올릴 수 있습니다. ●애정: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도록 하세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면 진실은 알게 된 상대는 진한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9, 12일 길일. 11, 14일 주의.



토끼띠 |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운수: 내일을 위해 일을 해야 할 때입니다. 한곳에 머무르지 말고 바쁘게 움직이면서 새로운 아이템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금전: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는 시기이지만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해놓아야 할 것입니다. ●애정: 남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잘 들어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상대방이 한 말 속에 길이 있고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87, 75, 63, 51, 39년생은 10, 13일 길일. 12, 15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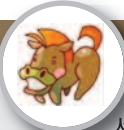
용띠 | 편안하게 받아들일

●운수: 목표를 세웠는데 아직까지 아무 것도 하지 않은 것이나 도중에 포기한 것 등을 되돌아보고 시도해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금전: 경제적인 문제가 서서히 해결되고 있습니다. 나갔던 돈도 들어올 것입니다. ●애정: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 스스로가 성숙해지는 일입니다. 자신의 내면이 깊어지면 상대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88, 76, 64, 52, 40년생은 14, 15일 길일. 10, 13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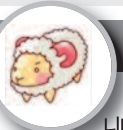
뱀띠 |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운수: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잘라야 할 것입니다. 양보하거나 망설이면 계속 밀리게 되거나 얻고자 하는 것을 이루지 못합니다. ●금전: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서두르지 마세요. 일 처리에 있어서 순발력을 잘 발휘하면 유리하게 바뀔 것입니다. ●애정: 사랑이란 진정한 마음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비밀이 있다면 서로에게 불행한 일입니다. 89, 77, 65, 53, 41년생은 12, 15일 길일. 14일 주의.



말띠 | 스스로 만드는 것이

●운수: 다른 사람에게서 특별한 것을 기대하지 않도록 하세요. 스스로 만드는 것이 특별한 것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금전: 거실에 있어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손해가 없을 것입니다. ●애정: 새로운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지요. 기존의 것이 더 좋을 때이니, 더 많은 것에 욕심을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할 것입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11, 13일 길일. 9, 15일 주의.



양띠 | 기쁘고 반갑고 고마운

●운수: 즐거운 일이 많이 생기는 때이니 기대해도 되겠습니다. 기쁘고 반갑고 고마운 소식도 듣게 될 것입니다. ●금전: 돈이 붙는 주입니다. 자신의 감각을 잘 살려서 행동에 옮기면 금전적인 행운이 따라 줄 것입니다. ●애정: 상대방에서 호감을 가지고 이쪽의 화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전달해주세요. 91, 79, 67, 55, 43, 31년생은 9, 12일 길일. 10, 14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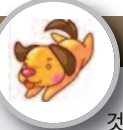
원숭이띠 | 신중함이 요구되는

●운수: 차분하고 꼼꼼하게 일을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덮어놓고 넘어가면 순간은 편하나 나중에 화근의 씨앗이 됩니다. ●금전: 금전 문제는 직접 맞닥뜨리는 것이 좋으며 투자 기회가 왔다는 생각이 들어도 재검토하고 결정하는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애정: 현실을 거부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어차피 받아들여야 할 사실이면 하루 빨리 인정하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10, 15일 길일. 9, 11일 주의.



닭띠 | 내일의 해가 뜨는

●운수: 오늘은 해가 지더라도 내일의 해가 뜨는 법입니다. 기회는 만들어 내는 것이니 자신감을 잃지 않도록 하세요. ●금전: 알을 까기도 전에 병아리부터 세고 있군요. 아직은 큰 소득을 기대할 수 없는 때이니 좀 더 기다리도록 하세요. ●애정: 무엇보다도 자신의 진솔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좋을 것입니다. 이성문제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10, 11일 길일. 9, 12일 주의.



개띠 | 생활이 차츰 밝아지고

●운수: 때로는 유유자적한 세월을 보내야 할 시기도 있습니다. 조용히 휴식을 취하면서 에너지를 재충전해야 합니다. ●금전: 욕심을 부릴 때는 매물처에 행하고 포기할 때는 과감하게 미련을 버려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빠른 행동이 결과적으로 좋을 것입니다. ●애정: 막막했던 상태에서 마음의 의지가 되는 사람을 만나 생활이 차츰 밝아지고 있습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9, 12일 길일. 10, 13일 주의.



돼지띠 | 마음으로 느끼게 되는

●운수: 격려와 칭찬은 주변을 환하게 밝히고 사랑의 말은 어떤 상처도 치유할 수 있는 약이 된다는 체험하게 됩니다. ●금전: 지난날에 기울인 노력의 보람을 찾게 될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작은 것을 구하면 큰 것을 얻게 되겠습니다. ●애정: 조금씩 이성으로 가까이 다가오는 상대를 마음으로 느끼게 되는 시기입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9, 13일 길일. 11, 14일 주의.



김연아-김원중 열애, 소속사 공식 인정 김연아 사랑에 빠지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양성대 기자 = '괴여왕' 김연아(24)가 아이스하키 선수 김원중(30)과 사랑에 빠졌다

올댓스포츠는 6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디스패치에서 보도한 김연아 선수의 열애 보도기사와 관련하여, 기사의 내용은 대부분 사실이며 김원중 선수와 교제 중임을 말씀드립니다"라고 열애를 인정했다.

6일 연예 전문 매체 디스패치는 김연아의 다정한 데이트 현장을 포착해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연아는 지난 2012년 태릉선수촌에서 김원중과 처음 만났고 함께 저녁식사를 하는 등 데이트를 즐겨왔다.

김연아의 남자친구 김원중은 김연아와 고려대학교 동문으로 아이스하키 국가대표 포워드로 활약 중이다. 대학 졸업 후 안양 한라에서 활약했고 지금은 국군체육부대 소속이다. 180cm가 넘는 키에 단단한 체격, 또렷한 이목구비로 일본에서



도 인기를 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원중은 지난 2011년 제7회 아스타나-알마티 동계아시안게임 남자 아이스하키 대표로 출전해 동메달을 목에 걸었으며 2012년 폴란드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 디비전1 B그룹 우승을 이끌기도 했다.
s.yang@bostonkorea.com



휴먼 다큐멘터리 '닥터스 스토리' 첫 방송

는 첫 회에서는 "췌'이는 의사 vs 시작하는 의사' 라는 주제로 호스피스 의사와 산부인과 의사의 이야기를 보여준다.

먼저 현대의학으로는 더 이상 치료할 수 없어 죽음이 예정된 환자들이 고통 없이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는 대구의료원 호스피스센터장 김여환 의사의 2박3일을 들여다본다. 촬영 첫 날 운명을 달리한 할머니, 56년을 함께한 아내의 마지막을 지키기 위해 요양원에서 지내는 남편의 사연이 공개된다. 또한 호스피스 의사가 되기까지 23년이나 걸린 사연과, 호스피스 의사가 되는 것을 극구 반대했던 가족들도 만나본다.

이어 생명의 탄생을 마주하는 인천 고은여성병원의 원장 고은선 산부인과 전문의를 소개한다. 밀려드는 왜래 환자 and 언제 나올지 모르는 아기, 르바이에 분만(자연분만)을 위해 애쓰는 모습, 어쩔 수 없이 제왕절개 수술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산부인과 전문의의 고뇌를 엿보고 산모의 이야기도 들어본다.

s.yang@bostonkorea.com

SBS 짹 여성 출연자, 프로그램 제작 도중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양성대 기자 = '남녀 짹짓기 리얼 버라이어티 다큐' 프로그램인 SBS '짹'의 여성 출연자가 프

그램 제작 도중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5일 오전 2시10분쯤 '짹' 여성 출연자인 전모(29·회사원·경기도)씨가 제주도 서귀포시 하예동 B펜션 2층 객실 화장실에서 숨져 있는 것을 동료 참가자와 담당 PD가 발견해 신고했다. 경찰은 이 출연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발견 당시 화장실 문은 잠겨 있었고, 안에선 물 소리가 나고 있었다. '사위를 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동료 여성 출연자 혼자서 동전으로 문을 열었는데, 전씨는 벽에 설치된 1.8m 높이의 샤워기에 헤어드라이기 전선줄로 목을 맨 상태였다. 전씨는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 판정이 내려졌다. s.yang@bostonkorea.com

천지보살

운명
사주
궁합
점

전화예약 617-947-6799

전화로도 상담해드립니다



웨딩 비디오 예약 접수중

50%
Sale



추억은 영화다

정지된 사진도 음악과 만나면 멋진 영상앨범이 됩니다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모아 영화를 만들어 보세요
* 오래된 사진도 복원해 드립니다

영상촬영 / 편집전문 원도우 동영상 / 유튜브 / 인터넷동영상

나비스 617.756.5744 ozic@hotmail.com



김원태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 NCARB • CDT • LEED AP
Design • Construction • Management

건축
&
시공



15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무료상담 및 견적
하우스 리모델링
각종 건물 신축 • 증축 • 개축

otk212@gmail.com 617.620.8242



NEWSTAR BOSTON

미주 최대 한인 부동산 그룹 / 20여년 역사 / 1500명 이상의 에이전트 / 연30억불의 매출실력 / 50여 지역 미국지사 / 한국 및 캐나다 지역지사

전 미주 지역의 Network과 Teamwork 그리고 다년간의 경험과 New Star 부동산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의 성공과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영주
617-921-6979



Kwang O Kim
617-792-8615



Joanne Song
206-734-1407



Sue Rong Tsai
617-792-8842



Yukai Sun
860-830-8599



송경빈
978-844-1508



이제봉
781-654-5281



애나 정
617-780-1675



최진민
617-877-0387



Ritika Chopra
617-697-1191



Michael Yun
617-459-5985



Qiang Ma
617-319-7367

단독주택 Single Family



\$459,900
Canton, MA
2 Beds, 2.5 Baths, 2275 sf.
고급스럽고 넓은 실내 공간
햇볕 잘 드는 밝고 아늑한 집
이현주 401-935-3397



\$210,000
Weymouth, MA
3 Beds, 1 Baths, 1180 sf.
Beautiful ocean view
Jin Choi 617-877-0387



\$725,000
Sudbury, MA
3 Beds, 4 Baths, 3072 sf.
잘 관리된 넓은 공간의 집
Perfect place to live and work
Jason Jeon 617-642-5670



\$1,089,900
Lexington, MA
4 Beds, 2.5 Baths
좋은 학군, 햇빛 좋은 남향집
Near I-95, H-mart
Anna Jung 617-780-1675

단독주택 Single Family



\$710,000
Sharon, MA
2 Beds, 3.5 Baths, 1969 sf.
미주 살기 좋은 도시 1위
이현주 401-935-3397



\$789,000
Newton, MA
5 Beds, 4.5 Baths, 2450 sf.
Spacious home for big family
Anna Jung 617-780-1675



\$480,000
Quincy, MA
3 Beds, 2.5 Baths, 2448 sf.
조용하고 깨끗한 콘도
Low condo fee
Jason Jeon 617-642-5670



\$319,900
Northborough, MA
2 Beds, 2 Baths, 1640 sf.
좋은 가격의 고급 콘도
Michael Yun 617-459-5985

콘도 Condominium



\$789,000
Boston, MA
2 Beds, 2 Baths
Luxury elevator condo
Sue Rong Tsai 617-792-8842



\$850,000
Cambridge, MA
2 Beds, 2.5 Baths, 1374 sf.
깨끗하고 좋은 구조의 콘도
Joanne Song 617-797-3562



\$149,900
Westminister, MA
3 Beds, 2 Baths, 1200 sf.
조용하고 아담한 타운 하우스
Kwang O. Kim 617-792-8615



\$215,000
Chelmsford, MA
2 Beds, 1.5 Baths, 1152 sf.
업데이트된 roof, water tank
나원태 617-642-3156

Investment

E-2 & EB-5 투자
문의: 781-259-4989

Condo

Cambridge/ **\$460,000**
2 beds, 2 full baths
Greenline extension
Jason Jeon 617-642-5670

Condo

Cambridge/ **\$349,000**
Charming 1 bedroom condo
Close to Harvard Sq.
Joanne Song 206-734-1407

리커스토어

Allston
\$1,000,000
S.J Park 617-304-7001

차이나타운 식당

건물까지 가능
보스톤에 5개 뿐인
24시간 영업 허가
S. J Park 617-304-7001

Cleaner

\$220,000
Milford, 건물 가능
주차공간, 사무실
S.J Park 617-304-7001

Drop off Store

Sharon, MA/ **\$18,500**
급매, 좋은 위치
Potential to grow
Jason Jeon 617-642-5670

Restaurant

\$320,000
엘머스트 downtown/ 일식당
Beer Wine License
Won T. Ra 617-642-3156

Lexington Office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Tel. 781.259.4989 Fax. 781.259.4959
www.BostonNewStarRealty.com

Newton Office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Tel. 617.969.4989 Fax. 617.969.4959
www.NewStarRealty.com

Agent 모집합니다. 781.259.사구팔구 617.969.사구팔구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www.BostonNewStarRealty.com
www.NewStarRealty.com

미주 최대 한인 부동산 그룹 / 20여년 역사 / 1500명 이상의 에이전트 / 연30여년의 매출실적 / 50여 지역 미국지사 / 한국 및 캐나다 지역지사



김형진
781-956-0409



박성종
617-304-7001



제이슨 전
617-642-5670



헤이즐 승
617-895-7676



Shell Yu
781-526-24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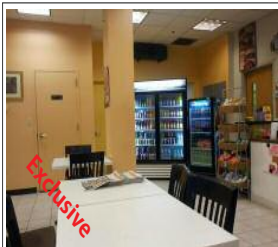
황수진
617-538-6973

Cart Business in Mall



\$80,000
Boston, MA
Downtown Mall 안에 위치
Hot business spot
Anna Jung 617-780-1675

Restaurant



\$250,000
Boston, MA
Boston downtown 중심에 위치
Great potential to grow
Jason Jeon 617-642-5670

Business Consulting



**레스토랑
셋업 컨설팅**
SJ Park 617-304-7001

비즈니스+주택



\$589,000
Weymouth, MA
Full plant dry cleaner +
2 Residential units
Won Ra 617-642-3156

Drop off Store



\$50,000
Wakefield, MA
Wakefield center에 위치한
drop off store
Jin Choi 617-877-0387

Full Plant 세탁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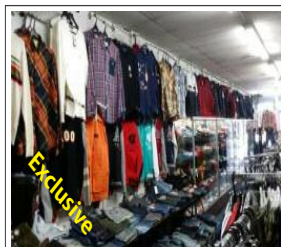
\$300,000
West Boylston, MA
고정 손님 많고 잘 운영되는
풀 플랜트 세탁소
낮은 운영비, 좋은 수입
Jason Jeon 617-642-5670

Drop off Store



\$60,000
Concord, MA
Located in a busy shopping-
mall close to Concord center
Jin Choi 617-877-0387

Clothing Store



\$100,000
Mattapan, MA
안정적인 수입
모든 inventory 포함
Jason Jeon 617-642-5670

Ca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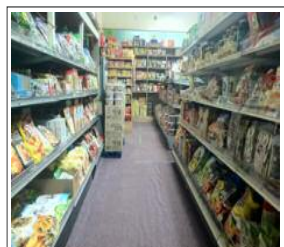
\$250,000
Boston, MA
Cafe w/ 프로즌 요거트,
버블 티, 아이스크림
Anna Jung 617-780-1675

Restaurant



\$690,000
Allston, MA
맥주, 와인, 소주
SJ Park 617-304-7001

Grocery



Ask agent for price info.
Allston, MA
1100 sf.
Hot Business Spot
Anna Jung 617-780-1675

Jewelry Business



\$99,999
Natick, MA
좋은 위치, 잘 운영되는 비즈니스
New owner를 위한 training 제공
Michael Yun 617-459-5985

Investment

E-2 & EB-5 투자
문의 781-259-4989

Full Plant Cleaner

\$100,000
Weymouth, MA
잘 운영되는 비즈니스
Jason Jeon 617-642-5670

Convenience Store

\$120,000
Worcester downtown
Great business potential
Won T. Ra 617-642-3156

울스톤 식당

건물까지 가능
플리커, 450 capacity
현 1.85M 매출
SJ Park 617-304-7001

Full Plant Cleaner

\$200,000
Middleton, MA
Middleton mall 내 위치
Jason Jeon 617-642-5670

커머셜

커머셜 건물 투자
SJ Park 617-304-7001

울스톤 역 앞

5,000 Sf.
빈자리 렌트
최고 한인 비즈니스 자리
SJ Park 617-304-7001

APT Rental

보스톤 아파트 전문가!
가격, 지역, 방 갯수 등 원하시는
조건에 맞추어 찾아드립니다.
David Kim 781-956-0409



나원태
617-642-3156



Steve Yoo
617-386-3451



신보경
508-361-6064



Claudia Lee
617-817-사구팔구



이현주
401-935-3397



Gina Choi
978-866-3248

최고의 실력과 탄탄한 경력을 갖춘 에이전트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곧 전화하세요 !!!

오늘, 다시 읽는 미국사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소피아
us.herstory@gmail.com

칼럼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WisePrep 소피아선생님 (617-600-4777, us.herstory@gmail.com)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AP 준비하기 (1) 차이에 주목하는 식민지 시기

AP US History의 경우, 이번 5월에 치러지는 게 기존의 포맷으로 시행되는 마지막 테스트다. 칼리지보드에서는 AP 수강이 칼리지 크레딧에 대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AP 미국사의 수업 방향과 시험 포맷을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개정안에는 각 단원별로 제시된 학업 성취 목표 (Learning Objective), 학생들의 역사적 사고 능력 (Historical Thinking Skill) 및 테마에 대한 이해 (Thematic Learning) 함양, 컨셉 이해 등의 목표가 설정되었다.

새로운 포맷의 AP 미국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세하게 다룰 기회가 있을 것이다. 다만 반드시 일러두고 싶은 것이 있다. 개정 AP의 포맷, 혹은 이를 염두에 둔 수업 방향 등은 여러 모로 새롭고 명쾌하다. 그러나 기존 포맷의 AP 시험에서, 특히 에세이 문제에서 성공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들은 시대별로, 각종 테마별로, 맥락에 따라 역사를 이해하는 눈을 키운 학생들이었다는 점을 잊지 말자.

그러므로, 작년 이맘때도 언급했지만, AP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기출 DBQ 및 FRQ 에세이 주제들을 검토해보는 것이 좋다. 동일한 에세이 지문이 다시 제시되지는 않지만, 기존에 출제되었던 문제는 객관식문제를 통해 혹은 다소 변형되거나 과거 문제와 겹치는 에세이 지문을 통해 다시 등장하기 때문이다. 또한 에세이 주제들을 정리하면서 미국사에 대한 시대별, 테마별, 그리고 맥락별 이해가 다시한번 깊어지게 마련이다.

어쨌건 AP US History를 치르는 학생들이, 이제 막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다면 지금쯤 “미국의 역사 이전의” 미국사에 대해 정리할 시기다.

식민지시대 관련 에세이 주제들

오늘날의 미국 동부 연안이 <영국령 북미 식민지>로 탄생하고 성장했던 1607년에서 1754년까지의 시기는 “식민지시대”로 분류한다. 이 시대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주로 출제되었던 내용들은 북미 식민지들 간의 (지역별) 차이와 유럽 열강들이 식민지를 개척하는 스타일상의 차이를 묻는 한마디로 식민지의 다양성이 중요했다. 다음은 이시대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출제되었던 에세이 지문들이다.

<유럽 열강의 미대륙 정착/식민지 건설상의 차이>

• Although New England and the Chesapeake region were both settled largely by people of English origin, by 1700 the regions had evolved into two distinct societies. Why did this difference in development occur? (1993년, DBQ)

• Analyz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Spanish settlements in the Southwest and the English colonies in New England in the seventeenth century in terms of TWO of the following: Politics/ Religion/ Economic Development (2006년, FRQ)

• Early encounters between American Indians and European colonists led to a variety of relationships among the different cultures. Analyze how the actions taken by BOTH American Indians and European colonists shaped those relationships in TWO of the following regions. Confine your answer to the 1600s: New England/ Chesapeake / Spanish Southwest / New York and New France (2008년, FRQ)

• Analyze the cultural and economic responses of TWO of the following groups to the Indians of North America before 1750: British / French / Spanish (2000년, FRQ)

<정치, 경제, 사회적 차이에 따른 각 식민지의 발전>

• Settlers in the eighteenth-century American backcountry sometimes resorted to violent protest to express their grievances. Analyze the causes and significance of TWO of the following: March of the Paxton Boys / Regulator movement / Shays' Rebellion / Whiskey Rebellion (2007년, FRQ)

• Compare and contrast the ways in which economic development affected politics in Massachusetts and Virginia in the period 1607-1750. (2005년, FRQ)

• How did economic, geographic and social factors encourage the growth of slavery as an important part of the economy of the southern colonies between 1607 and 1775? (2001년, FRQ)

<식민지의 발전과 종교의 역할>

• In what ways did ideas and values held by Puritans influence the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of the New England colonies from 1630 through the 1660s? (2010년, DBQ)

• Analyze the extent to which religious freedom existed in the British North American colonies prior to 1700. (1998년, FRQ)

• Compare the ways in which religion shaped the development of colonial society (to 1740) in TWO of the following regions: New England / Chesapeake / Middle Atlantic (2002년, FRQ)

보청기가 필요 하십니까?

Dr. 문소라 (Alysia Moon, Au.D CCC-A)

hear here.

- board-certified audiologists
- all major hearing aid brands
- 30-day trial period
- up to 4-year warranty



Moon Hearing Services

23 Warren Avenue, Suite 130 • Woburn
(located in the Choate Medical Center)

Call (781) 573-EARS (3277)



MOON HEARING
SERVICES



www.moonhearing.com

“매주 2만여명의 독자를 직접 찾아갑니다”



보스톤코리아 이메일 발송 서비스

– 2만여 회원들에게 인터넷 지면보기 전세계 어디서나 볼 수 있어
보스톤 코리아가 매주 신문 발행과 함께 이메일로 2만여 회원들에게 인터넷 지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매주 새로운 소식을 전세계 어디에서나 웹사이트에서 또는 지면보기로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 새로운 소식, 깔끔한 디자인
새로운 소식을 깔끔한 디자인으로 전해드립니다. 컴퓨터는 물론 태블릿, 스마트폰에서도 저희 보스톤코리아를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보스토티안 2014도 볼 수 있어
보스톤 및 미주 생활 가이드로 교육에서 의료 그리고 각종 생활정보를 eBook 또는 보스톤코리아 웹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보스톤코리아 보기가 어려우시나요?

이제 이메일 주소로 신청하세요!

픽업 장소가 마땅치 않아 보스톤코리아를 보지 못하시는 분들은 bostonkorean@hotmail.com으로 이메일 보기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글쓴이: 정철화, Ph.D.
978-726-6979
jungc811@hotmail.com
Stow Acres Country Club
58 Randall Rd, Stow, MA 01775

살기 위해 먹는가 먹기 위해 사는가?

사람들을 가끔 볼 수 있다. 즐기 위해서 혹은 건강에 도움을 주기 위해 골프장에 온건지 아니면 골프라는 것에 목이 매여 끌려 다니는 것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두가지의 극과극의 현상을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그야말로 하기 싫는데 억지로 하는 경우다. 속마음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밖으로 표출되는 모양이 마음이 실리지 않으면 골프를 하는 즐거움에 동참할 수가 없다. 골프의 깊은 즐거움에 들어갈 수 없는 또하나의 경우는 그정반대의 경우다. 골프라는 운동에 마음과 시간을 모두 빼앗겨서 삶의 균형을 잃어버린 경우다. 흔히들 그렇게 한 번 빠져봐야 싱글골퍼가 된다고 하니 그럴수도 있지만 그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추해질 수 있다. 골프의 스윙에 있어서도 균형이 매우 중요하듯이 골프라는 운동을 하는데 있어서도 삶의 한부분으로서의 균형감 있는 열심이 매우 중요하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자. 실제로 골프 라운딩을 하는데 있어서의 행동 방식 하나하나에서 과한 욕심이 있는 경우도 있다. 열심히 자신의 공을 치면서 라운딩 하는 그 자체는 참 아름다운 모습이다. 하지만 그것이 다른 동반자들과의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그 열심이 자칫 광기 섞인 열심이 될 수도 있다. 한



마디로 자기 자신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골프를 하라는 말이다. 골프 에티켓이라는 것이 바로 그 배려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표시하는 것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그것은 그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신에게도 동반자들의 배려의 마음과 행동들이 보답으로 돌아오게 되어있다.

식탁에서의 먹는 방식이 미식가의 방식이 있는가 하면 탐식가의 방식이 있을진대 이왕이면 음식을 즐겁게 즐기면서 식사를 하는 다

른 사람들도 함께 즐겁고 음식의 맛을 제대로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식사 시간을 갖는다면 누구나 좋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필드에서의 한바탕 즐거운 라운딩이 한사람 한사람의 욕심있는 마음들을 내려놓고 즐길 수 있는 마음으로 모아질 때 이루어질 수 있다. 내가 한타 한타에 생계가 좌우되는 프로가 아닌 다음에야 한타 한타에 욕심에 마음을 빼앗길 필요가 없다. 즐기면서 받아들여라. 한발짝 물러서면 진짜 재미있게 골프를 할 수 있다.

먹는 것을 유난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좋아할 뿐만 아니라 먹는 양이 엄청 많은 사람들도 있다. 정도에서 지나칠 정도로 많이 먹는 사람들을 보면 대체 먹기위해서 사는지 아니면 살기 위해서 먹는지 잘 분간이 가지 않는 경우도 있다.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필자의 젊었을 때 얘기를 하는 것이다.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먹는 것에 욕심이 많아서 엄청나게 많이 먹었기에 주위 사람들로 부터 많은 눈총과 관심의 대상이 되었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미련스럽다 싶을 정도로 밥을 많이 먹어 식욕의 노예였다고 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을듯 하다. 지금은 그리 적게 먹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절제할 수 있을 정도는 되기에 먹는 것에 있어서는 어느정도 철이 든 것 같다.

골프장에서도 식탁의 노예와 같은 부류의

HAPPY

해피돌상

고품격 전통상 대여 (백일상, 돌상)

한국보다 더 한국적인 품품한 전통상차림,
소중한 내 아기에게 한국의 미를 보여주세요!

저렴하고 무심하게!

- 품격을 더하는 화점도 현수막
- 다양한 수공예 소품들

- 엄마의 마음으로 만든 기저귀 케이크
- 국내산 용기접시와 찬기, 공기

- 화려하고 우아한 나비춤택대
- 풍성한 상차림 세트

문의 Happydolsang@gmail.com

창립 40주년 기념

강사예배



성요한교회

2014년 3월 16일(일) 오후 5:00

설교: 권진태 목사(창립 목회자)

2600 Massachusetts Ave
Lexington MA 02421

양미아의 심리치료 현장에서

“자신감, 자존심, 그리고 자존감”

양 미아 Licensed Psychotherapist

Private Practice: 1330 Beacon St.
Brookline, MA 02446
37 Fruit St. Worcester, MA 01609,
508-728-0832
yeungmiaj@gmail.com

김연아는 소치 올림픽의 경기를 통해, 밴쿠버 올림픽에서 안겨주었던, 한국인으로서의 위상을 또다시 펼쳐주었다. 스물 네살이라는 나이가 믿어지지 않게, 일등보다 더 빛나던 그녀의 모습이었다. 은메달이 금메달보다, 더 빛나던 순간이었다. 거듭되었던 피나는 연습과 수없이 힘든 과정을 겪으며 얻어낸, 그녀의 자존감이었다. 자존감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만이 지닌 특별한 가치를 지킨다. 자기 존재를 있는 그대로 존중할 줄 아는 마음이다. 그녀는 자신을 지켰다. 한국인의 저력을 보여주었다. 우리에게 한국인임을 당당히 여기는 자부심을 갖게 해주었다.

반면, 김연아의 10년의 라이벌인 아사다 마오는 어떠했는가? 4 동안 소치의 금 메달을 향해, 뼈 깎이는 노력을 해왔다. 그녀는 쇼트 프로그램에서 굴욕을 겪어야 했다. 그토록 열망한 트리플악셀의 성공이 오히려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게 했다. 금메달에 대한 집착과 다급했던 마음의 결과였다. 하지만, 마지막 경기에서 그녀는 다시 일어섰다.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믿고 당당히 일어나게 해준 것이 있다. 그것은, 자존심을 버리고 얻은, 그녀의 자존감이었다. 그 결과 메달대신 우리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자존심은 남에게 굽히지 않고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마음이다. 자신감이 자기에게서 오지 않는다. 남과 비교하여 우월감을 자신감이 느끼기 때문이다. 자존심의 크기에 따라 남에게 지지 않으려는 경쟁심의 크기가 생긴다. 은근한 자기 자랑이 많다. ‘척’ 하는 가면을 쓰게 된다. 남을 향한, 자존심에 근거한 자기 평가는 늘 불안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작은 웅덩이의 물은 외부의 자극을 받아 돌을 던지면

면 물이 사방으로 튈다. 자존심은 남에 의해, 자신이 흔들려 지는 것이다. 물이 사방으로 튀는 실패를 두려워 하기에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에 방해가 된다. In the Box의 테두리를 선호한다.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도 되기 문이다.

자존감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우월감과 열등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의 자세이다. 자기 자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소중해 한다. 외부의 강한 자극에도 마음에 상처를 비교적 덜 입는다. 자기가 설정한 목표에서 오는 실패를 두려워 하지 않는다.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에 필요한 Out of the Box 의 환경을 찾아간다.

웬만한 실패에도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다. 큰 호수에 돌을 던지면 아름다운 파장만 퍼져 나갈 뿐이다. 자존감은 큰 실패도, 큰 실수도 아름답게 마무리를 짓게 해준다.

정 해신 박사는 한국 사람들은 대체로 자존감이 낮은 편이라고 한다. 한국인들중, 특정 분야에서 충분히 인정받고 있는 사람조차 의외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있다고 말한다. 한국의 전통 문화는 ‘나’ 보다 ‘우리’ 를 중요시 한다. ‘우리’ 라는 테두리는 ‘In the box’ 로 살아가는 환경을 선호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자존감을 갖기 위해서는 ‘Out of the Box’ 를 피할 수가 없다.

특히, 미국에서 살고있는 보수적인 한국인들은 미국생활에 갈등이 많다. 영어권의 어려운 난제인 자유로운 언어 소통과 '우리'보다 '자기'를 중요시 하는 미국 문화를 소화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Out of the Box 사고 체계가 아닌, ‘In the Box’ 사고 체계로

있게 되기 쉽다. 그럴수록, 아이들과의 언어소통과 사고의 차이가 커진다. 대화를 할 수가 없다. 이 아픔은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 어떻게 자존감을 지켜야 하는지도 애매하다.

T군의 부모님은 한국에서 자타가 인정하는 에리트이시다. 형도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해, 아이비리그를 들어갔다. T군의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테라피 요청을 해오셨다. T군이 고등학교를 그만둔다고 선전포고를 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말 며칠째, 학교를 결석하고 있었다. 고등학교 10학년 후반기에 접어들고 있었다. T군의 심리적 갈등은 이미 국민학교부터 시작되었다. 수줍음이 많고, 친구도 없었고, 위축되어 있는 시간이 많았다. 공부도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소아과 의사가 진찰중 상담을 권유했다. 하지만 문제아로 낙인 찍히는 것 같아 상담을 거부했다. 그대신 8학년부터 많은 과외를 시켰다. T군은 스포츠를 좋아했다. 대학에 들어갈 때 교외활동을 감안하기 위해 스포츠를 하게 했다. 하지만, 공부에 치중하게 했다. 여름방학 때는 유명한 학원에 등록시켜 10학년 과정을 모두 마쳤다. 그런데 T군의 성적은 여전히 부모님의 기대에 못미치고 있었다. 싸움이 시작되었다. 더 많은 튜터가 보강되었다. T군은 결국, 학교를 그만 두겠다고 했다.

우울증이 심각했다. 성적보다는 우울증 치료가 시급했다. 치료중 부모님은 자신들의 에리트 의식이 심어준 자존심을 알게 됐다. 이 자존심 때문에 T군을 자신이 원하는 아이로만 들려고 했음을 인정하셨다. T군이 진정 원하는 공부는 미술이었다. 컴퓨터로 하는 그래픽 디자인이 너무 좋았다. 10학년에 미술수업을 들으면서 '자신감'을 처음 느꼈다고 했다. 미

술 선생님께서 T군에게 “넌 탁월한 재능이 있다” 하시면서 미술을 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실 때였다. 왜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않았냐고 물었다. 부모님은 남자가 미술을 해서 무얼 하고 사는냐고 이미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여태껏 제대로 한 것이 없는데, 미술은 얼마나 오래 갈거냐고, 믿지 못한다고 하셨다.

치료를 통해 부모님은 T군의 Out of the Box 의 삶의 방향을 받아들이셨다. 미술 과외도 뉴욕까지 가시면서 지원했다. T군의 자신감은 큰 곳에서 온 것이 아니었다. 학교에서 선택과목인 1 크레딧 밖에 안되는 미술 과목이었다.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됐다. T군은 처음으로 자기의 맨 얼굴을 드러내는 자유를 느낀 것이다. 진정한 ‘그’ 만의 자신감을 가진 것이다. 그 자신감은 부모님들의 맨 얼굴을 들여다 보게 도와 주었다. 자신들의 두려움이 남의 평가에 의해 기인 하였음을 보게 하여 준 것이다.

T군은 그 이후, 여러 공모전에 도전하였고, 상을 곳곳에서 받게 되었다.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자기가 원하는 미술 대학에 진학했다.

낮은 자존감과 강한 자존심은 진정한 자신감을 갖는 데 방해요소가 된다. 자신감은 큰 곳에서가 아니라 작은 곳에서 찾을 수 있다. 동네 도서관에서 무료 영어 수업이 있다. 두렵지만, 등록을 해본다. 수업이 재미있다. 생각보다, 잘한다. 이것은 남에게 보이려는 자신감이 아닌, 자신에게 주는 자신감이다. 이 경험이 생의 열정으로 다가올 수 있다. 아이들에게 자신감은 가장 중요할 수 있는 생의 자원이다. 아이들의 새로운 도전을 격려하자. 아주 작은 것 일지언정 관심을 갖고, 재미있게 들어주자. 도전하는 용기를 칭찬하자.



행복한 미소가 그리우십니까?

1st 초이스가 고객님의 미소를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모든 진료를 편리하게 한곳에서!

★치아교정

★사랑니발치

★임플란트수술

★보철/비니어

★신경치료

★소아치과

★치아미백

★악관절(TMJ)

★수면진정마취

★3D X-Ray(CT 스캔)

Special!



치아교정 무료 상담

(2.019-12-4까지)

Dr. Jeong Sook Lee (이정숙 선생님)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DDS/Ph.D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DMD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Practice limited to prosthodontics

Dr. Michael Kang (강정원 선생님)

University of Pennsylvania, DDS
Harvard Dental Resident
Practice limited to endodontics

Dr. Samuel Lee (이순호 선생님)

UCLA School of Dentistry, DDS
Harvard Dental Resident
Practice limited to perio, implant, & arthro



11 Cambridge St. Burlington, MA 01803



DENTAL

1st.CHOICE DENTAL

IMPLANT • BRACES • COSMETIC

한국인 직원을 찾아주세요

781.273.2233

www.1cdental.com

11 Cambridge St. Burlington, MA 01803

H

마트에서
5분 거리

민주-새정치연합 신당창당 전격 선언

(보스톤 = 보스톤 코리아) 오현숙 기자 =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운영 위원장과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통합신당 창당을 전격 선언했다. 이들은 또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여부 역시 무공천을 공동으로 실천하기로 했다고 발표하면서 6·4 지방선거를 비롯한 정치권 전반의 지각변동을 예고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통합 방식과 향후 지도체제 구성을 놓고 초장부터 뼈격거리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여권에서는 민생부터 챙기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민주·안철수 신당창당 전격발표

민주당 김 대표와 안 의원측 새정련의 신당 창당 선언은 양측 지도부도 기자회견 직전 사실을 알았을 정도로 보안에 특별히 신경쓴 전격적인 발표였다.

이번 창당 합의 과정은 1월 24일 오찬 회동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두 의원은 이날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구태정치를 반복하는 현 집권세력에 대해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라는 공감대를 갖고 지난달 20일 기초선거 공천 폐지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어 안 의원은 24일 기초선거 무공천을 선언하고 26일 김 대표를 방문해 기초선거 무공천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28일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에서 무공천이 다수의 의견임을 확인한 김 대표는 이날 밤 안 의원에게 전화로 무공천 결심을 통보하며 통합을 공식 제의했다. 이튿날인 1일 두 의원은 오전에 2시간 동안 회동을 가졌다. 같은 날 오후 8시 30분께 다시 회동을 갖고 약 4시간 동안 합의문을 완성했다. 이후 회견 1시간 전 각각 긴급최고위원회의, 공동위원장단 회의를 소집해 사후 추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련, 거센 반발 이어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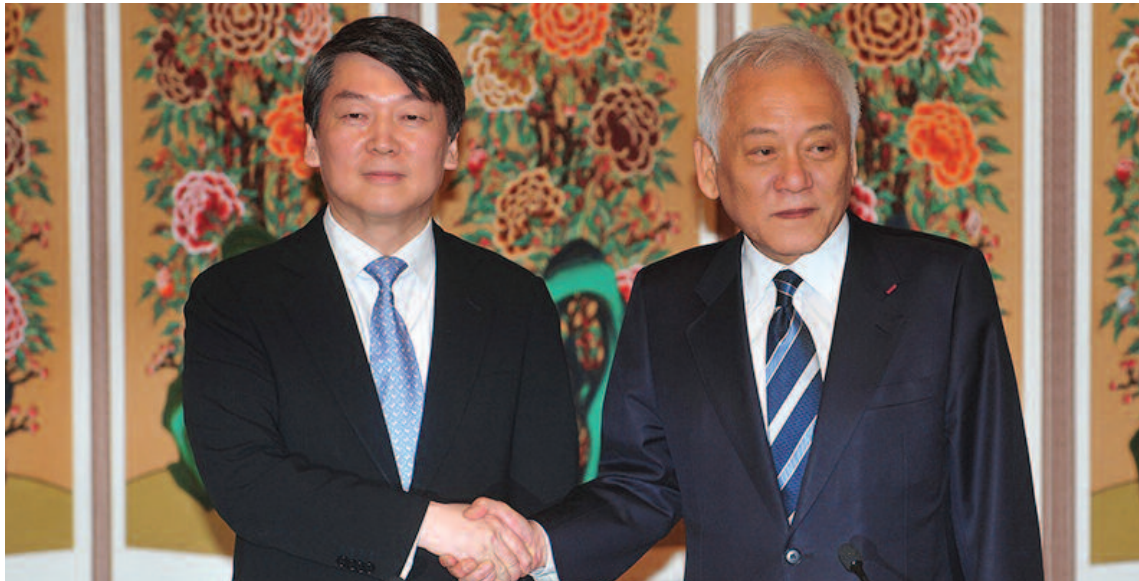
이 같은 과정을 두고 민주당내에서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일부 반발도 있다.

김광진 민주당 의원은 2일 SNS를 통해 “언제부터 민주당이 당 대표 1인에게 당 해 산, 합당, 신당 창당의 권한을 줬느냐”며 “이런 중차대한 일을 당원, 의원단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회견 5분 전에 ‘미리 상의하지 못해 양해를 구한다’는 문자 하나 달랑 보내고 끝낼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새정련 측에서도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새정련 창준위 김성식 공동위원장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제3지대 신당 합류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 윤여준 공동위원장단 의장도 2일 새정련 내부 회의를 마치고 사무실을 나간 뒤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새정련은 새누리당이나 민주당 소속이었던 인사들이 기존 정당과 다른 독자노선을 걷겠다는 새정련의 뜻에 동참해 합류한 경우가 많아 갈등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연합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은 지난 2일 국회 사랑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신당 창당을 전격 선언했다

이 클 전망이다.

호랑이 잡으려 호랑이 굴로

"야권 연대는 없다"며 독자 노선을 강조해왔던 안철수 의원이 민주당과의 합당으로 선회한 것은 2017년 야권의 대선 후보가 되려면 민주당과의 합당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현실적 판단 때문이다.

안 의원 측 송호창 의원은 이날 "맨손으로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심정"이라고 했다. 호랑이(대선 후보)를 잡기 위해 호랑이 굴(민주당)로 들어간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다.

안 의원은 전국 17개 광역 시도에 후보를 전부 내겠다고 신당 창당까지 추진했지만 극심한 인물난에 시달렸고 야권 지지층으로부터는 "표를 분산시켜

새누리당을 도울 것이냐"는 압박을 받아왔다. 민주당 중도 그룹에서 "안 의원을 돕고 싶지만 입당을 하지 않는다면 도와줄 방법이 없다"며 구애한 것도 안 의원의 합당 결심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 측 관계자는 "호랑이를 잡을지 잡아먹힐지는 지금부터 하기 나름"이라고 말했다.

양측, 통합방식 놓고 뼈격

야권 통합을 결의한 민주당과 새정련이 구체적인 통합 방식과 향후 지도체제 구성을 놓고 초장부터 뼈격거리는 모습이다.

김 대표와 안 의원이 통합신당의 공동대표를 맡고 지도부는 동수로 구성하기로 합의했지만 창당 과정에서 어

떤 식으로 민주당이 신당에 들어오느냐를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제3지대'에 공동으로 신당을 만든 뒤 새정련과 민주당이 차례로 합류하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민주당이 신당과 합당하는 형태로 통합할 것인지, 아니면 당을 해산하고 신당에 개별 입당할지를 놓고 양측의 의견이 팽팽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은 당을 해산하면 올해만 55억원, 2016년 총선까지 150억원의 국고 보조금을 날리는 것은 물론 수십만명의 당원이 일일이 다시 가입하는 데만 수개월이 걸리는 등 현실적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반면 안 의원 측은 '새정치' 명분에 맞추려면 '당 해산 후 창당'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집권 2년차 박 대통령, '한손엔 경제, 한손엔 통일' '경제민주화 언급 없는 장밋빛 청사진' 비판도

(보스톤 = 보스톤 코리아) 오현숙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취임 1주년을 맞아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통일준비위원회 설치를 담화문을 통해 발표했다.

이번 담화문 발표는 지난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밝히겠다고 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2017년에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올리고, 고용률 70%를 달성하며 1인당 국민소득 4만불을 지향하는 이른바 '474'의 초석을 다져 놓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의 3대 핵심전략으로 구성돼 있다. 박 대통령은 3대 핵심전략을 임기 내내 직접 챙기면서 강력하게 추진해서 성공적으로 이끌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지난달 25일 취임 1주년을 맞아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을 발표하는 박근혜 대통령

박 대통령은 이날 담화문에서 경제혁신과는 직접적으로 상관은 없지만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는 발언으로 우리사회의 주요 화두로 자리잡은 통일과 관련한 새로운 입장을 내놨다.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여는 통일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통령 직속으로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 체계적이고 건설적인 통일의

방향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저는 신년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내년이면 한반도가 분단된 지 70년이 되는데 이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여는 통일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여야는 이날 발표된 담화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적극 환영하면서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지만, 야당인 민주당은 '장밋빛 청사진'이라고 혹평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담화에 대해 국회 브리핑을 통해 "국민행복시대를 위한 구체적 방향을 천명한 것"이라며 "통일대박에 이은 경제대박 성공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당 대 당’ 통합에 대해서는 이미 양측 대표 간에 합의가 된 것으로 안다"고 했고, 새정련 관계자는 "안 위원장이 ‘당 대 당’으로 통합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해산하고 합류하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이야기한다"고 반박했다.

민주 친노, 안철수 등장에 긴장

민주당 내 모든 정파와 차기 주자들은 일단 합당 선언을 환영했다. 2012년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은 물론 손학규 전 대표와 정세균 전 대표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방선거의 가장 큰 고민이었던 야권 단일화 문제가 해결된 이상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까지 고려하면 야권 내부의 사정은 훨씬 복잡해진다.

문재인 의원과 안희정 충남지사 등을 차기 대선 후보로 모색해왔던 친노 입장에서는 안 의원의 갑작스러운 등장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신당에서 안 의원에게 어느 정도의 지분을 주느냐에 따라 야권의 다수와 자리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진정한 새 정치는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우리 정치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언급하면서 신당 창당 추진에 대해 이례적으로 견제구를 날렸다.

새누리당 중진의원들은 5일 민주당과 안철수 무소속 의원의 통합신당 창당을 '야합'이라고 비판하면서도 그와는 별개로 새누리당도 국민들에게 새 정치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soh@bostonkorea.com

하지만 민주당 이윤석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뚜껑을 여니 민생과 서민은 없었다. 잘 포장된 보고서가 아닌지 의문"이라고 담화 내용을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경제민주화나 가계 빚 문제 등에 대한 언급 없이 장밋빛 청사진만 나열하는 대통령의 말씀은 공허해 보였다"며 "무능한 경제팀이 만들어낸 과거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유사품이 아닌지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통일준비위원회' 발족에 대해서는 "김한길 대표가 제안한 '통일시대준비위원회'를 수용해 다행스럽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연석회의 후 브리핑에서 일각에서 제기된 '재탕삼탕의 백화점식 대책'이라는 비판에 대해 새로운 과제가 아니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빨리 결과를 내 국민들에게 체감하게 만드는 것이 3개년 계획의 중요한 지침이었다"고 말했다.

hsoh@bostonkore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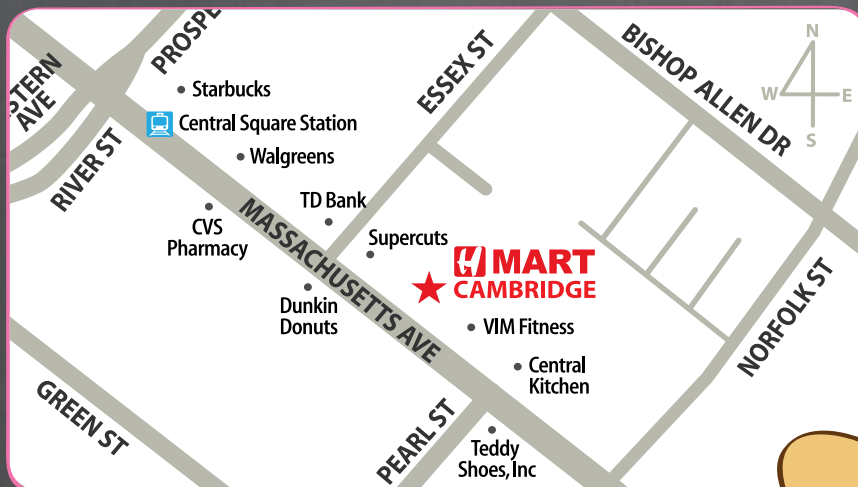
HMART CAMBRIDGE COMING SOON

Always expanding and reinventing for your ever evolving palate!

America's NO. 1 Asian-American supermarket is coming to Cambridge. Experience one-stop shopping at its best with the freshest groceries, superior home goods, friendly service, Asian-inspired food court.

미국 내 아시안마트 NO.1 H마트가 캠브리지에 곧 오픈합니다.

1년 365일 산지에서 직송되는 신선하고 다양한 식품들과 건강까지 생각하는 유기농 제품들, 최고의 서비스,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깨끗하고 넓은 고품격 원스탑 쇼핑공간 H마트 캠브리지점을 곧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HMART CAMBRIDGE
581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Red Line @ Central Station)
customer_care@hmart.com

From East (Downtown Boston) : Take Beacon Street west until you come onto Massachusetts Avenue. Turn right onto Massachusetts Avenue, drive about 1.2 miles and Hmart Cambridge will be on the left. (581 Mass Ave., Cambridge, MA)

From North (Somerville Area) : Take Prospect Street south until you come onto Bishop Allen Drive. Turn left onto Bishop Allen Drive, Turn right onto Norfolk Street. Turn right onto Mass Avenue, Hmart Cambridge will be on the left.

Public Transportation (Red Line) : Take the (T) Red Line Subway to Central Square Station (#70069) Hmart Cambridge is on 581 Massachusetts Avenue, Cambridge, MA. Walking distance from the Central Square Station is about 1 minute.

H MART® A Korean tradition
made in America.
Since 1982.





enjoy & TV

전 미주 최초! 방송 3사 모두
시청 가능한 유일한 TV = 앤티비

\$ 24.99

(2년 약정시, Tax 면제)

1. 학생증을 보여주세요!

학생 할인

\$24.99(홀드백 Free 상품/1인1대/무약정 가능)

2. 신분증을 보여주세요!

시니어 할인(65세이상)

\$24.99(홀드백 Free 상품/1인1대/1년약정)



3. 추가로 설치하세요!

2nd, 3rd 앤티비 추가 장비 할인

\$24.99(홀드백 Free 상품/총 3대까지 가능)

www.enjoyandtv.com

KBS1, KBS 2, MBC, SBS 인기 프로그램과 영화,
키즈, 교육, 신앙생활, 골프 등 수만여편의 콘텐츠,
이제 앤티비와 함께 다양한 재미와 유익한 정보를
무한대로 즐기세요!

문의 및 연락처

보스톤코리아 TV 사업국

617.955.9112

617.650.6656

*불법 콘텐츠를 시청하는 행위는 범법행위이며, 우리 문화 잠재력을 파괴하는 매국 행위입니다.

enjoy & TV

보스톤 앤티비

개국 1주년 이벤트

신규가입자에 한해 6개월 동안의 혜택

\$24.99

(2년 약정시, Tax 면제) ~~\$34.99~~

보스톤 앤티비 개국 1주년을 기념하여 특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홀드백 없이 당일 방송을 당일에 시청할 수 있는 \$34.99 프리미엄 플랜을 6개월간 \$24.99에 시청하십시오. 이벤트는 단 3개월만 진행합니다. 앤티비는 인터넷 신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 IPTV로 셋탑 박스를 설치해 원하는 시간에 내맘대로 시청 가능합니다. 앤티비는 월 \$34.99/24.99 두가지 한국방송 시청 플랜이 있습니다.



전 미주 최초! 방송 3사 모두 시청 가능한 유일한 TV-앤티비

【알림】

한미 저작권보호기구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 국채범죄수사대는 현재 ICE, 인텔 등과 합동수사중이며, 한국 KBS, MBC, SBS방송 3사가 연방 ICE, CBP, FBI 등 미국정부와 공조한 결과 가장 가입자가 많은 클럽나라(구 콩디스크)운영자가 체포되었습니다. 불법 사이트가 난무하는 마진역에 운영자들을 공개수배중에 있으며, 앞으로 단속대상에 일반 사용자들도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www.enjoyandtv.com

KBS1, KBS 2, MBC, SBS 인기 프로그램과 영화, 키즈, 교육, 신앙생활, 골프 등 수만여편의 콘텐츠 앤티비와 함께 다양한 재미와 유익한 정보를 무한대로 즐기세요!

*불법 콘텐츠를 시청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이며, 우리 문화 잠재력을 파괴하는 매국 행위입니다

문의 및 연락처 **보스톤코리아 TV 사업국**
617.650.6656/617.955.9112

enjoy & TV

www.pospay24.com



POWERED BY
WorldPayTM
Authorized Representative Agent of

ProSPay



 Leaf

무료기계(2중계약 없음)

One Touch Solution POS
24시간 이내 입금

모바일페이 (iPhone, Android)

Agent / 상담원 모집

TEL **617-466-2212**

TOLL FREE **888-604-2190**

150 Eastern Ave #2FL Chelsea, MA 02150



집에서 맛보는
한국의 맛!



참이슬/처음처럼

\$5.99
375ml/1EA

농심 후라면
Buy two, Get one
FREE
4pack only

everyday
special
price

한국술 대전

- ✓ 처음처럼 \$19.99 / 1.75LX8EA
- ✓ 진로소주 \$21.99 / 1.75LX8EA
- ✓ 참이슬 \$19.99 / 1.75LX8EA
- ✓ 국순당 쌀 막걸리 \$5.99
- ✓ 국순당 생 막걸리 \$5.99
- ✓ 경주법주 쌀 막걸리 \$5.99
- ✓ 포천일동 쌀 막걸리 \$7.99
- ✓ OB맥주/기린맥주/사포로맥주/하이트맥주
와인/사케 등 “한국술.미국술.일본술” 구비

辛



보스턴한인과 함께한 30년 전통

릴라이어블 마켓

EBT 받습니다 / 1년 365일 오픈
엄마의 마음으로 만든 Take-Out 서비스
(김밥/잡채/부침개/떡볶이/떡 등)
한국/일본 TV DVD 대여

+1.617.623.9620

Mon~Fri | 0930 ~ 2100
Saturday | 0900 ~ 2100
Sunday | 1000 ~ 2000

Our Address:

45 Union Square,
Somerville, MA 02143

넓은 주차장 있습니다
하버드, MIT 10분 / 올스턴, 멀튼 20분

사업의 시작은

Lee Associates

이경해 부동산
1.800.867.9000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상가건물, 콘도, 아파트건물 투자하실 분 환영
1031 Exchange 서비스, 비즈니스 용자 알선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항상 리스팅 60-70보유

E2 비자 사업체, 비즈니스 무료상담
크고작은 세탁소들, 런드로맷(Laundromat) 많은
주유소, 식당, 편의점, 주류판매점등 다양한 사업체
항상 원하시는 사업체를 찾아드립니다.

Cell.....508.962.2689
Tel.....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kayleebrokers@aol.com

보스톤 북쪽 아침, 점심 5일 오픈, 건물안 위치 연매상 \$180,000

로드아일랜드 큰 몰 안 모자+악세사리, 연매상 \$500,000+

보스톤 대학가 근처,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180,000+\$100,000(홀세일),
60lbs 세탁기(픽아님)

런드로맷 고급동네, 연매상 \$62,000, 소유자 부재, Open/Close 자동시스템

뉴햄프셔, 요구르트 아이스크림, 전국체인, 연매상 \$200,000+, 소유자 부재

보스톤 남쪽 피자 연매상 \$300,000 한국식당으로 전환 가능

보스톤 남쪽: 중식+스시 연매상 \$ 1M+ Full Liquor 면허증

전국 체인 델리, 고급 몰 안에 위치 연매상 \$520,000

보스톤 북쪽 주유소+컨비니언스 (2 비즈니스), 연매상 \$1.4M

식당 아침, 점심 보스톤 북쪽 주 6일 오픈 연매상 \$180,000

뉴튼 세탁소: 연매상: \$120,000+ 홀세일: \$100,000 오너 파이낸스(50%)

아침+점심(5일) 보스톤 점심만, 연매상 \$250,000 아침 첨가할 수 있음

동양그로서리 연매상 &800,000+부가수익, 비어+와인, 로타리 저렴한 매매가격 \$129,000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 연매상 \$250,000 소유자 은퇴

보스톤 동북쪽 세탁소 Full Plant 연매상 \$370,000 매매가 285K 소유자 은퇴

런드로맷: 보스톤 연매상 \$180,000 새 장비들 (2010년)

드롭오프: 보스톤 북쪽 연매상 \$142,000 고급동네

상가건물 4, 5 유닛 고급동네, 100% 수리 완료 매매가격 \$789,900

섬머빌 런드로맷 연매상 \$180,000

세탁소 Full Plant +셔츠유닛, \$300,000 +Owner finance 가능

런드로맷 +부동산, 연매상 \$230,000 소유자 부자중 경영, 카드시스템, 물값 절약가능-우물보유

런드로맷: 연매상 \$60,000 캠브리지, 부수입! 무인 자동시스템 완비, 소유자 부재

드롭오프: 보스톤 북쪽 연매상 \$200,000+ Full Plant로 할 수 있음

뉴튼지역 세탁소+셔츠 유닛, 내부수리 완료, 연매상 \$170,000+

동양식당: 연매상 \$250,000 새 시설, 학교 급매매 Any Offer 받음

세탁소 뉴튼지역, 연매상 \$145,000 19년 경영, 매매가격 \$139,000

드롭오프+런드로맷: 연매상 \$455,000-100% 소유자부재 Working owner 매상증가 가능성



명문 중.고.대학 진학상담및 수속

- 전문적인 맞춤형 진학상담
- 최고 에세이 편집자
- 최고 전·현직 입학 담당자 상담

섬머/윈터 프로그램

- 전문적인 관리및 실질적인 프로그램
- MIT/Harvard 특별 프로그램
- 다양한 주말 프로그램

가디언 업무

- 수시 교사 면담및 성적관리
- 아카데믹 로드맵 작성및 실행
- 다양한 경시 대회준비, 섬머및 교외 활동

아카데믹 프로그램

SAT 1, 2 / AP 수업

- 최고 전문가들의 강의
- 단기 고득점 완성
- 실전 문제 중심 수업
- 상시 참여 및 주말 수업 가능
- 개인 및 스카이프 수업 가능

학업 과목 개인과외 가능

- 영어, 수학, 과학, 외국어, 역사,
- 경제, 심리학, 기타 과목들
- 개인및 스카이프 수업 가능

2014 주말프로그램

SAT I Class

9:00-10:00 vocabulary
10:00-1:00 수업(critical reading, writing)
1:00-2:00 점심
2:00-5:00 실전문제 풀이

Writing Class

*현직 영어교사 강의
*장기간에 걸친 다양한 장르의
체계적인 글쓰기 교육
*4~5학년:10:00-12:00(토)
*6~8학년:12:00-2:00(토)

AP 및 SAT II subject, National Spanish Exam 을
준비하는 학생들을위한 개인지도 가능

3,4월 Spring Break 프로그램

사립학교 학생을 위한 SAT I 준비반

기간 - 3.8(토)~3.22(토)

공립학교 학생을 위한 SAT I 준비반

기간 - 4.19(토)~ 4.27(일)

SAT I Class

*주말 SAT 1 Class와 같은 시간구성

무료 진학상담 가능(예약필요)

*2015 college process는 접수완료 되었습니다.

Boston Education World, Inc. 보스톤 교육원

128 Wheeler Rd. #301, Burlington, MA 01803 3

tel. 339.234.5255~7 / fax. 339. 234. 5258

www.bostonedu.org 문의: info@bostonedu.org

수업문의: academicservices@bostonedu.org